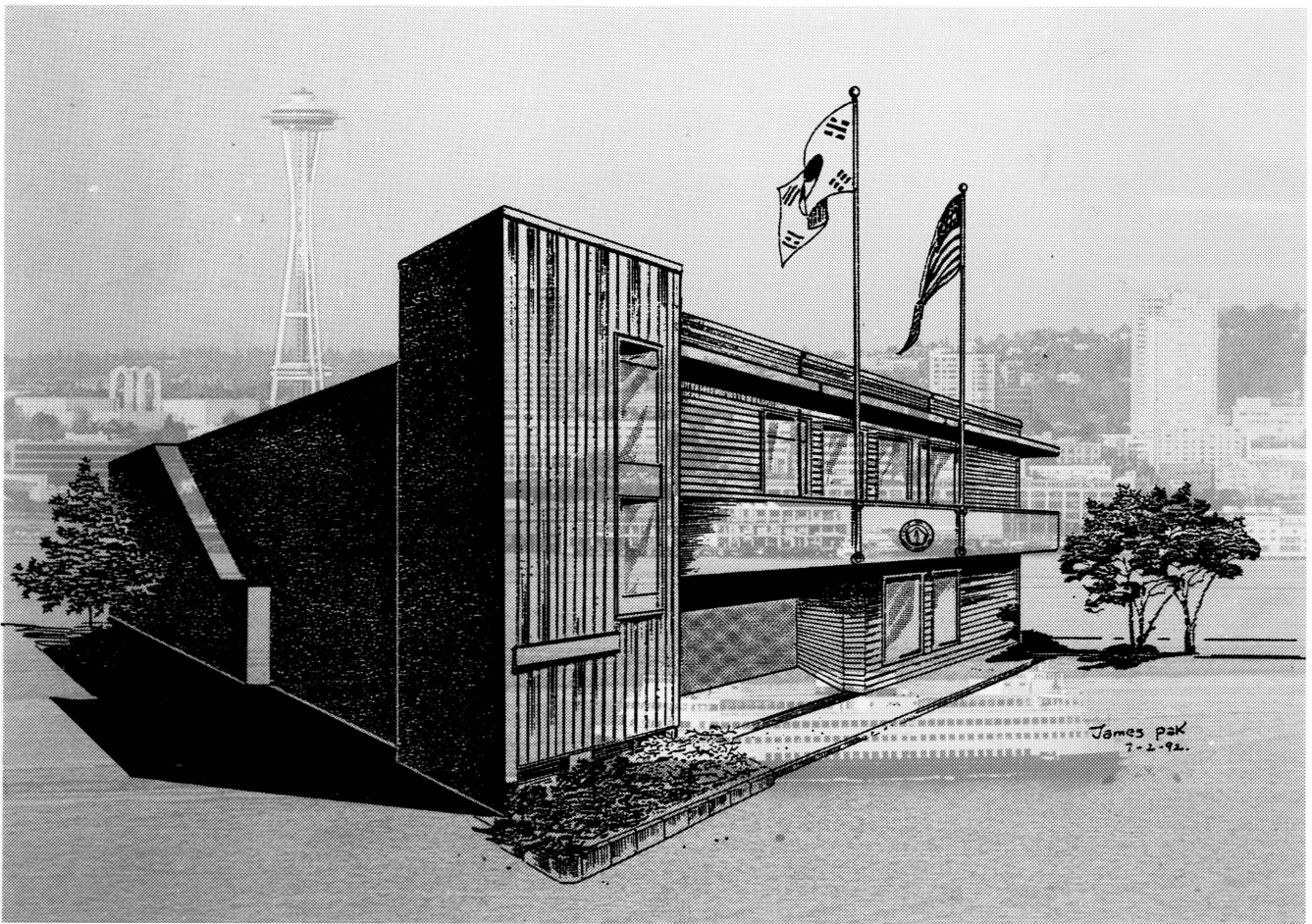


# 한인회보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outh Angelo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8  
Telephone: (206) 767-8071 • Fax: (206) 767-2784

우리 시티은행에서는 한인 고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업, 일반은행 업무를 저희 은행에 맡겨주십시오.  
 1990년과 1991년 워싱턴주 개인 자영업 지원에  
 최고를 기록



Lynnwood Office Commercial Lending Officers: Todd Hanson, Katherine Thompson, Linda Nolan and Larry Jub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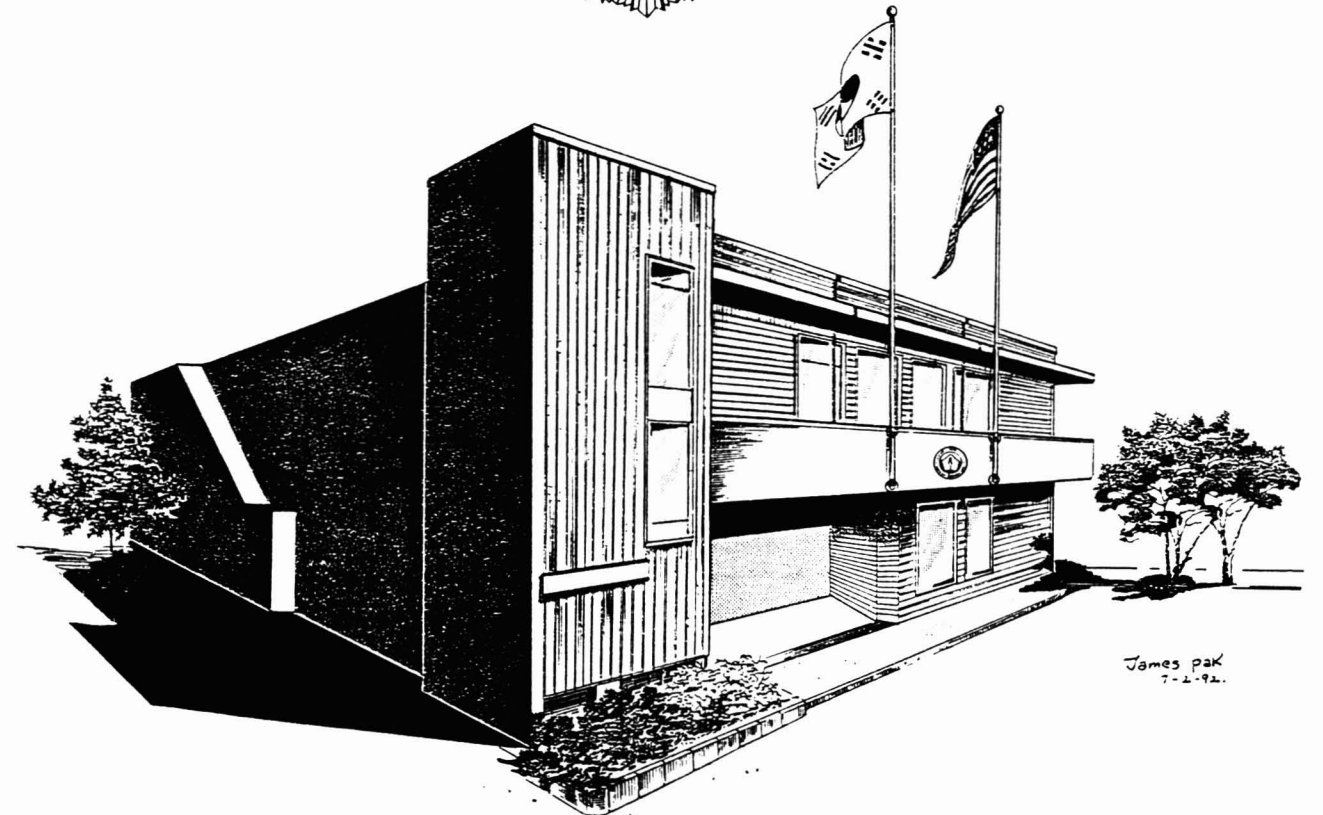
# CITYBANK

One of Washington State's highest volum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enders in 1990 and 1991.

Financial Center 745-5933	Lynnwood 775-5480	Ballinger 363-7202	North Creek 486-9523
Mill Creek 338-4300	Innis Arden 546-5125	Alderwood 771-2064	Evergreen Way 355-7375

Member FDIC

# 한인 회보



씨앤티-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outh Angelo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8  
 Telephone: (206) 767-8071 • Fax: (206) 767-2784



- 목 차 -

제 26대 한인회장 인사문.....	5	제 26대 한인회 화보 .....	39
제 26대 한인회 이사장 인사문.....	6	회장님께 드리는 글(이 해영).....	48
축사(제 5대 씨애틀 총영사).....	7	교통사고 법률상식(Charles Herrmann). 51	
축사(Booth Gardner 주지사).....	8	태권도의 이해(황 선두).....	53
축사(Slade Gorton 상원의원).....	9	사진은 빛의과학(김 남규).....	56
축사(Norman Rice 씨애틀 시장).....	10	S. Corporation에 관한 이해(박 광영). 58	
한인회보 발간을 축하하며(민주평통 협의회 회장 이 종찬).....	11	눈과 전신질환(민 흥기).....	62
제 26대 한인회 고문, 자문위원, 감사 자문이사, 이사, 임원, 한글학교 한인회관 운영위원 명단.....	12	교통사고 이후에 왜 척추신경을 보는 것이 현명한가(오 창익).....	63
전직회장님들의 한말씀.....	17	90년대 산부인과 진료(로 명재).....	66
교민께 드리는 글(신 호범).....	20	여름철 피부질환(조 원제).....	69
집단의식의 필요성(김 현길).....	21	약학상식(박혜성).....	72
유비무환(이 지선).....	23	위암에 대하여(오 기현).....	75
워싱턴주 경제전망(손 창묵).....	24	시민권의 의의(김 영희).....	77
그리스도의 평화성당(토머스 머피)....	27	지금이 과연 투자 적정기인가(윤 상인) 78	
한국사람(김 종국).....	29	저달을베어 내마음 만들고자(김 성중). 80	
영원한 한국인(구 일모).....	31	콜레스테롤로 인한 질병을 예방 하려면(김 덕신).....	82
부처님의 사랑(정업).....	32	씨애틀 명소안내(하나여행사).....	87
범민련의 정체(소 준열).....	33	제 26대 한인회 업무보고.....	90
교민께 드리는 호소문(신 호범).....	36	제 26대 한인회 회비납부자 명단.....	94
교민께 드리는 호소문(테리문 후원회 일동).....	37	아리랑의밤 개최 안내.....	98

강물리지압원.....	68
대한항공.....	표지
미락식당.....	22
민흥기 안과.....	62
박광영회계사무소.....	30
박부동산.....	47
백천식당.....	28
보니왓슨 장의사.....	81
북격반점.....	30
산본식당.....	67
서울약국.....	73
신라식당.....	24
신신백화점.....	표지
심상준 부동산.....	69
아카사카식당.....	49
양반집.....	76
오복집.....	26
오창익 척추신경원.....	74
온셋보석상.....	52
워싱턴주 노인대학.....	84
의사협회.....	71
이동훈 변호사.....	84
이석주, 박현철 합동공인 회계사무소.....	81
인태중국한의원.....	65
일차집.....	84
조병규치과.....	23
진스잡화.....	33
창작사진관.....	56
초원의집.....	25
최병택보험.....	36
타임잡화.....	54
태권도협회.....	53
태화각.....	50
패스포트여행사.....	70

핑크레스토랑.....	73
한일각.....	57
헤어센스.....	31
희래등.....	22
All State 류창명.....	67
Alpine Mortgage Services..	29
Century Realty.....	75
Charles Herrmann 변호사..	38
City Bank.....	표지
Delta Equipment.....	55
Eastern Supply.....	55
Hyundai Supply.....	73
Keller Rohrback.....	86
Lee's Al Autobody.....	49
Lynnwood 한의원.....	61
National Maintenance Contractor.....	61
North Western Collison...	85
OK 운전학교.....	50
Olympic Cleaning Equipment.....	74
Pacific Funding Group....	77
PJ 건축.....	86
Prudential.....	35
Rivers West.....	32
The China Gate.....	60
TTI .....	79
University Village Florist.....	34
US bank.....	55

## 인사문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25주년을 맞아 발간하게 된 한인회보를 통해서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오늘날까지 지켜오신 전직회장, 이사장 그리고 전 이사, 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25년 동안 온 교민의 힘으로 일구어온 자랑스러운 한인 회관이 죠지타운에 우뚝 서 있음은 더욱 더 이 미주 사회 어느 지역 보다 모범이 될만한 자랑거리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 회관을 교민 사회 권익 증진을 위한 보금자리로 키우고, 자라나는 2세들의 터전이 되어 그 어느 누가 한인 회장이 되든지 교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 온 교민이 바라는 한인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92년 본인이 취임 이후 이사, 임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교민 봉사 활동을 펼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란 명분을 가지고 한인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과정에서 무척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배분들로 부터 수고한다는 격려전화와 또는 잘 모르는 분들로 부터 한인회비가 보내져 올 때 용기와 힘이 다시 생기곤 합니다.

지난 4.29 L.A. 사태는 우리 모든 교민이 필연코 그 원인을 되새겨 이 미주 교민사회에 다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고, 우리민족의 우월성을 이땅에 심어놓아 우리의 자손만대에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있도록 다같이 협력합시다. 우리 1세또는 1.5세에서 놓여지는 주춧돌이 올바르게 놓아져야 후세에 튼튼한 건축이 완공 될 것 입니다. 이제 남은 저의 임기 동안은 물론 한인 사회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온 교민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빌면서.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 이 광 슌



## 인사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25주년을 기념하는 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지면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인회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선배 회장,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자체 회관을 마련하고, 다변화 하고 있는 한인사회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우리 한인사회는 미국사회에 눈을 돌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건실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단결하여 한가지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한인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L.A.의 폭동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도 미리 예방하는 길이 될것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한인회의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한인회의 임원이나 이사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심부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임원 이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감독을 하신다면 화합되고 잡음없는 모범적인 한인회가 될것입니다.

“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의식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각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이사장 박 영 민



## 축사



금번 한인회보 발간을 우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씨애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생활여건과 제도가 다른 환경속에서 우리 한인사회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L.A. 사건은 우리 한인사회의 단합과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었으며, 이지역 교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동포애와 성원을 보내주신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씨애틀 지역 교민 여러분께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이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어 미국속에서 자랑스런 소수민족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미국 주류사회 및 소수민족 구룹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씨애틀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씨애틀 총영사 고 창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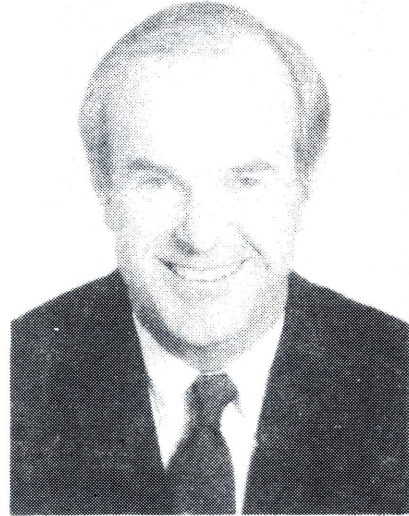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OLYMPIA  
98504-0413

BOOTH GARDNER  
GOVERNOR

June 1992

**MESSAGE FROM THE GOVERNOR**



As governor of the state of Washington, it is my pleasure to send greetings to the people of our Korean community in the first edition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bulletin.

Washington takes pride in its cultural diversity and strong ethnic heritage. The Korean community in this state has contributed a great deal to making Washington a more exciting and enjoyable place to live.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in the coming year and beyond.

Sincerely,

Booth Gardner  
Governor

**주지사의 축사**



워싱턴주의 주지사로서, 한인 커뮤니티의 여러분에게 먼저 씨애틀 워싱턴 한인회보 발간의 축사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워싱턴주는 다채로운 문화와 강한 민족특유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프라이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주 속의 한인 커뮤니티는 이곳을 더욱 더 흥미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크게 공헌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해와 후세에도 연속되어지는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드 가드너  
주지사



SLADE GORTON  
WASHINGTON

730 HART SENATE OFFICE BUILDING  
(202) 224-3441

TOLL FREE ISSUES HOTLINE  
1-800-282-8095

TDD 202-224-8273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4701

June 15, 1992

The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 Angelo Street  
Seattle, WA 98108

Dear Friends:

Last month, I had a constructive meeting with a group of Association members to talk about the Los Angeles riot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role in helpi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re. They asked if I would offer some of my opinions on the subject for this newsletter. I am thrill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do so.

Since the end of those riots, Americans have reached some healthy conclusions on how to remedy our problems in the inner-cities. We've agreed we should promote work rather than welfare, that we should concentrate on keeping families together, that we must improve educational performance, and that we don't want large, wasteful government programs that don't work. In short, we have agreed on the fundamentals behind an urban policy.

But most of us agree that it will be some time before a comprehensive plan is implemented and certainly longer until we see its effects. What we can do immediately, though, is to secure the resources necessary to rebuilding the small businesses and promise their owners adequate protection. This will be a healthy start to any urban policy.

Of course, the government has a moral obligation to do so. But going beyond what is moral, it's also the pragmatic course of action. Our cities are caught in the chicken and egg predicament: they need investment more than anything, but no one will invest unless there is something to build upon. The government must intervene and offer aid. At the least, that should include repairing the damage done during the riots. It's important to do this because the qualities we've identified as desirable in a new urban policy are exemplified in many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whose livelihoods have just been jeopardized by the riots.

The Korean community, which bore the brunt of the riots, comprises a majority of this group. They have the highest rate

of entrepreneurship of any Americans, a strong sense of family, and a commitment to education. And perhaps what's most striking about this group -- and highlights why we must help them rebuild -- is their tendency to rely upon their own resources while shying from government help. The Korean community has consistently built its own institutions where our government's have failed. (The gun-toting store owners were the most recent example of this.) If we offer adequate protection and rebuilding funds, the Korean community will flourish again, and provide to the inner-cities, without requiring more government help, the elements we've identified as important to our cities' future.

So alongside our debate on an urban policy, should be a strong commitment to rebuilding the damage done to our cities' small businesses. We can do this by securing enough money for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eter Ueberroth's "Rebuild L.A." team should include a large Korean voice. The cities should employ the most effective anti-riot strategy there is: shaping up the police departments and ending the chances of more police brutality against minorities. And finally, we should be careful that the aid we extend doesn't equally benefit criminals and victims.

These steps will be a jump-start to whatever policy we pursue. If we do not take them, or if we drag our feet, we will jeopardize the building blocks essential to our cities' renewal.

I appreciate the work and compassion of the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would like to reiterate my thanks for all they have done for Seattle and Washington state.

Sincerely,

Slade Gorton  
United States Senator

SG\bec

친애하는 여러분:

지난달에 한인회와 여러 일원들 모임에서 L.A.의 폭동사건과 그리고 그 곳의 한인 사회를 돕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진지한 대화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인회보에서 이러한 주제와 나의 의견들을 여러분이 요청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게 되었습니다.

L.A. 폭동이 있은 후 미국인들은 도시 속안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익하고 견련한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우리들은 헬퍼 제공보다는 직업증진을, 가정을 보호하여 모두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교육적인 실행을 더욱 증진해야함을, 슬모없이 광대한 낭비의 정부 프로그램을 원치 않는다는 결정사항들에 함께 동의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시 정책 에서 우리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의견이 일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포괄적인 계획이 실천 되어지기 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또한 시행후 효과를 보게 될 때까지는 확실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 이라고 입을 모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할 수 있는 것은, 소기업체 사업들을 다시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들에게 적당히 보호제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 정책 수립의 견련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해야 할 도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이런 것 또한 쓸데 없는 독단적인 방식의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도시는 뒤과 달갈중 어느 것이 먼저나 하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한 그 어느 누구도 투자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그 사이에 끼어들어 조정하여 보조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폭동결과로 남겨진 손해에 대한 복구와 배상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현해야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며 좋다고 인식했던 점들이 바로 이런 폭동으로 인해서 빼앗긴 많은 소규모 사업주인들에게 새로운 도시정책으로 보아서 예정되어 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번 폭동사건에 한인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그룹이 정면에서 맞섰습니다. 한인들은 어느 미국인보다도 가장 많은 사업주로서 높은 통계를 갖고, 강한 가족제도 의식을 지니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성이 대단합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가장 이들에 대해 크게 놀라운 점은 --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 그들은 정부로부터 도움에서 벗어나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과 자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계속 꾸준하게, 우리 정부자체가 해결치 못한 점들을 그들 자신이 해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보여졌던, 총출조며 가게를 자신들이 지켜려던 가게주인들의 모습). 만약 우리가 적절한 보호와 재건설의 자금을 제공 한다면, 한인 커뮤니티는 다시 번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금을 사회에 다시 투자할 것이며, 더이상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미지로 부상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정책의 논의와 병행하여 이곳 도시의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주어진 손상을 다시 재건 할수있는 강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 경영과 연방정부 비상 관리기관을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취득하면 시행할수 있습니다. 피터 우버러러스의 "L.A.의 재건설" 팀속에 많은 한인들의 발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 도시는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반-폭동 정책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경찰기관을 구제와 해야하며 그리고 더이상의 경찰의 잔인행위가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혜택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동등하게 취급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를 기울리 허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 건설에 주춧돌을 잘못 쌓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하게 될것 입니다.

나는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의 모든 열성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씨애틀과 워싱턴주를 위해서 여러분도 애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슬레이드 고틀  
미 연방정부 상원의원

206 JACKSON FEDERAL BUILDING  
915 SECOND AVENUE  
SEATTLE, WA 98174  
(206) 553-0350

130 FEDERAL BUILDING  
500 WEST 12TH STREET  
VANCOUVER, WA 98660  
(206) 696-7838

697 U.S. COURT HOUSE  
W. 920 RIVERSIDE AVENUE  
SPOKANE, WA 99201  
(509) 353-2507

MORRIS BUILDING, ROOM 119  
23 SOUTH WENATCHEE AVENUE  
WENATCHEE, WA 98801  
(509) 663-2118





Office of the Mayor  
City of Seattle

Norman B. Rice, Mayor

July 1992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outh Angelo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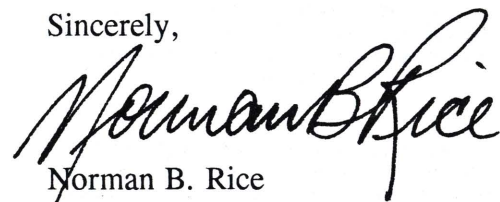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City of Seattle I am happy to extend my support and best wishes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s you publish your first Bulletin.

The City of Seattle is made up of a wonderful mosaic of different people whose ethnic origins are found all over the world. The Korean commun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our City. Your new Bulletin will help strengthen the already numerous ties between Seattle and Korea.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this first edition, and best of luck in your future endeavors.

Sincerely,

  
Norman B. Rice



# 한인회보 발간을 축하하며

민주평통협의회  
회장 이종찬

1902년 5월 하와이 사탕농장 경주동맹회(耕主同盟會)는 이에 종사할 노동자를 모집하고자 한국에 특파원을 보내왔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개국진취 운동을 부르짖던 때로 소 목적은 우리 민족을 해외에 보내어 신문화(新文化) 수입과 무역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문화 수입을 장려할 목적으로 1902년 8월 20일에 수민원(綏民院)을 설립하고 이민을 모집하여 하와이에 보냈다. 하와이 현지에 도착한 우리나라 이민자들은 고달픈 사탕수수 밭에서 끝없는 나날들을 피땀으로 일을 하였으나 1905년까지는 노동 착취의 시기로 어어졌다.

당시 50여 마을에 정착하게 된 우리 이민자들은 억울한 노동의 댓가를 착취당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와 생활소식을 우리 동포끼리 서로 알리기 위하여 매월 한권의 공책에 집필형식으로 회보를 발간 하였다고 하니 바로 이 책이 초보(草報)로서 우리 이민 역사상 최초의 한인회보라고 여겨지게 된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의 민족 비운의 역사속에서 망명적 이민 혹은 강제적 징용이민 그리고 개방과 가족적 이민 등으로 해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해외동포가 지금은 500만명이 넘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듯 현재 5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의 해외이주는 세계 이민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인 민족 대 이동으로서 본국 인구와의 비율로 볼 때 단연 세계 수위권을 차지 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민이 본격화 된 것은 불과 30여년으로서 우리 동포들이 이룩한 해외 거주지역에서의 정착 속도와 생활 수준 향상도 놀라운 기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늘의 500만을 넘어선 해외 우리 동포들은 크게는 조국 발전과 국위 선양을 위함은 물론 조국 분단에 따른 비극적인 현안 문제 해결과 7천만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모든 해외 동포들은 한겨레 한민족으로 민족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여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분산 거주하고 있는 해외 한인동포들은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며 교포사회의 대변기구로서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는 성원하여야 할 것이다.

씨애틀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회순	년도	성명	전화	역대 회장
1대	1968	고이창희 GLORIA KIM		19대 1986 박태호 GREGORY H. PAK 775-8923
2대	1969	이선복 SUN BOK LEE	524-4497 621-4405	20대 1987 윤광남 KWANGNAM YOON 745-6584
3대	1970	전계상 KE SANG CHUN	527-6123	21대 1988 최주찬 JOO CHAN CHAI 364-7301
4대	1971	이현기 HYUN KI LEE	775-8009	22대 1989 한원섭 WON S. HAN 546-3797
5대	1972			23대 1990 고장동식
6대	1973	한만섭 MAN SOP HAHN	641-5739	24대 1990 곽종세 JOHN KWAK 546-6164
7대	1974	구범희 ROBERT KOO	778-1267	25대 1991 한상국 SANG KOOK HAN 763-6954
8대	1975	신호범 PAUL H. SHIN	778-1972	
9대	1976	김성길 STEVE KIM	225-3006	역대 이사장 명단
10대	1977	김형진 JAMES KIM	서울소재	회순
11대	1978			1대
12대	1979	조성옥 SUNG OK CHO	823-0734	2대
13대	1980	정철식 SHUL S. CHUNG	244-8449	3대
14대	1981	강동언 DONG UN KANG	367-4687	4대
15대	1982	엄명보 MYUNG BO UHM	939-1171	5대
16대	1983	신호범 PAUL H. SHIN	778-1972	6대 1973 고이창희 GLORKA KIM
17대	1984	오계희 KEHI OH	546-9104	7대 1974 서두수 DOO SOO SUH
18대	1985	오준걸 JOHN OH	455-9571	8대 1975 전계상 KE SANG CHUN 527-6123
				9대 1976 이현기 HYUN KI LEE 775-8009
				10대 1977 신호범 PAUL H. SHIN 778-1972
				11대 1978 오준걸 JOHN OH
				12대 1979 김현중 HYUN J. KIM 774-7828

13대	1980	엄명보 MYUNG BO UHM	939-1171	20대	1987	고봉식 BONG SIK KOH	743-5753
14대	1981	김정부 JONG BOO KIM	335-5648	21대	1988	백응기 WONG KI PARK	483-9734 365-1500
15대	1982	서광선 KWANG S. SUH	941-5161	22대	1989	김형달	
16대	1983	이동립 DAN T. LEE	641-0707	23대	1990	곽종세	546-6164
17대	1984	엄도승 DO SUNG UHM	631-5863	24대	1991	이점태	338-3561 362-4449
18대	1985	한만섭 MAN SOP HAHN	641-5739	25대	1992	백인홍	932-0527 935-1000
19대	1986	최경수 KEN CHOI	774-3731				

제 26대 한인회 고문, 자문위원, 감사 명단

직위	성명	전화	자문위원	오계희	(R)546-9104
고문	한만섭 HAN, MAN SOP	(R)641-5739 (B)235-7346	자문위원	오계희 OH, KE HI	(R)546-9104
고문	김병섭	(R)365-9416	자문위원	박태호 PAK, GREGORY H.	(R)742-6999 (B)261-6629
자문위원	곽종세 KWAK, JOHN	(R)546-6164 (B)527-0330	자문위원	윤광남 YOON, KWANG NAM	(R)224-1642
자문위원	구범희 KOO, ROBERT	(R)778-1267 (B)546-5731	자문위원	최주찬 CHAI, JOO CHAN	(R)364-7301
자문위원	신호범 SHIN, PAUL H.	(R)778-1972 (B)546-4736	자문위원	한원섭 HAN, WON S.	(R)546-3797 (B)467-6600
자문위원	조성옥 CHO, SUNG OK	(R)823-0734 (B)767-3449	감사	박성수 PARK, SUNG SOO	(R)775-1245 (B)363-5730
			감사	박광영 PARK, KWANG Y.	(R)639-1428 (B)839-1040





제 26대 한인회 자문이사 명단

직 위	성 명	전 화	자문이사	이 동 립	(R)277-4106 (B)228-3450
자문이사	고 봉 식 KOH, BONG SIK	(R)868-3226 (B)868-8557	자문이사	이 종 찬 LEE, CHONG C.	(R)838-9399 (B)848-5095
자문이사	김 정 부 KIM, JUNG BOO	(R)355-5648	자문이사	장 수 강 CHANG, SOO KANG	(R)589-0906 (B)922-1006
자문이사	김 현 길 KIM, HARRY H.	(R)524-7776	자문이사	최 경 수 CHAI, KYUNG SOO	(R)774-4761 (B)447-6090
자문이사	엄 도 승 UHM, DO SUNG	(R)631-5863 (B)859-8371	자문이사	마 타 최 MARTHA CHOE	(B)684-8802

제 26대 한인회 이사 명단

직 위	성 명	전 화	이 사	윤 흥 남	(R)488-7453 (B)562-0520
이사장	박 영 민 PARK, YOUNG MIN	(R)941-2398 (B)878-2353	이 사	이 광 술 LEE, KENNY S.	(R)874-6121 (B)946-3911
부이사장	김 동 호 KIM, DON H.	(R)994-2078 (B)633-6144	이 사	이 규 만 YI, KYU MAN	(B)340-1767
총무이사	강 희 열 KANG, HEE YEOL	(R)241-8573 (B)839-5929	이 사	이 덕 기 YI, KYU MAN	(R)763-9737
이 사	강 석 동 KANG, SUK DONG	(R)364-2519 (B)624-2358	이 사	이 상 수 LEE, SANG S.	(R)391-4187 (B)391-3643
이 사	김 광 석 KIM, KWANG SUK	(R)630-8952 (B)939-0662	이 사	이 세 인 (R)235-9723 (B)747-0500	
이 사	김 인 배 (R)746-1393 (B)485-1814		이 사	이 용 일 (B)742-0634	
이 사	김 충 휘 KIM, JAMES	(R)487-9328 (B)747-6672	이 사	이 우 성 (R)839-1283 (B)838-9652	
이 사	백 인 홍 PAIK, IN HONG	(R)932-0527 (B)935-1000	이 사	이 웅 호 LEE, WOONG HO	(R)771-5728 (B)745-2095
이 사	송 태 호 SONG, TAE HO	(R)762-5620	이 사	이 한 범 LEE, HAN BOM	(R)644-1089 (B)762-4380
이 사	신 광 수 (R)851-2154 (B)854-5434		이 사	전 영 생 CHON, YONG S.	(B)927-0496
이 사	심 상 준 SHIM, SANG JUN	(R)743-3543 (B)745-3010	이 사	정 운 보 (R)488-3905 (B)483-6640	

이 사	정 운 제 CHUNG, WOON J.	(R)742-2090 (B)775-4066	이 사	한 상 국 HAN, SANG KOOK	(R)763-6954
이 사	정 정 이 CHUNG, MICHAEL	(B)455-3688	이 사	허 남 일 HO, NAM IL	(R)789-2655 (B)525-5778
이 사	지 재 혁 CHI, CHAE H.	(R)927-5726 (B)941-8428	이 사	김 재 영 (R)431-0560 (B)872-6553	

제 26대 한인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전 화	총년학생	김 익 태	(R)634-2710 (B)531-2719
회장	이 광 술 LEE, KENNY S.	(R)874-6121 (B)946-3911	홍 보	권 소 영 KWON, SO YOUNG	(R)634-2032
수석 부회장	김 광 석 KIM, KWANG SUK	(R)630-8952 (B)939-0662	섭 외	백 인 홍 PAIK, IN HONG	(R)932-0527 (B)935-1000
부회장	윤 흥 남 YOON, HEUNG NAM	(R)488-7453	부 녀	최 지 연 CHEH, JI YEON	(R)743-7570 (B)745-8654
사무총장	이 종 식 YI, CHONG SIK	(R)838-8567 (B)833-1180	편 집	박 은 남 PAK, JAMES	(R)946-1274 (B)941-8329
총 무	엄 병 택 UM, BYUNG TAEK	(R)952-4699 (B)735-3349	봉 사	김 성 해 KIM, THOMAS	(R)243-2994 (B)523-3334
기 획	서 이 석 SUH, EDWARD Y.	(R)838-5444 (B)448-0808	경 로	이 지 선 LEE, JI SUN	(R)361-8689 (B)542-4266
재 무	신 권 수 SHIN, KWON SOO	(R)874-9060 (B)946-6722	법 률	변 SARAH PYON, SARAH	(R)946-3216 (B)941-4676
문 화	강 승 규 KANG, SEUNG KYU	(R)672-9402	사회복지	오 기 주 OH, KI JOO	(R)488-3837 (B)720-5340
체 육	차 상 혁 CHA, SANG HYUK	(R)874-5984 (B)529-1120			
교 육	김 석 민 KIM, SUK MIN	(R)365-5672 (B)281-6010			





한글 학교

직 위 성 명 전 화  
교 장 오 계 희 (R)546-9104

한인회관 운영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전 화	간 사	성 명	전 화
위원장	박 태 호 PAK, GREGORY	(R)742-6999 (B)261-6629	간 사	이 석 주 LEE, SUK JOO	(R)874-9479 (B)624-2727
부위원장	이 동 립 LEE, DAN T.	(R)277-4106 (B)228-3450	명예회장	최 주 찬 CHAI, JOO CHAN	(R)364-7301 (B)281-7232
부위원장	김 인 국 KIM, IN KUK	(R)883-9372 (B)883-5564	위 원	곽 종 세 KWAK, JOHN	(R)546-6164 (B)527-0330
총무간사	민 학 수 MIN, HAK SOO	(R)782-0990 (B)282-4589	위 원	박 영 민 PARK, YOUNG MIN	(R)941-2398 (B)878-2353
관리간사	윤 상 인 YUN, SANG IN	(R)941-1866 (B)763-4989	위 원	백 웅 기 PAIK, WOONG KI	(R)483-9734 (B)362-3000
재무간사	김 정 부 KIM, JUNG BOO	(R)767-4235 (B)767-3906	위 원	신 호 범 SHIN, HO BOM	(R)778-1972 (B)546-4736
섭외간사	강 석 동 KANG, SUK D.	(R)364-2519 (B)624-2358	위 원	이 광 술 LEE, KENNY S.	(R)874-6121 (B)946-3911
기획간사	김 동 호 KIM, DON H.	(R)455-2421 (B)994-2078			

한인회관 운영에 관한 인사

천애하는 교민여러분 지난 1988년 12월 12일 우리 교민의 숙원이었던 한인회관을 구입 입주한지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 회관 운영 및 PAYMENT를 잘해나가고 있음을 교민 여러분께 보고하오며 또 그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교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PAYMENT를 순조로히 잘해가면 1996년 4월이면 은행돈을 전액 지불하고 아래층도 우리가 회의실로 사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오나 1988년 회관 구입시 건축기금 신립 약정을 하시고 아직 미납이거나 전액 협조 못하신 교민들께 그동안 수차 협조해 주시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23일 회관 운영위원 및 한인회 회장, 이사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 이사장이 참석한가운데 오는 1992년 9월 30일까지 지불해 주도록 신문지상(한국일보, 중앙일보)에 광고한바 있습니다.  
그후 몇몇 교민께서 협조해 주셨으나 약정을 하신 많은 교민께서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1988년도 한인회장인 최주찬 회장께서는 회관기금 약정서를 본인들로 하여금 서명을 받아 현재 한인회관 운영위원회에 명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전후 다시 약정금을 미납하신 교민들께 통보하겠음니다만 미납액이 확실치 않거나 상의를 원하는 교민께서는 아래 운영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윤 상 인 관리간사 763-4989  
김 정 부 재무간사 767-3906  
민 학 수 총무간사 782-0990  
강 석 동 섭외간사 624-2358

한인회와 회관 운영위원회에 항상 협조해주시는 교민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1992년 8월 20일

회관 운영위원장 박 태 호

전직 회장님들의 한 말씀

제 3 대 한인회장

년도 : 1969 년  
성명 : 전 계 상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1970년 6월중에 제가 회장으로 있었을때 처음으로 씨애틀 한인회와 밴쿠버 한인회 사이에 있던 합동경기대회가 그림계 생각납니다. 이 첫 경기대회는 씨애틀에서 있었는데 배구 (A.B 팀), 축구, 여자 텃치볼, 어린이 게임, 줄다리 기(남,여)등 하루종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낸 것이 기억납니다. 각 경기에 점수를 정하고 끝에 종합점수로 이긴쪽을 정하기로 했는데 어느쪽에서 이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수백명이 밴쿠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큰 교통 소동이 있었지만 초면인 사이에서도 모두가 흐뭇한 시간을 가졌었다고 생각합니다.

25주년 축하 메세지 :  
1948년에 제가 씨애틀에 처음 왔을때 10여명 밖에 안되던 한인들이 이제 수만이 되고 이제 는 교포들이 각계에서 활약을 하며 한인회도 크게 발전한 것을 보면 감개가 깊습니다. 이민 역사가 길어 갈수록 교포들이 미국에서 사는 데 대한 인생관, 방법, 포부들은 더 여러가지로 나누어 질 것이며 이 자유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자연적인 결과리라 봅니다. 한인회가 한인교포 전부를 대표하는 회로서 존재 하려면 이같은 여러 그룹에 만족을 줄수있는 회로서 활약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업은 쉬운 과업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인회 간부들은 이점을 고려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그룹에 다 만족을 줄수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 하 시기를 바랍니다.

제 6대 한인회장

년도 : 1973 년  
성명 : 한 만 섭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인회 회칙의 기본이 재

임시 제정되었다. 1973년 3월 31일 "회칙개정 연구위원회" 의 첫 모임이 있었는데 위원에는 김덕황박사, 김현길박사, 송충내회원, 한만섭 박사 등 4명이었다. 1973년 10월 5일 임시총회 에서 최종안이 채택될 때까지 회칙개정위원회 는 여러차례 모여 수회의 회칙개정안을 심의하 여 최종안을 총회에 내놓았다.

25주년 축하 메세지 :  
지난 25년간 우리 씨애틀 한인회는 대체로 "태 평성대"를 이루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지나온 전통을 이어받아 한인회는 이곳 교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며 발전해 나가야 겠다.

제 7 대 한인회장

년도 : 1974 년  
성명 : 구 범 회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1. 타코마 한인회를 흡수 명실공히 워싱턴주 한인회로 만들었음.  
2. 한인회보 매월 발간 (교포신문이 없을때)  
3. 한인회 사무소 (처음)개소

25주년 축하 메세지 :  
한인회가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제 9 대 한인회장

년도 : 1976 년  
성명 : 김 성 길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총 영사관을 씨애틀에 유치키 위한 사업이 실현 되던 일과, 모국 대통령께 건의하여 유공자 가 표창되던일.

25주년 축하 메세지 :  
축, 성년기  
격려와 협동으로 단합하는 밝은 한인사회



제 14 대 한인회장

년도 : 1980 년  
성명 : 정 철 식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1980년 3.1절 기념식을 SEATTLE DOWN TOWN 미국 극장을 빌려서 총영사관 장윤길 총영사님의 협조로 한국영화 방영과 기념 행사를 교민 350명 참석. 그당시 교민 수에 비해 성황을 이루었고 연말 차기 회장 출마자 경선에 1,000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한인회 활성을 보인결과 흑자 결산으로 1981년도 이월한것이 기억에 남는다.

25주년 축하 메세지:  
한인회 창설 2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그동안 선후배 회장들의 노고와 전 교민의 참여 해온 덕분에 오늘날 우리의 숙원인 자랑스러운 한인회관을 갖게되었고 앞으로 한인회 기능 활성을 위해 온 교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더욱 발전되는 한인을 위한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제 15 대 한인회장

년도 : 1981년  
성명 : 강 동 언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1. 전년(80년)의 12.12사태와 연결된제 5공화국(전두환 전대통령)발족에 따른 격동기에 처한 당시 상황속의 교민 사회와 본 한인회 내부 운영에 관한일.  
2. TRY CITY 지방에 낚시 갔다가 그곳 교민의 뜻있는 분들(특히 초대회장 윤종필씨)과 상면하고 그후 당시 교민 담당 영사 박부현씨와 한국일보 신문사 조병우 사장의 협조로써 동부 워싱턴 한인회를 발족하게 한일.

25주년 축하 메세지 :  
어려운 주변환경속에서도 날로 발전하고 특히 2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교육지도를 일관하고 있는 현 교민회 회장과 임원, 이사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장에 이주 또는 이민은 많은 교민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더더욱 분발하시고 빛나는 교민회가 될것을 자랑하면서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제 17 대 한인회장

년도 : 1984 년  
성명 : 오 계 희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1. 1984년 회기 중에 편집으로 수고한 박승휘 부장의 노력으로 회보를 12회 발간 하였는데 (매달 1회) 원고모집, 인쇄와 제본, 그리고 수송시에 전 임원과 그외 친구들 및 가족이 모여 어느때는 밤 늦게까지 일하던 기억.  
2. 그때 년례의 일로 주지사를 만나러 올림피아 갔을때 태극기를 올리고 우리를 주빈으로 맞아 주던일.  
3. 그 회기에 처음으로 주소록 작성에 손을 대었는데 한 가정이라도 빠지지 않으려고 임원과 학생이 전화를 계속 걸면서 노력하던 기억.

25주년 축하 메세지 :  
처음으로 이사회와 임원진이 완전히 구성되어 두 조직이 서로 협조하여 한인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고 우리 한인회의 일보 발전을 이룬 면이라고 보겠다. 또 모든 단체를 도와주고 한인회의 각 기관이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협조한것은 긍정적인 면이며 부설기관인 한인학교의 운영을 도운것은 획기적인 면이었다. 25주년 기념지를 발간하여 한인회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노력한것은 의의있는 일로서 남은 기간도 계속 긍정적인 사업에 힘쓰기 기원하겠습니다.

제 19대 한인회장

년도 : 1986 년  
성명 : 박 태 호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1986년 1월 1일 기독교 연합회, 총영사관 및 한인회가 합동 조찬기도회 및 신년 하례식을 시발로 3.1절 기념식, 3월 26일 전직 한인회장 및 이사장 초청간담회, 4월 18일 전두환 대통령방문환영식, 8.15 한국의 밤 행사 (SEA-TAC RED LION INN), 8월 4일 SEAFAIR PARADE 및 11월 15일 총회와 12월 12일 아리랑의 밤과 7월 24일 밴쿠버-SEATTLE 합동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치루었다. 특히 가장 어렵고 또 보람있던 일은 당시 부회장님 윤광남, 최주찬 두 부회장경합 11월 총회에서 투표결과에 승복 87전 윤광남, 88년 최주찬 두 회장이 한인회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우리 회관을 마련함에 선임자로 후배 회장에게 감사하고 협조해준 교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인회는 어느 지역 한인회보다 모범적이고 가장 많이 성장한 한인회임을 자부합니다.

25주년 축하 메세지 :  
폐기와 열의에 찬 92년도 이광술 회장단과 박영민 이사장단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축하하며 한인회 발전에 협조와 자문을 적극 도울것을 약속합니다.

제 22 대 한인회장

년도 : 1989 년  
성명 : 한 원 섭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HEALING THE CHILDREN 행사를 통하여 이 지역 의료진들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불치병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는 기관에 자선기금을 모금하여 전해준 행사를 치름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시혜자의 입장으로 (800여명 참가) 전환한 기반을 만들어 봤던 일이 기억에 남읍니다.

25주년 축하 메세지 :  
한인회 창립 4반세기를 맞이하여 25주년 기념 회보를 발간하게 됨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제 24 대 한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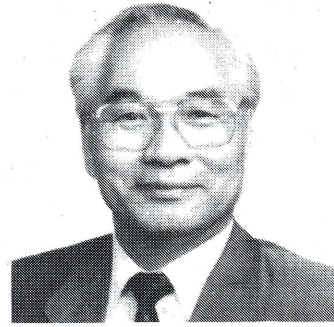
년도 : 1990 년  
성명 : 곽 종 세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먼저 한인회를 위해 헌신했던 제 23대 회장인 장동식 명예회장의 명복을 빌어본다. 대망의 90년대를 맞이하여 기대속에 출범했던 장동식 회장이 과로와 후유증으로 신병차 귀국후 두 부회장의 사임에 따른 한인회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 24대 회장직을 맡게된 일이다. 부회장 및 임원들이 각 행사를 한명씩 책임맡고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으며 이점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여러분들의 협조로 무난히 임기를 마칠수 있었음을 언제나 고마움을 느낀다. 기억나는 일 중 첫째는 성년이 된 교포사회의 좌표와 미래상을 위해 <미국에서의 생활과 아이덴티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공개토론회를 가진 것이다. 둘째는 우리 민족의 교육, 경로사상을 고취키 위해 800 여명의 워싱턴주 각 도시 노인들을 모시고 추석 경로, 효도잔치를 갖고 ACRS 노인 복지 관계 기관 책임자들을 초대하여 한인 노인 프로그램에 적극도와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셋째는 교민들의 단합과 몇년동안 잊혀졌던 이 지방의 명물이었던 「아리랑의 밤」을 마련하여 650 명이 참가한 즐거운 사교의 밤을 가진 것이다.

25주년 축하 메세지 :  
25주년을 맞이하는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감싸는 곳에 한인사회의 화합이 담길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연구하며 뜻을 모으는 곳에 한인회의 희망이 새겨질 것입니다.



## 교민께 드리는 글



친애하는 워싱턴주 교민 여러분께 :

미국생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교민 여러분을 항상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40여년간 미국에 살아 오면서 수수 민족으로서 미국사회에 정착하기가 쉬운일이 아닌 것을 먼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온 중국, 일본의 예를 보고 오래동안 느껴 왔습니다.

이제 10만을 바라보는 서북비 지역 교포 사회에도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 할수 있는 참정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느끼면서 오는 11월에 있을 워싱턴주 주의회 제 21선거구에서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것을 너그러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한인회의 도움으로 범 교포적인 후원의 모임까지 마련하여 공사로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본인에게 용기와 격려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새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워싱턴주 의회에 참여하게 되면 우선 제가 입후보한 제 21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워싱턴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특히 교육문제, 국제 무역관계 등을 중심으로 현안의 문제들에 노력할 것입니다.

한인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지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와 회관건립 문제, 2중 언어와 문화 교육문제, 공무원 채용과 직장 문제 등이 저희들의 주 관심사로 알고 다른 문제와 더불어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저 혼자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주 교민 7만의 힘을 모아 이번 선거에 이김으로서 가질수 있는 것이기에 교민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성원을 이 한인회보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 호 범 배 상



## 집단의식의 필요성

김현길 박사 (한인회 이사)

한인 교포사회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최근에 들어 가장 번창하였다. 공동체의식으로 권익을 옹호할 필요가 생겼다. 한인교포들의 개인행동은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집단의식이 희박한 한인교포들은 4.29 인종폭동의 피해자들이 되고 말았다. 뉴욕이나 L.A.의 교포들의 손실은 만주, 일본, 시베리아에서 당한 역사적 교훈의 되풀이가 된다. 개인적 특수성은 상대적인 이유로 노골화 되었고, 분노의 폭발은 결국 피해대상(Target)으로 돌변했다.

해외교포 5백만중에 재미 한인교포는 1백여만명에 달한다. 영국수상 처칠은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호소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고 하였다. 새 이민역사는 숙명적인 공동체의식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한인교포의 살길은 뭉치는 힘에 달렸다.

전통문화: 한인사회는 집단보다 개인이 우선적이다. 공동체 보다는 각 개체가 선행되어 왔다. 한국의 유명한 오페라는 판소리이다. 시종일관 독창이다. 배역은 수십명이라도 한 사람이 목청만을 바꾸어 모든 대역을 해 낸다. 무대도 굿하는 사람과 굿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다.

서구의 오페라는 배역 전원의 연기가 다르고, 또 합창까지 곁들인 집단성이 많다. 서구의 교회음악은 합창인데 비하여 사찰음악은 범패류의 독창이다. 교회음악(찬양)은 성직자와 예배참석자들이 다 함께 부르지만, 사찰에서는 사제가 혼자서 부른다.

한국 전통무용은 춤을 너울너울 혼자서 춘다. 유럽의 무도회서는 둘이 추다가 십여명이 함께 추고 나중에는 전원이 질서 있게 춤을 함께 춘다.

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 부터 폭크댄스는 모든 농부가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민요를 부르고 참가자 전원이 함께 춤을 춘다.

역사교훈: 한인들의 의식구조에는 개체논리가 지배적이다. 세종조에 만들어진 한글은 과학, 경제, 정치, 문화발전의 소산이다. 세종대왕 시대는 집현전 학자들의 집요한 연구와 여자들의 의식 수준의 발달등은 무시된 채 한글창제의 공적은 세종대왕의 개인적 공헌으로 인식된다. 실 사회발전이나 집단적 노력은 무시된 것이다.

중종조에 조광조등의 헌신적인 개혁 선비들을 사회의 중죄로 다스리면서도 집단공동체적인 발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것은 오로지 이순신 장군이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이 완용을 대표로 단순화 시켰다. 역사적 위업과 죄과를 규정 짓는 핵심적 인물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복합적인 원인과 총체적인 상황은 무시할수 없다. 역사는 전부를 교훈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의식: 한국적 역사의식은 한인 스포츠에서도 엿볼수 있다. 역대 올림픽서 메달권에 든 종목은 비집단적 개인운동들이 였으니 마라톤, 레스링, 권투, 역도, 탁구 등이다. 단체활동에 미숙한 의식구조는 전통적으로도 씨름, 승마, 궁도, 투호 등의 혼자서 뛰는 운동들이 보편화 되었다.

집단적인 한국 여자배구도 승패를 말할 때는 "누구때문에...." 라고 결론을 짓는다. 다른 팀 멤버들은 완전히 도외시 되고, 개체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흥미로운 일은 축구, 야구, 농구에서도 누가 슈팅을 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전반적인 웨어 플레이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피를 희사해 주기 바라고 있다.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노대통령이 헌혈하는 장면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 주어야 했다. 필자는 여기서 사는 30여년 동안, 국가원수가 헌혈하는 보도를 읽은적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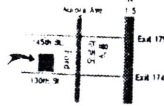


다. 혈액은행은 매일 문을 열고있는, 서구식 공동체 의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의식개혁:** 집단의식에서 공공의식이 무르익고, 공익의식이 생기는 법이다. 집단적 공동 운명체에서 권익옹호도 가능하다. 교포 사회에서 공익의식이 싹튼다는 것이 사막의 장미와도 같지 않을까.

멋진 삶의 보람은 교포단체의 근면, 성실, 봉사로 그 실세가 드높여진다. 참 삶의 보람은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의식의 구현에 있다. 혼자만 잘 산다는 꿈은 파멸을 초래한다. 안창호 선생의 "몽치면 살리라!"를,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후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개인은 영원할수 없다. 단결은 창조주의 섭리이시기에 말이다.

## “새롭고 정선된 메뉴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식·중식	
생선매운탕	짜장면
곰탕·설농탕	짬뽕
평양냉면	중식일체
한식일체	

분위기 타는  
남성이 모이는곳.  
분위기 타는  
여성이 모이는곳.  
특주: 동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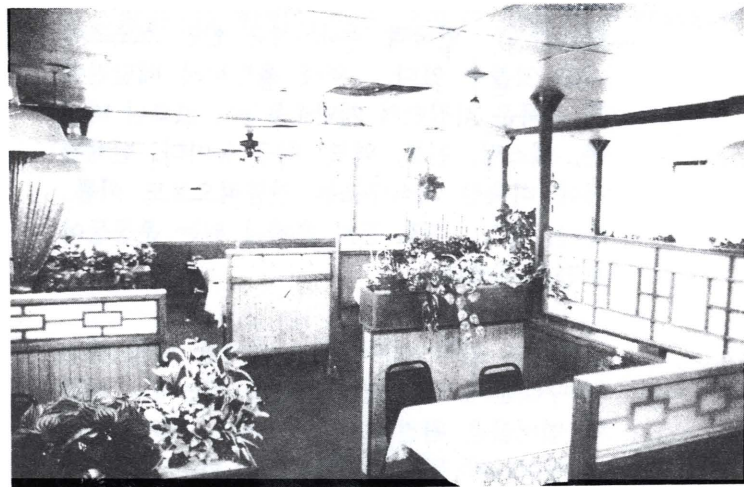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 환영  
레스토랑·나이트클럽

# 희래등

HE RAE DEUNG

## 364-1891

930 N. 130th Seattle, WA 98133



Mi Rak Korean Restaurant

# 미 락

## 한 식 전 문

■낙지국수 ■즉석전골

■알탕찌게 ■아 구 찜

●특미●  
돌솥비빔밥

전화 : (206) 839-6522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DANA PLAZA)

## 박스냉동

Park's Appliance

- 각종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 세탁기
- 드라이어
- 레인지
- 모터
- 워터히터등

(206) 941-5689

## 유비무환

이지선 (한인회 경노부장)

미국 영화 "뿌리"를 보고 참으로 느낀 바가 컸었는데 이번 L.A. 및 시카고 사건을 보고 더욱 느낀 바가 크다. 이민생활 4반세기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사양하고 새벽 4시부터 몸부림쳐 모은 돈을 눈깜짝할 사이에 강탈 당하고 상품 건물등이 모두 삼시간에 불태워져 알몸거지가 됐다는 어느 부부의 애절한 사연은 남의 일 같지만 않았다.

어버이날(5월 8일) 호행자 표창차 한국을 다녀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만난 그 부부는 계속 목메인 소리로 말을 잇는다. 한국 친지에게 구걸하러 갔다가 흑페려던 것이 불치고 오는 길이 라며 소리를 더 높인다. 벤즈, 캐딜락 타고 쩡쩡거리며 산다고 자랑할 때 굶주렸던 우리에게 돈 한푼 보태 주었느냐며 박대하는 바람에 아무말도 못하고 돌아 섰다는 것이다. 씨애틀 친지들은 좀 다르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가는 길이라며 눈물방울을 떨군다. 주머니 사정이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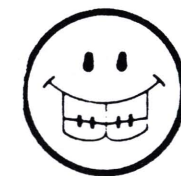
약소국가, 소수민족은 이렇게 당해야 되는건지. 새삼 느낌이 간다. 미.일간 무역마찰로 일제 차량을 곳곳에서 불태운 일은 있지만 L.A. 폭동처럼 깡그리 불지르지는 않았었다. 한국 국력이 좀더 강했더라면, 100만 미국 교민이 단결만 했더라면 그런 참사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그러나 우리는 절대 실망해서는 아니 된다. 이유는 우리 민족은 우수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이 강함을 알고있다. 짧은 이민사 속에 미국사회 곳곳에 뛰어 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 민족의 인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우리 미국 교민 100만이 단결만 한다면 무슨 일든 해 낼수 있다. 비극이던 어떤 참사던 간에 견디고 해결해 낼수 있다. 샌프

랜시스코 금문교는 실오라기 철사 약 3만 여개를 하나로 묶어 공중대교를 건설했다. 하나의 실오라기는 끊기가 쉽지만 수십개가 뭉쳐지면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헤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입국일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우리는 조속히 힘을 모아 단결해야 하고 거기에서 유비무환을 실천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닥치기 전에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전쟁, 지진, 질병, 기아, 홍수, 화재등의 재난이 없을 때 재난을 대비한 구제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자선단체 기독교 봉사회는 평상시에 구호금품을 수집 했다가 긴급재난시에 대처 한다. 특히 지난 6.25 한국 동란때 전쟁으로 인해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한국인들을 지원 했다. 식량, 헌옷, 금품등으로 굶주린 이재민을 구호했고 폐허된 공공건물을 재건해 주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으로 성장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G.N.P. 6천불이라는 세계 중진국이 되었다. 기적이 이루어 진것 만은 사실이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는 신세진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 십시일반 조그만 뜻으로 협동하여 유비무환의 최선을 다 합시다. 교민 여러분! 어느누구 어느 가정 할것없이 헨가구, 헌옷 또는 구호성금으로 미리 미리 비축하여 유비무환 대책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일반치과  
보철, 미용치과, 신경치료, 구강외과, 잇몸치료.
- 교정치과  
소아교정, 성인교정.

# 조병규치과

☎ 367-5570 (0)

215 N 125th St. Seattle WA 98133



## 워싱턴주 경제 전망

### 손창욱

자본주의 의 경제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불가피하게 발생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경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홉번째 경기 불황을 1990년 중반부터 맞은 후 1991년 대부분을 경기 침체로 보내고 금년 초부터는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토가 넓고 경제가 다변화 된 미국은 불황의 정도나 그 여파 또한 지역과 산업에 따라 각색이여서 보편화나 일반적인 처방전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예를들면 1970년대 초에 겪은 워싱턴주의 불황은 미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였는데 그이유는 워싱턴주의 기간산업인 항공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고 여타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 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내었다. 그반면 1974-1975년에 경험했던 경기 불황에서는 서북미 경제는 거의 그 흔적도 찾기가 힘들만큼 경미했었는데 반하여 미국전반의 경제는 상당히 심한 불황에 허덕였었다. 1980년대 초에 도래한 경제불황 제7호와

제8호는 워싱턴주를 포함한 서북미 경제를 더욱 심하게 강타하여 다시한번 태풍이 휩쓸고 간 뒤를 연상시켜 주었다.

워싱턴주가 경험했던 1990년대 초의 경기불황은 미국 경제 전반의 경험과 비교해서 어떤 정도이었고, 과거에 워싱턴주 경제가 입었던 피해에 비하여는 어떤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자. 워싱턴주 경제에 관한 한 경제 불황 제9호는 1980년대 후반기의 지나치리 만큼 달아오른 과열 경제가 쉬고 식히는 정도 였다고 보면 옳다. 미국 경제 전반은 워싱턴주 경제 (서북미 경제)보다는 심한 불황을 당하였고 선거철인 지금 이에 관한 정치 논쟁이 한참이지만 미국 경제 역시 과거의 불황 경험, 특히 1980년대 초반의 불황에 비할 때 최근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온화했던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의 회복기 동안 경제 성장 실적은 과거 불황 이후의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할 때 그 반 만큼도 못 미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성급한 국민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회복기 성장속도가 첫해에는 실질 성장 6퍼센트에 달하였지만 최

근의 회복 속도는 2퍼센트 내지 3퍼센트에 불과하여 실업자들의 재고용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워싱턴주 경제는 1990년과 1991년동안 불황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경험한 까닭으로 경기회복 역시 완만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경미한 불황의 근본 요인은 과거 불황이 거의 예외없이 보잉회사 생산활동의 축소를 수반하였는 데에 반해서 최근에 경험하였던 경기 침체 기간중에는 보잉회사의 고용수준이 놀랄만큼 안정 수준을 유지하여 워싱턴주 경제 전반의 하락 과정에 쐬기를 박고 미국경제 전반에 들이닥친 불경기 영향으로부터 주 경제를 보호해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덕분이였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자못 심했던 불경기를 완충지대에서 비교적 적은 고통을 치르고 벗어날수 있었던 워싱턴주 경제가 왜 빠른 속도의 회복은 바랄수 없는 것인가? 첫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황이 심화하면 할수록 그 뒤에 따르는 회복속도가 빨라진다. 불황으로 인한 경기 하락이 비교적 덜 심했던 최근 경기

상황은 완만한 경기 회복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둘째는 보잉회사에서 금년도 6,000명 정도 고용수준 감소 (감원 절대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것임)가 예상되고 향후 2년동안에도 고용원 감축 정책을 계속 수행하여 나갈것으로 전망되어 워싱턴주 전반에 비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타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1980년대 후반과는 판이하게 다른 역할을 떠 맡게 된다. 셋째, 타주로부터의 유입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기는 하지만 1980년대 후반기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절반 이상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입인구 증가율 감소는 주택부문을 위시하여 서비스업 부문등의 성장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향후 2년동안 워싱턴주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을 둔화가 예견되고, 특히 한인교포들이 집중하여 살고있는 씨애틀 중심의 도심지역 경제는 항공업 부문의 침체 현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더빠른 성장 속도를 기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씨애틀의 유일한  
즉석불고기



JAPANESE AND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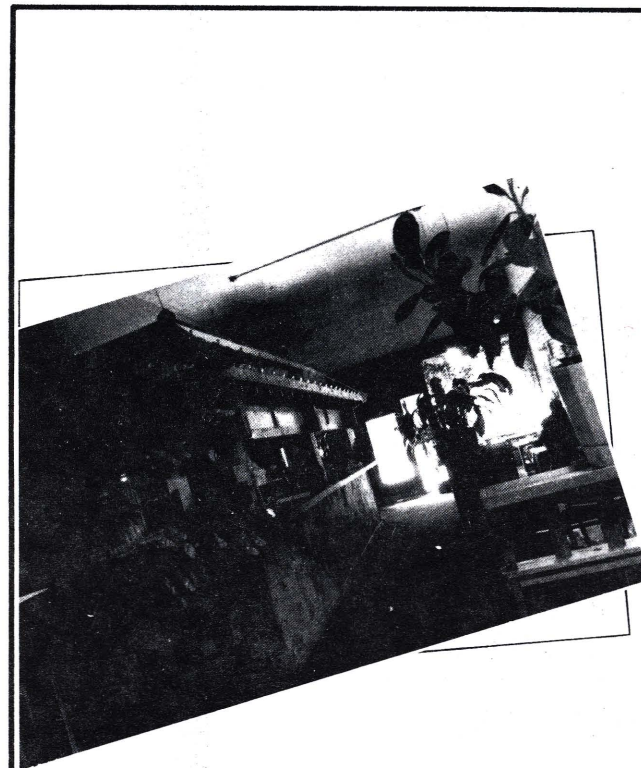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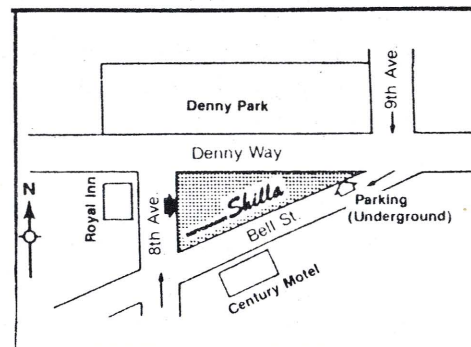
Lunch Mon.-Fri.; Dinner daily  
Present your hotel/motel key to receive  
10% discount off any dinner entrees

### Hours:

7 days per week  
11:00 A.M. - 10:30 P.M.



Japanese & Korean Cuisine  
(206) 623-9996  
(206) 223-9289  
2300 8th Avenue, Seattle



돌즉석구이  
런치스페셜 \$8.95

돌즉석구이  
곱창구이  
등심  
돼지주물럭  
불갈비  
삼겹살

한국 토속음식점

## 초원의집

순대 해장국 해물파전  
홍콩갈비 꼬리곰탕  
돼지보쌈 이구찜  
돌솥비빔밥

340-1767

610 2nd Ave. Seattle







# 오복집 OBOK RESTAURANT

전화 : (206) 582-6713

8602 So. Tacoma Way Suite #E  
Tacoma WA 98499 (로알프라자내)

“한국 전통의 고유한 맛으로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즉석구이전문

- 오복정식
- 해장국
- 한식일체
- 순대전문

## 그리스도의 평화성당

성전축성 미사 강론

토마스 머피 대주교 (씨애틀 대교구장)

오늘 아침 여기서 한인 캐톨릭 공동체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교육,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이 새 성전의 봉헌을 축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낌 없는 헌납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 드리는 미사성제를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한 이 새 성전을 축성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평화는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들 자신들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고투(苦鬪)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둘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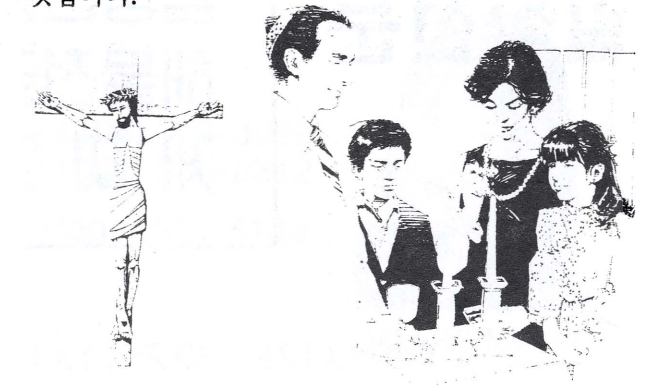
우리가 이 새 성전의 봉헌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축하하는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우리들에게 사랑을 율법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느님은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정이 많으신 형제, 그리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영(靈)이시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들어내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어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

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지켜 보시며,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罪)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희망과 치유와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힘과 권능으로 이 세상의 얼굴을 새롭게 하실 성령의 은총 속에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들에게 계속 남아 있을 것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사랑속에 용해된 관계, 그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 만방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처난 영(靈)을 치유하는 일이며, 인간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제 생활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참 사랑과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새 성전을 축성하면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삼위일체의 사랑, 즉 삼위일체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보여줄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 생음악과 가라오게

**(206) 625-0356**

106 Occidental Ave. S.  
Seattle, WA 98104 (Pioneer Square)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휴식처  
**백천나이트클럽**

**한식  
일식전문**

백천정식	아 구 찜	장어구이
곰창전골	손칼국수	도시락
해물전골	스 시	생선구이
게 찌 게	사 시 미	회 보쌈

• 영업시간 : 오전11시-새벽 2시(7Days Open)

## 한국사람

김 종국 신부  
(씨애틀 "그리스도의 평화" 성당)

지난 4.29 L.A. 폭동때 회합차 그곳에 갔었다. 시내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이 올라와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다. 불타는 상점을 바라보며 주인은 대성 통곡을 하는데 흑인, 백인, 황인등 많은 이들이 닥치는대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광경, 그것도 남몰래가 아니라 경찰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좋은 것으로 골라 차에 싣는것을 보면서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90년 9월에 사목으로 오면서 한인들이 미국에서 잘살고 있으니 생활에 여유가 있겠지 생각했으나 그것은 나의 추측이지 얼마나 우리 교포들이 밤낮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적어도 한국에서 날고 뛰는 사람들이야 미국 이민을 올수 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가문이나 지위 명예를 생각지 않고 아무일이나 하는것을 보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부지런함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남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가져왔구나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근면함을 새삼 느꼈다.

낮설고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이민 사회에서 갖은 수모와 어려움을 통해 수년간 쌓은 공든탑이 하루밤에 잣더미로 변하는 불길을 보면서 그 누가 통곡치 않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겠는가? 나도 당장 달려가 불을 끄고 가게를 지켜주고 싶던 차에 용기있는 젊은이들이 한인들 업체를 무장하고 보호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나왔다. 가슴이 뭉클하고 콧등이 시큰했다. 주위가 불타오르고 폭도들이 여기 저기서 총을 쏘는 데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 봉사하는 모습은 한국사람 밖에는 찾아볼수 없었다.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걱정들의 내용이 비슷하다. 미국 안에서의 문화, 풍속, 언어와 자녀교육 문제, 경제등... 참으로 보통일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이듯이 우리들은 필연코 자랑스러운 문화와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다. 지금의 이 아픔은 산고와도 같다. 이민 역사는 짧지만 그간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는가? 특히 씨애틀 지역은 한국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안정되고 평화스럽고 생활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아서 좋다. 또한 한인회를 비롯해 각 단체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흐뭇하다. 이런 좋은 풍토에서는 무엇이든지 자랄수 있다. 유능한 학자, 정치인, 예술인, 기업체등 각계 각층에 필요한 인재들이 배출 될수있다.

친애하는 한인들이여, 우리 서로 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자기일에 충실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인, 독일인, 이태리인, 유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한국인이 될것이다. 감사합니다.

1992. 6.11

### 주택용자

## ALPINE

MORTGAGE SERVICES, INC.

좋은 조건으로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저에게 상의해 주세요.

사무실 (206) 527-0099  
자택 (206) 364-2312  
Pager 991-4744



**MIRA HWANG** (황미라)  
Senior Loan Offi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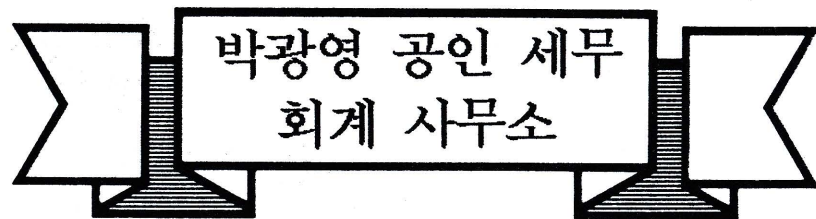
# 北京飯店 GRAND PEKING

- \*\*\*\*\*
- |            |          |           |
|------------|----------|-----------|
| * 양장피      | * 유산스    | * 소고기 탕수육 |
| * 팔보채      | * 간뽕기    | * 매운두부    |
| * 매운 오징어볶음 | * 삼선 간짜장 | * 삼선 짬뽕   |
| * 오향       | * 장육     |           |
- \*\*\*\*\*

Open 7 Days a Week  
Lunch & Dinner

MON - THURS: 11:00 A.M. - 10:00 P.M.  
FRI & SAT: 11:00 A.M. - 10:30 P.M.  
Sunday: 12:00 Noon - 9:30 P.M.

TEL: 839 - 1787  
Tacoma line: 952 - 1787  
1706 So. 320th  
Federal Way, WA 98003



대표: 공인세무사 박 광 영

Tax에 관한 문제라면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 |       |                             |                                    |
|-------|-----------------------------|------------------------------------|
| 취급업무: | 1. 개인 세금보고                  | 6. Gift Tax (증여세)                  |
|       | 2. 개인사업체 세금보고               | 7. Financial Statement 및 은행용자 서류작성 |
|       | 3. 법인사업체 세금보고               | 8. 세무감사 대행                         |
|       | 4. S. Corporation에 관한 일체 업무 | 9. 세무 상담                           |
|       | 5. Estate Tax (유산 상속세)      | 10. 각종인 허가 업무대행                    |

## ADDRESS & TELEPHONE NUMBER

FEDERAL WAY OFFICE  
31220 Pacific Hwy. S. #3  
Federal Way, WA 98003  
(206) 839-1040

CAR PHONE (206) 799-6767  
TOLL FREE (206) 244-0489  
FAX (206) 839-1040

TACOMA OFFICE  
11300 Bridgeport Way S.W. #D  
Tacoma, WA 98499  
(206) 589-8485

## 영원한 한국인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본다.

그는 대 한국인이었고 한국을 위하여 일생을 산 사람이다.

1909년 정월 안의사는 연추 방면으로 돌아와 동지 12명을 얻어 상담을 하였다. 「우리들은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했다가 전혀 아무일도 이루지 못하면 남에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만일 특별한 단체가 없으면, 어떤 일이고 간에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오늘 우리들은 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같이하여 증거를 보인 다음에,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기어히 목적을 달성하자」는 뜻에 의견일치를 보고, 마침내 12명의 동지들은 각각 무명지를 끊어 그 피로써 태극기 앞면에 글자 너자를 크게 「대한독립」이라 쓰고 난 다음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흠여졌다. 그 후 안중근 의사는 조국에 독립을 위하여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한채 죽어갔다.

대 한국인의 의병 중장으로 죽음을 앞두고 그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어머님 전 상서

자(子) 도마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초자식은 감히 한 말씀 어머니께 올리려 합니다. 업드려 바라옵건데, 저에 막심한 불효와 정성을 못 다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험한 세상에서 육정(六情)을 못이키시고, 이 불초자식을 너무나 염려하여 주시니, 후일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 뵈을 것을 바라며 기원 하옵니다. 현세에 일이야 말로 모두가 주의 명령에 따른 바이오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업드려 비읍니다. 「분도(장남)」 -세례명- 는 장차 천주님께 바치도록 교양해 주옵소서, 이상은 그 대요이며, 여쭙 말씀은 많읍니다만, 어쨌든후일에 천국에서 기쁘게 또 만나 뵈옵겠으니, 그 때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증략

사형이 집행되던 날 안의사는 일인 간수가 한 폭에 글을 부탁하자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고 단숨에 쓰고 무명지를 절단한 외손 손바닥의 수인을 찍었다. 이것은 안의사 자신이 의병중장으로 목숨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임을 나타냈다.

그는 영원한 대 한국인이다. 그가 저격한 것도 한국인 이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일찍 사형을 당한것도 한국인 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두 동생을 면회할 때 남긴 유언을 들어보면 내가 죽은뒤에 나의 뼈를 하루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군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라고.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을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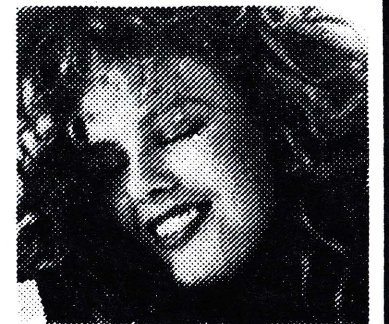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고 하였다.

우리 선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안의사는 영원한 대 한국인이었고 영원한 신앙인 이었다. 요즘 일제상품을 선호하는 우리들은 선현들의 얼을 어어 받자. 멀리서나마 신앙안에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자.

타코마 한인 성당 구 일 모 신부

# 헤어센스

## Hair Sense



남녀헤어컷 전문  
파마.염색  
신부화장  
월-토 9AM-7PM

보다 아름답게 당신의 멋을 창출하는

☎ 927-0942  
33606 Pacific HWY  
So. #9 Federalway



## 부처님의 사랑

정각사 정업스님

산다는 것은 상대적인 일체를 사랑 한다는 것이다. 열반경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닦으면 탐욕이 없어지고 남을 가없이 여기고 마음을 닦으면 미움이 사라지고 이웃과 기쁜 마음을 닦으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남과 내가 하나인 근본을 알면 차별이 없어진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넘치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는 인내가 있다. 사랑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불꽃 같은 용기를 준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일체 생명을 성장 시키는 원초적인 힘, 에너지의 원인이다.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생기가 없다. 혹자는 사랑이라면 남녀관계 만을 연상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랑이란 나 자신이 어떠한 대상에 쏟는 사랑이다.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남녀도 좋고, 학문도 좋고, 종교도, 꽃과 나무도, 예술도 좋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진리도 좋다. 먼저 그대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랑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때 거기에는 끝없이 매장되어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과 지혜와 자비의 사랑과 일체 공덕이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덕이 되고 건강한 인간성이 형성되고 건전한 정신을 만들어 준다. 왜냐하면 정신이 약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폐인이 되지만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즐겁고 모든 사물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대비한 사랑은 부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모든 사물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탐욕이 사라지고 그렇게 굳게 자리하고 있던 아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꼭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탄과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합장하고 절하는 것으로 수행을 하였는데 마침내 성불하였다. 성불의 길, 인격완성의 길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깨달음의 길이 있고 또한 명상을 통해서 내적인 자아발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성불 한 것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바로 무지를 없애고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화엄경에 “부처님과 보살은 큰 사랑으로 몸을 삼으며, 큰 사랑으로 문을 삼으며, 큰 사랑으로 머리를 삼으며, 큰 사랑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사랑이 곧 전부이다. 그러 했기에 일체중생을 외아들처럼 사랑하여 45년 동안 배푸신 8만4천의 법문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사랑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요즘처럼 자신과 가족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의 덕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넓은 사랑으로 확대되어 가는 그런 사랑, 인격완성의 길로 가는 사랑 즉 덕의 길, 불보살의 길, 성불의 길이다. 그러니 참으로 인생을 헛되지 않고 멋지게 살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사랑을 넓게 실천해서 꽃 한포기, 돌 하나에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하겠다. 그 길만이 또한 남과 내가 본래 하나인 근본 진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RIVERS WEST

APPAREL, INC

NIKE, PATAGONIA 제품 제작

- 유경험자 우대
- 좋은 베니핏(유급휴일, 연 1주 휴가)
- 무경험자도 가능함

SET ZIPPER \$7.00-8.00

800 MAYNARD AVE S.

SEATTLE, WA 98134

TEL: (206) 682-8574

## 범민련의 정체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회장 소 준 열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조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서신을 보낼 기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평화의 제전인 제 25회 올림픽을 맞아 바르셀로나 하늘에 연일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민족적 자긍심과 우수성을 실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하나가 되지 못한 분단의 현실에 커다란 아픔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며, 어쩌면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 아픔이 년초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방문 등으로 남과 북 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바탕이 되어 분단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였으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이러한 기대는 북한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올해도 소위 「범민족대회」라는 집회를 서울에서 벌이겠다고 고집함으로써 모처럼 조성

된 남북협력의 분위기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에 안타까움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범민련」이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약칭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관장하고 있는 노동당 산하 「조평통」의 외곽 단체로서 남한내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의 추종세력)등 소수 좌경분자와 해외 반한, 친북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선전략 수행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한 범민족대회는 북한이 「범민련」을 이용하여 해마다 북한, 남한, 해외에서 번갈아 대회를 개최키로 목표를 세우고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집중 선전하는 한편, 북한의 주장인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관철키 위해 투쟁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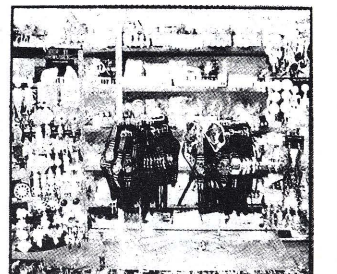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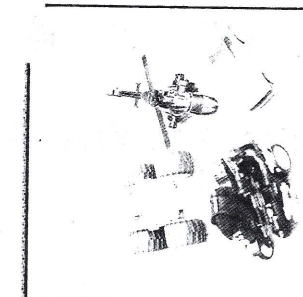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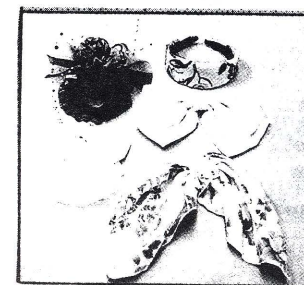
그런데 금번 북한이 8.15 광복절을 기회로 하여 남한정부를 비판하고 자기들의 통일전략을 선전하려는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정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범민련」 남한본부와 해외본부 조직원들을 부추기는 한편, 심지어 남한정부가 동 대회의 개최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도록 사주하고 있으니 도대체 북한의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 진스집회도매



각종 여성악세사리 및 모자, 키체인, 선그라스, Toy, 밧데리, 라이타 등등. 서북미지역의 유일한 잡화도매상

지방 UPS 당일발송



**Jin's Trading & Dist.**  
Import Export/MFG. Wholesale  
5515 Airport Way, Seattle, WA 98108  
TEL: 762-6877. FAX: 762-4173  
Toll Free: 800-759-5467 800-759-JINS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7천만 동포여러분!

만일 범민족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면 「범민련」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온갖 반남한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이 큰 혼란에 빠져들어 그냥 두손 들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이요 착각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모처럼 조성되는 통일 분위기가 깨지게 되면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범민족대회의 개최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종의 도발행위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한 협력을 통한 통일의 분위기를 역행한 채 걸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비무장지대에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상호 핵사찰을 거부하면서 인도주의적인 노부모의 교환 방문조차도 회피하려는 그들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의 통일외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사전

에 해소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고 하루빨리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동포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저희 재향군인회는 지난날 6.25 자유수호전쟁에서 피흘려 조국을 지켰으며, 지금은 고향에 돌아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들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국가안보의 「산 증인」으로서 통일을 가로막고 국가의 안위를 흐트리려는 「범민족대회」를 추진하고 사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화합이 아닌 분열로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고자하는 불순한 세력들의 무모한 투쟁을 우리손으로 막고, 다함께 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의 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 단체와 동포여러분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 유니버시티 빌리지 꽃집

- \* 결혼식
- \* 동양 꽃꽂이 전문
- \* 병원, 생일축하, 개업

- \* 장례식 화환
- \* 실내용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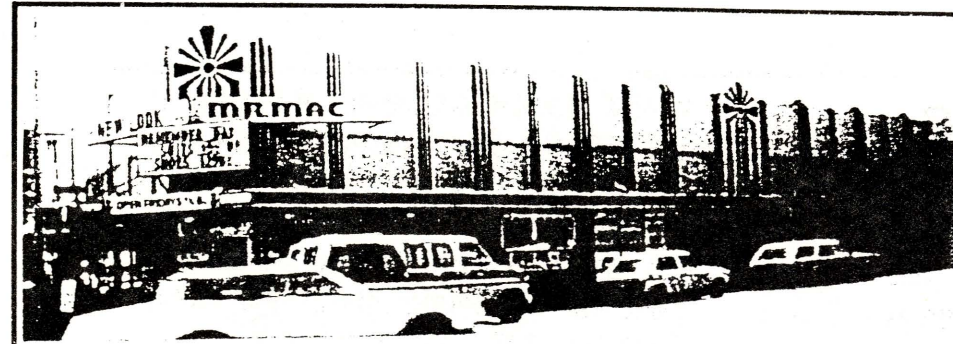
**(206) 525-7422**

**(H) 935-1854**

**5401 25th Ave. N.E., Seattle, WA 98105**



전화만 주시면 한국 및 기타 외국에도 배달됩니다.



## The Prudential

SEA\_TAC 근처에 있는

60 SPACE의 모빌홈(3 ACRE)

SEA\_TAC 근처에 있는

60 SPACE의 모빌홈(3 ACRE)

총 년수입 \$270,000

1 ACRE의 땅 (85 UNIT 모텔 지을 수 있음)

BLUE PRINT 되어 있음

MILL CREEK 골프장에 있는

MILL CREEK 골프장에 있는

새로운 2,200 Sq Ft 집 \$245,000

MILL CREEK 골프장에 있는 집

\$199,000 과 \$218,000

CONVENTIONAL LOAN 8.25% 집용자 가능

다운타운 5일 DELI와 GROCERY, CLEANER의 많은 리스팅 있음

TACOMA 코너에 있는 상업용 건물

TACOMA 코너에 있는 상업용 건물  
2개의 소매점과 신문사가 들어있음

공장으로도 가능

총 18,000 Sq Ft

ASK : \$385,000

DOWN: \$ 50,000 가능

**Richard James**  
**Preferred Properties**

10002 Aurora Ave. No., Suite 26  
Seattle, WA 98133  
Bus. (206) 523-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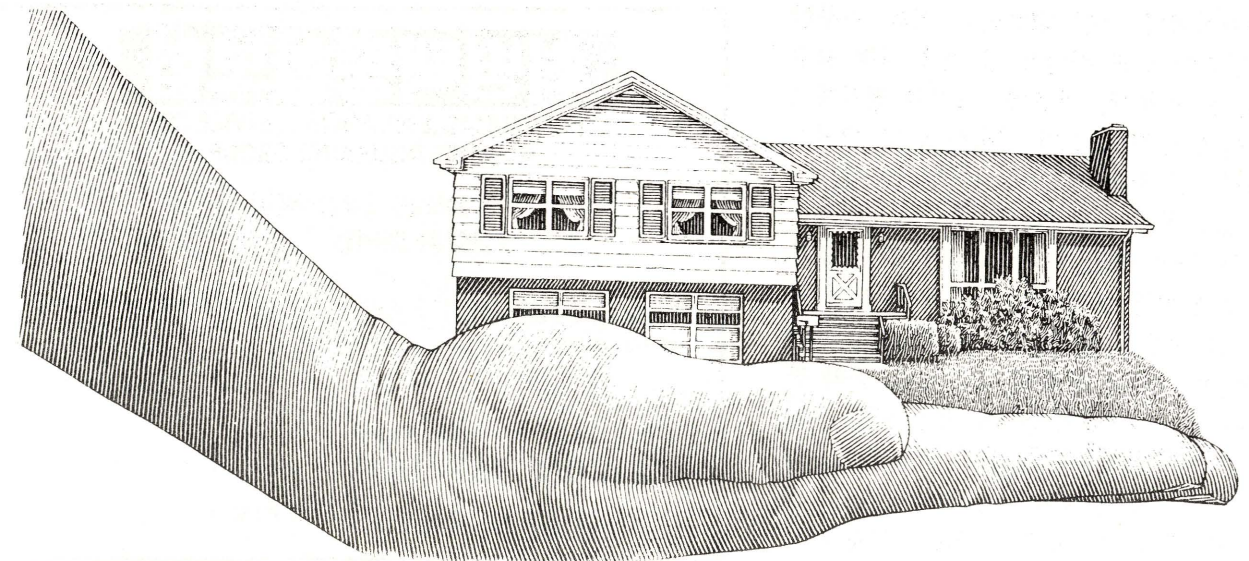
Home (206) 745-6584  
Pager (206) 982-6846  
FAX (206) 525-4855



**MICHAEL K. YOON**  
Sales Associate  
윤 광 남



An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Member of The Prudential Real Estate Affiliates, Inc.





## 교민께 드리는 호소문

신 호 범

반세기에 불과한 우리 이민역사 기간에 교포의 수가 100만에 달하고 미국내 어디에서나 교포를 만나보지 않는 데가 없다할 정도로 한인사회는 숫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왔으며 또한 경제면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공으로 우리민족의 탁월함을 과시 하였다고 까지 할 정도로 우리 이민 생활의 성공을 대서특필 하여 오던터였습니다.

그러나 4.29 L.A. 의 폭동사태는 우리 교포의 그간의 이민생활을 성공으로 간주하기에는 무엇인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여러가지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 이민 초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실정을 극복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국 전체 사회와의 관계를 보지 못한 점을 다시 고려하여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을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우리 교포들의 경제적 큰 성공이 오히려 타 민족에게 극도의 시기심을 일으키고 그 같은 보복의 참상을 가져왔다고 볼때에 미국의 복잡한 문화집단 사회를 더 연구하고 타 민족과도 화합하여 가는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태도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우리 이민생활의 권익을 주장하여 주며 주류사회 및 다른 민족의 사회에 연결시켜 상호 협조하며 또 보호하여 주는 대변인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그런 대변인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을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계, 법조계, 그리고 정치계의 여러 분야에 우리 교포가 진출하고 또 대변인을 보내서 권익의 보장과 상호화합의 일을 지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2세를 준비하여 주는 교육에 대한 재 강조뿐 아니라 그 방향도 심사숙고 하여 우리 자녀 개 개인의 전문성을 살릴 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뭉쳐 강하게 서면서 동시에 다른 많은 문화 집단과 어깨를 겨누어 화합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2세를 만드는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사회 내의 여러단체와 개인이 강한 공동의식을 가지

고 서로 협조하여 강한 한국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른 커뮤니티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화합하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을 키우면서 타 커뮤니티와 화합하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한국어를 지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유지하여가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결속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번 L.A. 사건을 계기로한 우리 이민생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와 방향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4.29 이후 저는 제가 최근 출마하게된 주하원 의원의 의무와 소명이 무엇인가를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매진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간 보여주시 많은 성의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오며 계속 채찍과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동양과 서양을 더 공부하고 더욱이 미국의 사회를 더 공부하여 개개인과 각 문화단체의 강한 결속을 도모케 함과 아울러 이질단체 사이의 이해와 협조의 강한 정신을 조성케 하고 상부상조의 분위기를 이룰수 있는데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직업, 노후의 문제 등에 대한 대변을 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미속하고 어려운 이민생활에도 희망과 연구의 태도를 가지고 상부상조한다는 정신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이끌어 가야만 할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교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에서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2년전 문진순씨는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남편과 결혼, 미국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땅에서도 그 아들조차 어릴적부터 한국인 어머니의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그 소년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이라는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웠으며 언젠가는 이 미국 땅에서 이같은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한인사회의 참 대변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소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학과를 전공하고 수 많은 정치경력을 쌓았으며 이제 공화당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약관 32세의 나이에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씨애틀 코리아타운이 있는 킹카운티 제 32지구에서 공화당 주하원으로 출마한 테리 문(TERRY ROBERTS)후부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테리문 후보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자랑스런 우리 한인 가족입니다. 또 첫 출마에도 불구하고, 예비 선거없이 이미 본선에 진출했을 정도로 정치계에서 이미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대변인이며 우리의 미래를 걸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를 적극 성원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워싱턴주 한인사회 각 단체들도 이미 범교포적으로 그를 적극 돕기로 결의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록 그가 한인사회에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테리문 후보는 한인사회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한인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폭동처럼 한인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일은 이 지역에서는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 업소들을 위한 세금감면 및 각종 면허, 규정 완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T.V.를 통해 분노하셨듯이 지난번 L.A. 폭동 때 우리 한인들은 그야말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힘이 없이 직접 총을 들고 자신과 사업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한인사회에 아직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테리문 같은 정치인을 한인사회의 대변자로 의회에 적극 보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한인 어머니와 한인 친지들 속에서 한국문화로 성장했으며 근면하고 가족중심이며 신앙심 강한 한인사회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테리문 후보-9살 때 자전거를 갖고 싶어 2달동안 신문 배달을 한 후 기필코 목적을 달성했을 정도로 용기와 야심과 비전이 있는 테리문 후보- 그가 자랑스런 우리 한인사회의 대변자가 되고 우리 한인 혼혈인들의 꿈과 본보기와 미래가 되도록 우리 모두 테리문 후보를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기권하지 마시고 테리문 후보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자금 지원이나 선거운동 등 어떠한 협조도 환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테리문(TERRY ROBERTS)주하원 의원후보 선거 준비위원회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테리문 후원인 일동

### 최병택종합보험

THE EQUITABLE FINANCIAL SERVICE CO.  
FARMERS INSURANCE GROUP

- 좋은보험 ○ 최고서비스
- 성실한 대리인

\*생명 \*사업 \*투자 \*자동차 \*교육  
\*건강 \*주택 \*본드

지난 몇해동안 보험인으로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믿고 맡기는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15017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씨애틀 (206) 362-8385

타코마 (206) 588-6105 FAX 361-9014





# 교통사고·상해전문·이민비자



찰스허만  
이민비자

타코마사무실  
교통사고·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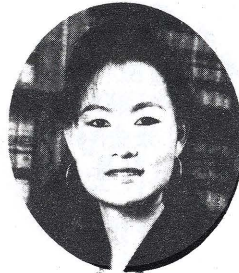
김경숙

(206) 998-4922 (시)  
비퍼 (206) 596-9499 (타)



권영인

(206) 969-1584 (시)  
비퍼 (206) 596-9152 (타)



줄리황

(206) 998-9431 (시)  
비퍼 (206) 596-9420 (타)

시애틀사무실  
교통사고·상해

## 찰스·허만 변호사

교통사고·상해전문·이민비자

타코마사무실

1535 Tacoma Ave 5  
Tacoma Wa. 98402  
Tel: (206) 627-8142  
Fax: (206) 627-1835

시애틀 사무실

815 S. Weller St  
Seattle Wa. 98104  
Tel: (206) 625-9104  
Fax: (206) 682-6710

- 이민비자문제
- 일반비지네스
- 형사·민사 소송
- 유언장
- 무료상담 (변호사와  
영어·한국어로 직접  
상담하실 수 있음.)



제 26대 한인 회장단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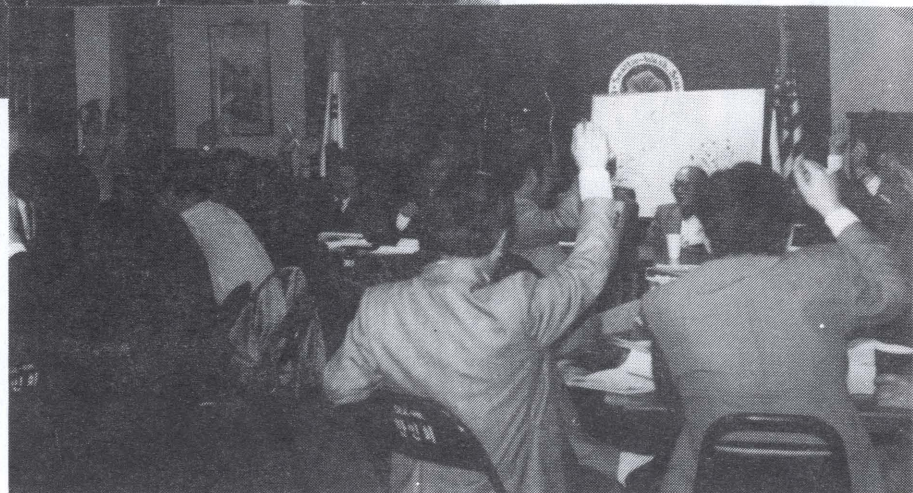
제 26대 한인회 이사.임원 상견례



임원회의



제 1차 이사회



예산통과



신호범박사 후원의 밤





KELLER ROHRBACK 변호사의 성금전달

경로 세미나



경로잔치 준비 노인 간담회

경로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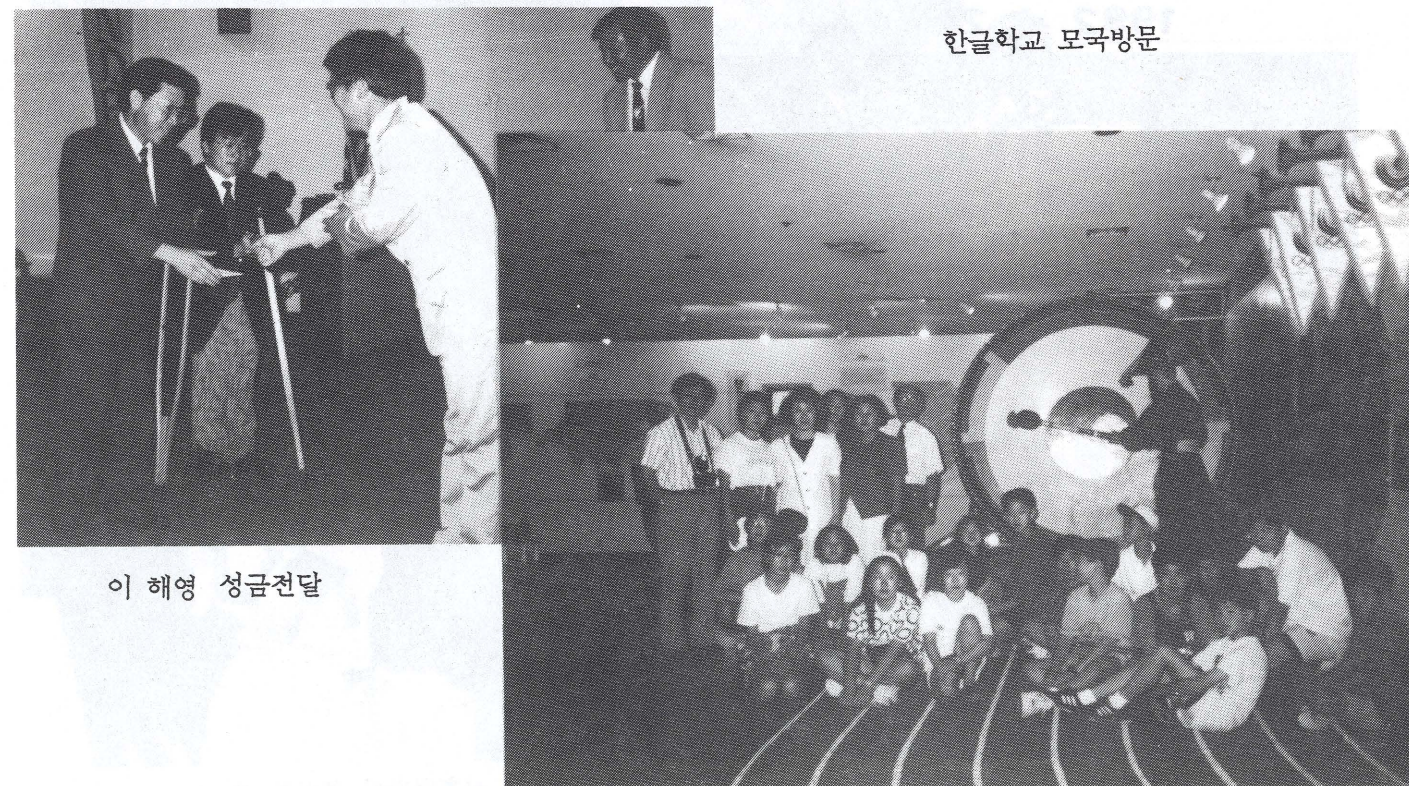


합천 해인사에서 - 황천부 군수에게 선물증정

김수현 옥성회장 감사패전달



워싱턴주 노인대학 개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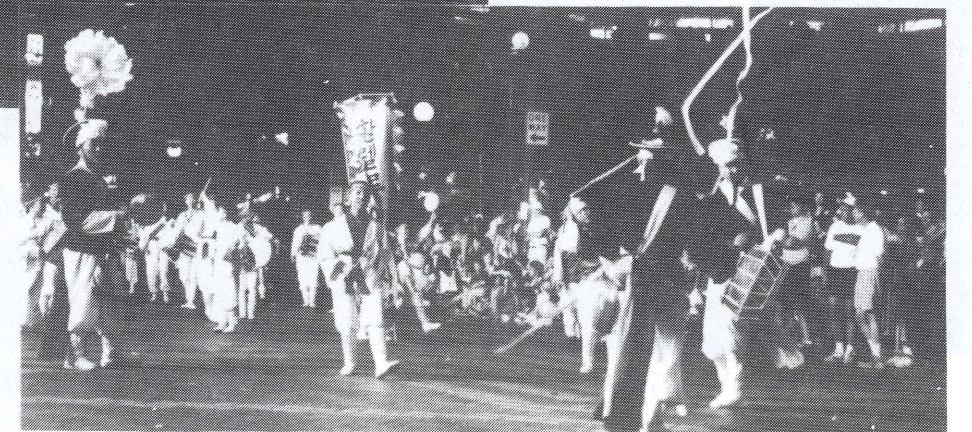
이 해영 성금전달

한글학교 모국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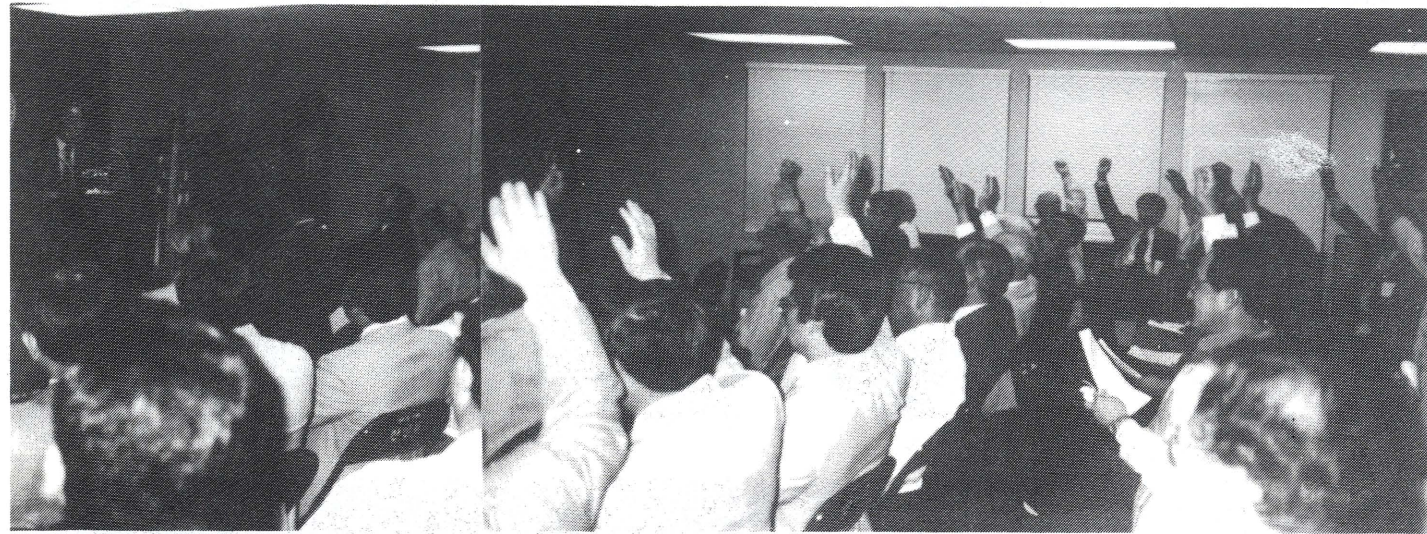
모국방문단 연수생 일동



Sea Fair 퍼레이드







정관개정을 위한 정기총회 - 정관통과



대학가요제



한인회장배쟁탈 축구대회



한국인동산 제막식



• OH! LORD / (PRAYER)



셋별 무용단

- 1985 셋별 무용단 발족
- 1986 에드몬드 커뮤니티 칼리지 한국의 밤 및 초, 중, 고, 대학 행사 참여
- 1987 입양아 단체 (KIDS)에서 공연 및 무용지도
- 1988 N. W. 민속축제에 참가하여 현재까지 매년 공연
- 1989 워싱턴주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
- 1990 창작 무용극 에스터 첫 공연  
SEA FAIR PARADE 참가 및 KINGDOME 야구 경기 개막 공연  
3주간 한국 선교 여행 공연
- 1991 포트랜드 유진 타코마 선교 여행 공연
- 1992 에스터 제 3회 공연, 미스 워싱턴 선발대회 참가 및  
유럽 4개국 순회 공연 (네델란드, 벨지움, 프랑스, 독일)  
그의 교회, 노인회, 한인회, 문화 행사 및 선교공연 등  
총 150여회 출연





본 합창단은 현재 50여명의 단원이 타코마, 웨더럴웨이, 씨애틀, 에버렛 지역으로부터 모이며, 주 1회 씨애틀 한인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월회비와 음악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의 찬조금으로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에버그린 합창단

에버그린 합창단은 지난 1988년 음악예술을 통한 사회봉사를 그 목적으로 창단한 이래, 대소 50여회의 각종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미국사회에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인 사회 불우 이웃돕기 자선행사, 입양아 돕기, 모국 음악예술인들의 미주공연등을 주관함은 물론, 한인회관 건립운동, 시의원, 주의원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으로 교민 1세대에게는 이민 생활속에서의 안정을, 2세대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순수 민간 비영리단체입니다.

한편, 냉전시대의 종식에 따라 국제간에 치열해지고있는 경제적 경쟁이 미국경제 우선주의 팽배에 따른 배타주의적 신보수주의의 대두와 이에 수반되는 인종간의 갈등으로 인한 최근 몇년동안 한인들 상대로한 각종 범죄가 격증하고 있는 이 때에 본 합창단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민족간의 이해증진과 유대강화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음악을 타 민족에게 소개 함으로서 한국인의 문화와 한국인의 사랑을 심어 국가와 민족간에 이해의 교량역할을 할 것입니다.



# 朴 不動産 은



투자가는 물론 BUSINESS 하시는 분들을 위해 15명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거래법은 물론 일반 비지네스 상식 그리고 투자이민 관계까지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표 박노진



448-1122

● 본사 : 333 Taylor Ave. N. Seattle WA 98109



존경하는 이 회장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이 미주 한인회 발전과 지역의 유대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며 수고하시는 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 회장님으로 선출되시어 바쁜 나날 속에 이렇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제가 불쑥 인사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늦게나마 취임 축하도 드립니다.

제 이름 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해영이고, 1966년 2월 20일 생이며, 고향은 경남 남해군이고, 제 나이 세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와 허리를 못 움직이는 불구자가 되었고, 어린 나이에 어머님과 아버님마저 여의고 1973년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1975년 Holt 일산고아원에 보내어져 미국에 오기까지 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곳이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의 야산중턱에 1961년 설립자 Harry Holt 할아버지께서 직접 건물을 세웠고, 입양을 가지 못한 뇌성마비와 정박아, 그리고 지체부자유 등 0살에서부터 50세 까지 약 300명이 넘는 원생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저도 한 원생으로 그 곳에서 16년간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고 제가 고아원에 들어와서 몇년후에 한글을 알고, 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정식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여 1987년에 검정고시를 쳐 고졸, 대검을 모두 합격하는 보람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리를 못쓰는 것 때문에 제가 배운 여러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직장을 얻기란 무척 힘이들고 어렵고 해서, 공부하면서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나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 이곳 미국가정 Mr. & Mrs. William E. Boardman씨 초청으로 1989년도 가을에 처음 미국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처음 만나뵈은 것은 1986년도 저희 나라를 관광차 오시게되어 알게되었고, 이분들이 또한 저희 나라 아이들을 5명이나 입양하여 보살피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저희 나라의 복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영어를 이해 할줄 몰라 Miss Molly Holt씨 도움으로 통역등 전반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Miss Molly Holt씨는 Harry Holt 할아버지의 둘째 따님인데 현재도 일산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근 35년간 우리나라 장애자기관에서만 봉사 하시면서 결혼도 피하신 올해로서 58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 곳에 오게된 동기는 사회복지의 선두적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시설과 복지정책을 깊이 알고 배우고, 현재 제가 공부하는 Computer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 계신 불우장애 친구들을 도울 계획을 가지고 한평생 나의 몸을 그 사람들을 위해 바칠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오늘 이렇게 서신을 올리게 된 동기는 현재 제 입장이 무척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수단으로든 미국에 가기만 하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이었지만 현재 마땅한 후원자도 없고 학비조달 방법이 막연하여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불법 체류자가 되며, 그리고 학비도 무척 들고 해서 제 처지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회장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려면 엄청난 학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반드시 혼자 일어나서 꼭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를 계속 후원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이렇게 돈이 궁하면 남에게 계속 제 속 사정을 얘기하기가 무척 힘이들고, 또한 듣는 분들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제 마음이 시들어 있고 그렇게 용기있던 나의 마음마저 하나 둘 무너져 내려가

는 것 같아 제 스스로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회장님 저에게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현재 이 가정에서는 먹고 자고 하는 것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때 세번이나 거절을 당했죠. 이유는 후원자가 없고, 몸이 불구이고, 또한 미국에 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저앉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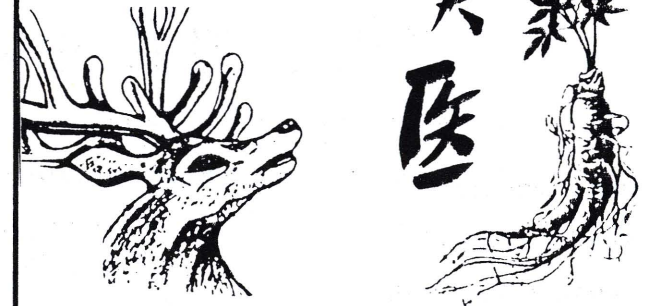
회장님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 이 서신을 읽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미주 한인회와 미국인과 흑인 여러 인종의 유대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많이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해영 올림

### LYNNWOOD 한의원 한의사 송 순용

한방각과 상담환영  
교통사고 보험 취급



18904-G Hwy 99 N.  
Lynnwood, WA 98036  
(206) 776-1110 코스코 건너편

## 아 • 카 • 사 • 카

### AKAS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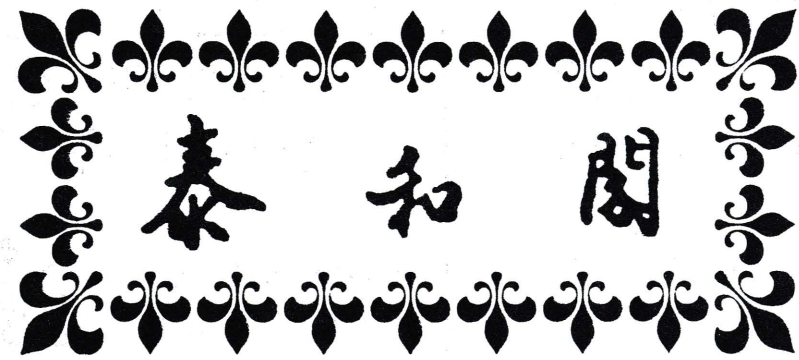
- 다다미룸
- 매운탕
- 스시바
- 회덮밥
- 한식·일식
- 장어덮밥



대표 : 이 종 남

Federalway Shopping Center  
31407-H Pacific Hwy So.  
☎ 946-3858





## 유일한 한인 수타국수 전문집

- Mongolian Beef
- Almond Chicken
- Sweet & Sour Pork
- Mixed Vegetable Deluxe
- Special Mixed Chow Mein
- Mixed Vegetable Chow Mein
- Mandarin Egg Foo Yong with Shrimp
- Beef with Vegetable
- Kung Pao Chicken

6312 BOTHELL WAY N. E.  
SEATTLE, WA 98155  
TEL. (206)485-4020



## O.K 운전학교

교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OK 운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함재명입니다. 그동안 교포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인가를 받아 다년간의 무사고와 수백명의 교포분들께서 운전면허취득을 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하오며 다시한번 교포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OK 운전학교는 앞으로도 이에 만족치않고 더욱 노력하여 안전, 친절, 단시일내 면허취득면에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계속 성원해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운전학교의 특징

- 거리제한없이 출장지도
-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동원
- 효과있는 지도로 단시일내 면허취득
- 안전운전 책임보장 (30만불 보험취득)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십시오.

## 교통사고 법률상식

Charles Herrmann

내가 한국문학을 연구 하였을때 “양반”에 관한 옛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다. 어느 한 양반이 집을 떠나 며칠만에 돌아 왔을 때 그집의 두 하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 중 한 하녀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자 이 양반은 “네 말이 옳다”며 고개를 끄떡였다. 그러자 또 다른 하녀 역시 자기의 옳음을 설명하자 “네의 말이 옳다”며 고개를 끄떡여 주었다. 그러자 그 양반의 부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떻게 양쪽 말이 다 옳을 수가 있냐고 묻자 이 양반 말씀이 “당신 말도 옳다”고 하였다.

내가 이 이야기의 유래를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의 의미를 동감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대한항공 사건을 맡았을 때 나의 파트너였던 박한상 국회의원은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막바지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논쟁에 개입치 않으려는 한국인의 습성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생소한 사람에게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청구를 시도하는 것을 매우 꺼려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를 법정에 제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례에 없는 일이다.

박한상 국회의원은 나에게 “어째서 당신네 미국인들은 고소하기를 즐겨 하는가” 라고 물었다. 부인은 남편을 고소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고소 한다고 비난 하였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두 나라의 다른 점이다. 서구문화에서는 오래 동안 존재해 왔으나 한국에서는 최근에 소개된 보험의 이용 방안을 들수 있다. 그것은 Business와 같아서 누군가 다친 사람의 이웃들에게 기부금을 걷는 것과 같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운전하던 차에 부상을 당하여 손해청구를 한다면 남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순전한 Business 적인 입장에서다. 부부가 지불해온 보험료로 보상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서에 의해서 손해 보상을 받는 부인은 남편에 대한 무례한 행위가 아니다.

불행히도 미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대다수 한국인들이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로써 한국인을 이용하여 흔히 미국인들 보다 더욱 적게 배상하거나 혹은 아무 것도 배상해 주지 않는다.

내가 맡은 한 case의 예로써 임신한 여인이 시동생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아이는 조속아로 분만하였고 병원 비용만도 10만불이 넘었다. 한국인으로서 도저히 남편의 동생에게 해를 끼칠수 없다고 생각하여 보험회사가 지불한 1만불에 합의하였다.

후에 한국에 계시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려고 Visa신청할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에 무척 분노를 느꼈다. 나는 한장의 강력한 편지로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10만불 전부를 지급 받았을뿐 아니라 보험 최고액인 12만 5천불 전부를 보상금으로 따로 지급 받았으며 시동생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게 처리하였다.

다음은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나의 의견이다.

1. 가능한 사고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나 증인이 될만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등을 알아 내어야 한다.
2. 경찰을 부른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입회하지 않은 사고는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우려가 있다.
3.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당신의 소견을 분명히 경찰에게 이야기 한다.
4. 경미한 부상이라도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종종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며칠 후에 느낄수 있다.
5. 당신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즉시 사고를 신고 하여야 한다.
6. 당신의 자동차나 신체적 부상 등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7. 상대방 차의 보험회사 직원과는 이야기를 하지말 것이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절대로 싸인 하여서는 안된다.
8.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흔히 손님들 중에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려다가 지친 나머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수다. 그들의 교묘한 질문에 답하여 사건 자체에 해를 입히게 되는 수가 있다.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비 청구서가 밀려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처음 부터 변호사에게 의뢰 한다면 변호사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거의 모든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부과치 아니하므로 아무 것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그들이 받아 내는 보상금의 적정한 비율을 받는다. 그러나 자체 보험회사에서 회수되는 병원비나 봉급손실액에 대해서는 변호비를 부과치 않는다.

한가지 충고 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L.A. Style로 통하는 변호사를 찾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곳들은 변호사 혹은 대리인들이 먼저 돈을 흥정하거나, Case당 소개비를 준다던가, 치료비가 많이 쌓이도록 중용 한다던가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비도덕적이며 형사법에 위배되는 일들이다. 좋은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의 변호사들과는 무관 하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무실을 찾던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금중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혼자서 해결하는 것 보다 많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치료비등이 제대로 지불되며 부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적당한 치료를 받을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꼭 상해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한가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특히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험있는 한국인 보좌관이 있어 복잡한 미국법의 차이, 문화의 차질을 이해하여 도울 수 있는 곳 이라면 더욱 좋겠다.

## 태권도의 이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한국의 일이 담긴 태권도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해 주신 한인회보 발간 임원진에게 감사를 드리며 태권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도장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태권도가 매우 밀도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실제 태권도는 몸 전체를 발달 시킵니다. 비교를 위해서 대조되는 육체훈련인 역도와 마라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 역도와 같은 순간적인 근력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수 있기에 적절한 근육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와 같이 오랫동안 근육을 조금씩 사용하여 장거리 경기에 적용할수 있는 적절한 근육조를 가진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이런 예외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육조직은 이런 두가지의 극단적인 중간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운동이라든가 장거리

달리기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중간수준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잘맞는 운동이며, 그런 기술을 개발해 줍니다.


물리학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힘이란 질량과 가속의 함수입니다. 태권도에서는 이런 속성을 이용하여 가벼우나 재빠른 공수기술(空手技術)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근력이 있으나 느린사람 보다는 가벼우나 속도있는 사람이 공격과 수비에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태권도에서는 몸집의 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태권도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기술과 강력하고 날카로운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몸의 모든 부분을 발전시켜 줍니다. 어떤 운동도 한쪽 발로서서 180도 회전하여 발끝을 끌어 당겨 사람의 머리위로 지나가거나 지르기나 막기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그려볼 수는 있을지라도 다양한 태권도 기술이 빠른 시간안에 습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발레만이 몸 전체를 전반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태권도와 비슷하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서북미 최고의 공장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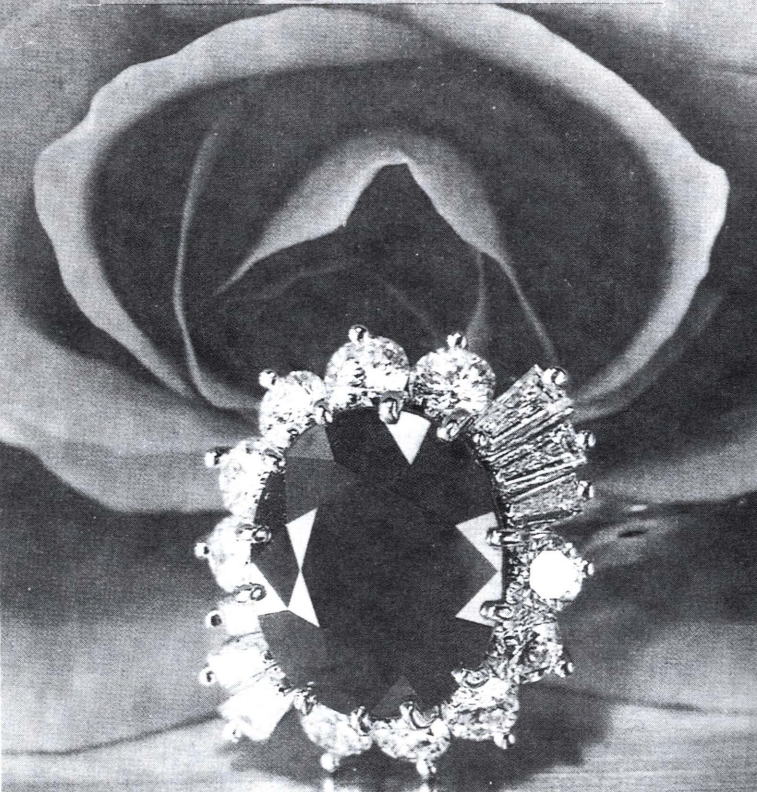
# 온셋보석상


On Set Fine Jewelry MFG  
(206)682-8290

- 다이아몬드 도매(감정서)
-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오팔, 진주외 각종보석
- 보석 디자인, 가공 및 수리
- 14K, 18K 이태리체인
- 2,000여종의 디자인
- 리모델링




1425 4th Ave. #426  
Seattle, WA 98101  
Joshua Green Bldg. 4th Pike St. in Down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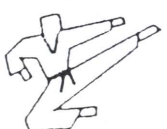
MEMBERS

## WASHINGTON STATE TAEKWONDO KOREAN MASTERS ASSOCIATION



<p>Cha, Sang Hyuk Chung, Yoon Koo Kim, Il Sung Kwon, Yong Seok Yi, Young Kuk</p>	<p>Chang, Hyun Sik Hong, Sung Do Kim, Myung Han Kwon, Hee Yong Yun, Hak Tok</p>	<p>Choi, Uoon Hwang, Sun Du Kim, Koo Shin, Kwang Soo</p>
--	---	--

If you would like to become a part of the Washington State Korean Masters Association, Please contact:



**U.S. Taekwondo Center**  
2020 320th S., Suite E  
Federal Way, WA 98003  
(206) 529-1120



태권도는 힘과 절제,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요하기 때문에 근력을 쌓는 연습, 준비운동, 순발력 연습, 기술 훈련, 자유 겨루기, 그리고 목상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훈련을 쌓지 않으면 그 완벽한 기술을 체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태권도는 심폐기능과 연관된다는 의미에서는 달리기와 크로스컨트리스키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유연한 운동기술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댄스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는 다른 운동종목과 마찬가지로 심장의 박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어 주며 혈액속에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외에도 태권도가 주는 신체적 이득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무도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실제 대부분의 생물의학적 무술연구는 격파능력에 탐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조차 탐구결과는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격파술을 배우게 되면 망가지거나 불구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히야마(격파술을 많이 한 사범)사범의 손을 X레이로 검사한 결과 수많은 벽돌과 바위를 격파한 그의 손의 구조와 능력은 어느사람의 손과 아무런 신체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 졌읍니다. 태권도는 여러 가지 운동경기가 갖는 가장 좋은 점들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심장과 폐에 유익하기 때문에 달리의 장점에 비유될 수 있고 발레의 우아함과 협동심을 함께심어 줄 수 있으며 어떤 특별한 신체 부위가 아닌 근육조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켜 주는 운동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태권도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면 세계 어느나라 어느 곳에서 수련을 쌓든간에 무도 정신에서 나오는 예의하는 것은 타 종목의 스포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점이라 하겠읍니다.

워싱턴주 태권도 협회 회장  
황 선 두 사범



# 타임잡화도매

## TIME WHOLESAL

### 타임잡화도매는 오직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각종 잡화	각종 의세사리
*모 자	*성인잡지
*장 난 감	*시 계
*Incense	*거 걸 이
*라 이 타	*Bend
*Condom	
*뱃 테 리	*Video
*비 탄 민	*시 계
*T-Shirt Bag	*목 걸 이
*Air Freshener	*핀
	*머 리 핀
	*Sunglasses
	*팔 씨
	*Key Chain



# RUNNING A SMALL BUSINESS TAKES COURAGEOUS VISION. CAREFUL PLANNING DOESN'T HURT EITHER.

To be successful in small business, you need the help of experts. In some cases, that's us. In other cases, it's the myriad of organizations dedicated to assisting small businesses. In either case, we'd like to help. We're all in this together.





## EASTERN SUPPLY COMPANY

세탁재로일체

- \* HANGER
- \* CHEMICAL
- \* POLY BAG
- \* ALTERATION SUPPLY
- \* ALL SUPPLY

7745 1st Ave S. P.O.Box 80331  
Seattle, WA 98108  
TEL: (206) 763-0566/0567

## 헤더럴웨이 자동차 정비공장 FEDERAL WAY AUTO REPAIR

전화: 946-1093

국내외 모든차를 성실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Complete Auto Service  
for Foreign & Domestic



"A Mechanic You Can Trust"  
John Park  
Owner

29625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C3  
(PACIFIC HWY 와 DASH POINT ROAD 코너에있음)

# DELTA

각종 세탁 장비  
판매 및 수리



주소 220 SO. 346TH ST. E-83  
전화 661-1752



## 사진은 빛의 과학

### 1. 젊음의 빛

자기의 얼굴 변화에 대해서 부심하던 10대 20대를 지나고 30대 후반에 들면서 중년의 빛이 흐르고 있음을 사진에서 발견할 때 대부분의 여인은 섭섭함을 금치 못한다. "내 얼굴에서 벌써 중년티가 흘러" 하면서... 기념으로, 또는 필요에 의하여 찍은 인물사진에서 자기가 늙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중년티를 가중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피로에서 오는 피곤한 표정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피곤이 섞인 엄숙한 표정은 5년내지 10년을 더 늙어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7년을 줄곧 하루 2-3명에서 10 여명의 미국인 남녀의 여권사진과 portrait 사진을 촬영해온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다.

미국인은 98%가 촬영 직전에 살짝 웃는다. 그 미소의 표정은 세련된, 거울 앞에서 많은 연습을 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언제든 연출 해내는 그 미소인 것인 반면 한국인들의 지나칠 정도로 근엄한 표정과 미소에 대한 연습부족은 거의 같은 순간에 촬영한 비슷한 사진에서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지나친 긴장이 5년 내지 10년을 젊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권용 사진이나 portrait 가족사진 등에 많지 않다. 따라서 사진촬영은 피곤하지 않는 시간을 선정할 것이며 미소를 곁들여야 한다는 것, 바로 이 것이 젊음을 생동케 하는 젊음의 빛인 것이다.

### 2. 방법의 빛

요즘의 카메라는 거의 auto focus와 auto exposure의 automatic이다. auto exposure 카메라는 어떤 때는 좋은 사진이 되나 어떤 때는 좋지 않다. auto focus 카메라 역시 제법 선명한 초점의 사진이 될 때가 있으나 대부분 초점이 선명치 못하다. 왜 그러할까? 이들 카메라는 렌즈 옆이나 렌즈를 통하여 렌즈 중앙에 위치한 피사체에서 오는 빛이나 소리를 받아들이는 sensor가 있다. 피사체에서 오는 정확한 빛의 밝기를 읽을 때 좋은 색상의 사진이 되나 그렇지 못할 때, 즉 피사체 부근에서 sensor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빛이 있을 때 노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렌즈 중앙에 위치한

피사체와 유사한 또 다른 피사체가 있을 때 auto focus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동 노출 카메라는 빛상태가 아주 어두울 때 automatic으로 셔터 스피드를 낮춰 이중 삼중 사진이 된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전문인들은 거의 automatic 카메라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automatic 카메라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문인의 경지에 들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종류의 빛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종종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slide에서 사진을, 사진이나 negative(한국에선 현상한 필름을 말함)에서 slide를, 칼라 negative에서 흑백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것은 노출에 긴 시간을 요하고 filter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수준높은 전문인들은 훌륭한 처리를 해내고 있으니 당황할 필요가 없다.

김남규 - 창작 사진관 제공

## 창 작 사 진 관

(206) 941-3364



Mushroom Burger  
\$2.49

( Fresh mushroom, Onion, Tomato, Lettuce, House sauce, Cheese )

**HI-TEK 1 HOUR PHOTO**

- \* (부명) 플라스틱 메뉴판 (글씨 삽입) 제작
- \* 결혼, 가족, 모델, 광고, 여권사진등
- 미국모델 배출 시킨(91년)
- TOTEM J.H. SCHOOL 92년도 졸업반 GROUP 사진 촬영
- \* NEGA 에서 SLIDE, SLIDE에서 사진, 칼라 NEGA에서 흑백사진
- \* 20"x30"까지 확대사진
- 한시간 사진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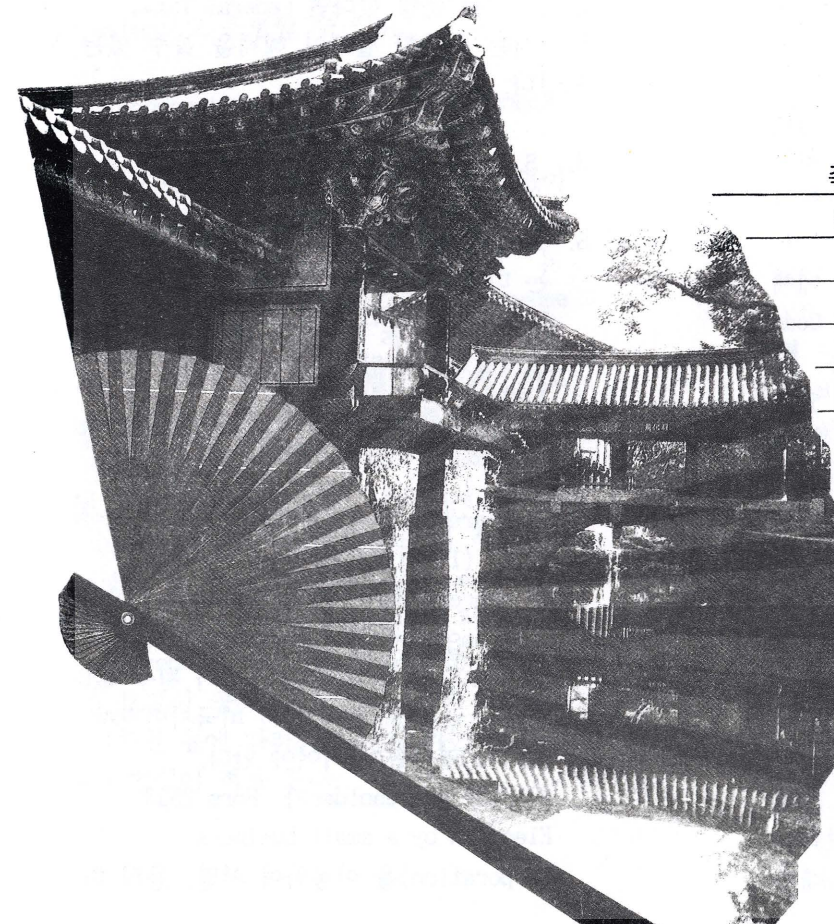
2112 S. 314TH ST. (HILLSIDE PLAZA 내)  
FEDERAL WAY, WA 98003  
TEL: (206)941-3364

# 맛이라면 역시 한일각입니다.

맛을 위하여, 한일각은 최선을 다합니다.  
맛을 위하여, 한일각은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맛을 위하여, 한일각은 정성을 다합니다.

격조높은 분위기

나이트 클럽  
연회석 완비  
케이터링 서비스  
무 료 주 차



- 즉석 숯불구이
- 해물모듬전골
- 육회비빔밥
- 돌솥비빔밥
- 장어구이
- 돼지보쌈
- 삼계탕
- 아구찜

고향에서 옮겨온 맛  
**한일각**  
**587-0464**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Bush Hotel 1층) 차이나타운내



## S. Corporation에 관한 이해

공인 세무사 박 광 영

### 1. 서론

Corporation이란 무엇인가?

S. Corporation에 관하여 말하기에 앞서 연방 정부가 규정한 일반적 정의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Federal Income Tax를 목적으로 할 때 Corporation이라 함은 1)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등)이 모여 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인격이 부여된 개체를 의미하며 또한 2) Corporation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개체가 Business를 연합하여 조직 운영하는 인격적 개체를 말하는데 특히 그 조직은 영속성(Continuity of Life), 중앙 집중관리(Centralization of Management), 책임의 유한성(Limited Liability), 자본의 자유 이전성(Free transferability of interests)을 반드시 그 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corporation이 영리를 추구하여 이익금을 남겼다면 그 이익금은 shareholder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또한 corporation profit 자체에 대하여 corporation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corporation에 대한 대체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 IRS Code sub - chapter S. Corporation에는 S. Corporation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왜 이러한 제도를 두었는지 이를 제정한 목적과 그 내용 및 장단점을 중점적으로 논하여 보고자 하며, 우리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Federal Tax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2. S. Corporation의 제정 목적

Corporation은 그 이익금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Shareholder에게 분배하기 전에 Corporation tax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익금을 분배 받은 shareholder들은 자기 몫에 대하

여 다시 한번 Income tax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일반 Corporation은 같은 이익금에 대하여 사실상 두번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Domestic Corporation으로 하여금 double Taxation을 피하게 하게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자격을 갖춘 Domestic Corporation은 shareholder들에게 분배된 이익금에 대하여 shareholder들만이 Income Tax를 납부하면 그만인 것이다. 또한 S. Corporation은 일반 Corporation과는 달리 그 corporation의 운영결과 나타난 Loss, deduction과 credit이 직접 shareholder의 세금 보고서에 반영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shareholder에게 분배된 이익금은 self-employment profit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partnership으로 Business를 운영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막대한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불합격 eligible domestic corporation으로 승인 받아 business를 운영 한다면 Federal Tax의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절세의 혜택을 볼수 있는 제도이다.

### 3. S. Corporation의 승인요건

S. Corporation의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 1) 미연방 및 각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Domestic Corporation) 이어야 한다.
- 2) 오직 한종류의 주식만을 발행 하여야 한다.
- 3) shareholder는 3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명이라도 무방)
- 4) shareholder는 개인(Individual)이나 Estates이라야 하며 Partnership이나 corporation 그 자체는 주주가 될수 없다.
- 5) shareholder는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 6) 모든 shareholder가 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이용하여 서명, 동의 하

여야 한다.

### 4. S. Corporation의 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회계년도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없이 신고로서 확정되거나 Business의 편의상 다른 날자를 회계년도로 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IRS로 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S. Corporation의 설립절차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각주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corporation의 지위를 얻어야 하며 그 후에 미 연방 국세청에 S. corporation의 승인을 요구 하여야 한다. Corporation 설립 당시부터 S. Corporation으로 Business를 운영할 의도하에서 그 수속을 밟는다면 처음 부터 Business를 S. Corporation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만약 기존 Corporation이 S. Corporation으로 그 형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당해년도 3월 15일까지는 IRS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그 이후에 승인이 된다면 그 다음 년도로부터 S. Corporation으로 운영할 수 있다.

### 6. S. Corporation의 Income과 Expense의 계산

S. Corporation 그 자체는 상관없이 shareholder가 그 share되는 Income 또는 Loss에 따라 Tax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S. Corporation의 Income, Loss 그리고 Expense의 계산에는 특별한 Rule이 적용된다. 모든 수입은 그 종류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고 shareholder 역시 특성에 따라 분류된 Income으로 개인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Loss가 있었다면 shareholder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된다. Expense 역시 special rule이 적용되며 charitable contribution과 같은 expense는 corporation 그 자체의 expense가 되지 아니하고 shareholder가 자기 몫을 배분 받아 개인 세금 보고서 공제 받게 되고 각종 credit 또한 배부된 몫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등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 된다.

### 7. S. Corporation Taxes

S. Corporation 역시 다른 일반 Business처럼 Excise Tax와 Employment tax를 납부하여야 함과 동시에 S. Corporation으로 Business entity가 바뀌기 전의 일반 corporation이었을 당시의 상태와 조건이 어떠하였는가에 따라 다음의 5가지 Tax를 부담하여야 한다. 1) the tax excess net passive investment income 2) the tax on certain capital gains 3) the tax on built-in gains 4) the tax from recomputing a prior-year 5) LIFO recapture tax. 처음부터 S. Corporation으로 시작되는 Business는 위의 5가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 8. S. Corporation의 세금 보고

일반 회계년도를 갖는 S. Corporation은 매년 3월 15일까지 1120 S Form으로 IRS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004 Form으로 신청하면 6개월간 자동연기된다. S. Corporation은 그 shareholder에게 그 해의 Income, Loss, Credits, Deduction등이 계산된 schedule K-1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되고 shareholder는 그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Loss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상쇄하며, Income에 대하여서는 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Income tax만 부과된다.

### 9. S. Corporation의 지위상실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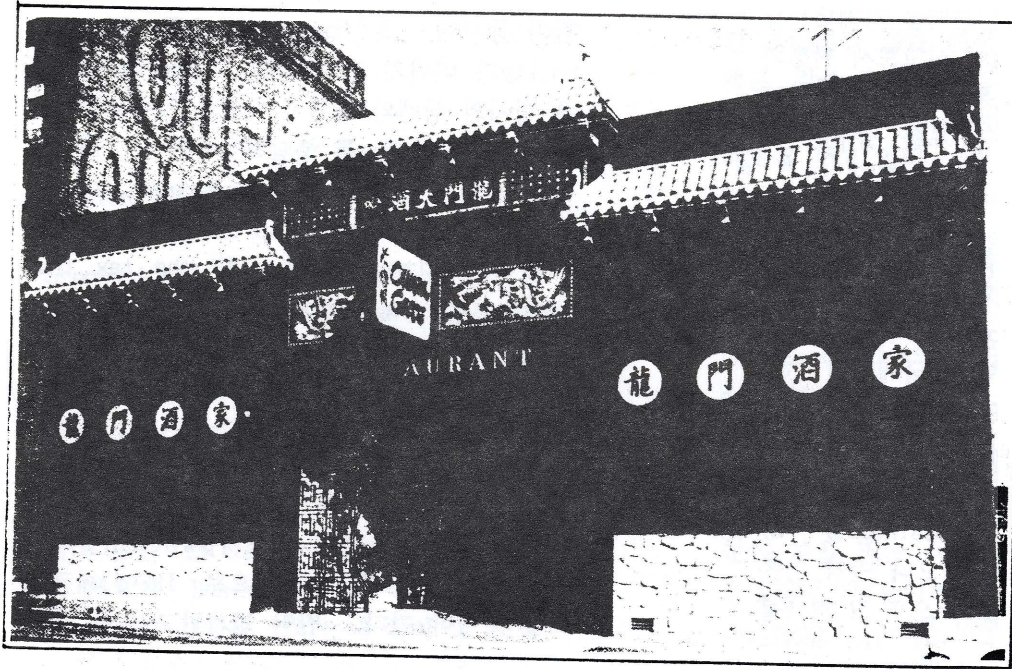
35명 이상의 shareholders를 가지게 되는 경우와 비 영주권자가 주식을 갖게 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S. Corporation의 지위가 상실되며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 지위는 종료된다.





The China Gate

龍門酒家



Live Seafood Prepared  
Chinese Style

Gourmet Chinese Dinners  
in elegant surroundings.

Banquet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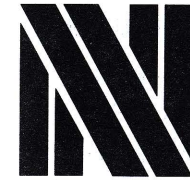
KARAOKE nightly.

We assure you a most  
pleasant and memorable  
evening.

Open 4 p.m. daily -  
Valet parking.

624-1730

Located in the Heart of Chinatown.  
516 7TH AVE. S., CHINATOWN



National  
Maintenance  
Contractors, Inc.

A better way.

National Maintenance Contractors, Inc.

11747 Northeast First Street, Suite 101  
Bellevue, Washington 98005  
Phone (206) 454-4576 FAX (206) 454-4745

A better way.

Committed to Working with Korean Businesses

- About 1/3 of National's franchises in Washington are Korean-owned.
- Our Cultural Advisory Committee includes Korean community leaders.
- National donated \$1000 to aid Korean victims of the L.A. riots.



Hyang Ki Ryu & Jae Jong Ryu  
National Maintenance Contractors  
1991 Franchise of the Year  
Portland, Oregon

Award presented by  
Lyle Graddon (l.) &  
Don Foglio (r.)

[Photo of 1991 Oregon franchise of the year]

National is committed to the continued success of all its franchisees.

We are proud to work with the Korean Association and community leaders to ensure a bright future for Korean-owned franchises and National.

무엇이든 다시하고픈 9월

무엇이든 시작하면 될 것만 같은 9월  
뚜렷한 사계절에 하늘복 받은 이 땅  
이 9월 이 금수강산에 삶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고픈 가을의 문턱  
푸르게 자라고 무성하게 맺어가다가  
이제는 익기 시작하는 열매맺는 첫 달  
주의 교회도 새옷 입고 가을되게 하소서

더위에 지쳐 미뤄논 독실한 경건생활  
지루함에 멈추었던 아름다운 섬김의 손  
무엇이든 다시 열심과 부지런으로  
무엇이든 9월에는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파야 무엇이든 머리되는 주는 한 분 뿐  
하나님의 교회답게 민족의 파수꾼답게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침저녁 옷깃에 스며드는 선선한 가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른 신선한 성품으로  
마라톤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답게  
쉽없이 승리향해 달리게 하옵소서



## 눈과 전신 질환 (SYSTEMIC DISEASE)

안과 전문의 민 홍 기

우리의 눈이 마음의 창이라 하는것 처럼, 눈은 우리 육체의 여러가지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당뇨병, 고혈압, 결핵, 비타민 부족등, 빈혈, 뇌종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뇌막염, 알레르기성 질환, 매독 등의 성병, 기생충 질환등 수많은 전신 질환이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되는 약들로 인해 눈에 지장을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다른 전문의의 의뢰를 받아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는데, 눈검사를 해보면 질병이 어느정도 진행 되었고 언제 까지 생존할수 있는가 등에 대한 중요한 예후 진단(Prognosis)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안은 단순한 시력 측정이 아닌 생체 현미경 검사, 검안경에 의한 안전검사, 안압 측정, 형광색소, 혈관검사, 초음파에 의한 검사, 망막 기능검사, 시야 검사를 말하고 있다. 오늘은 위에 열거한 것중 많이 나타나는 몇가지만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은 선진 각국에서도 실명의 첫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당뇨병 환자의 약 50%는 이미 눈속에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망막의 소정맥 모세관 끝

에 작은 소혈관류(Neovascularization)가 나타나며 점차로 출혈, 삼출물, 혈관의 변화, 폐쇄, 부종들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시력장애가 생기고 그것이 악화되면 초자체의 출혈 그리고 망막 막리로 말미암아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인 안과진찰로 실명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좋은 예로 미국의 Lion's Club에서는 이동 진료차 등에서 혈당검사를 무료로 해주는데 그 결과가 정상치 보다 높을 경우 반드시 검진 받을 것을 충고해 줍니다.

고혈압성 망막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눈안 속의 안구검사를 하면 망막 혈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경과에 따라 동맥은 가늘게 되어 곳곳에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정맥은 충혈되어 확장 또는 폐쇄되어 곡선이 심하게 생기고 그 주위에 출혈이 생겨 시력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고혈압성 망막증 제 3기라 하는데 통계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35%가 1년 이내에, 80%가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 살아있는 혈관을 피부등을 찢지 않고 볼수 있는 곳이 오직 눈 뿐이기 때문에 눈 검사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본 안과에서는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눈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민홍기안과

민홍기 안과부속 디자인 안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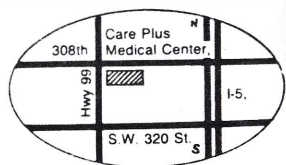
진료과목 : 녹내장, 백내장, 모든 안질, 망막정밀검사, 사시(사팔) 교정, 모든 종류의 콘택트렌즈

• 디자이너 Brand를 찾으십니까? • 경제적인 안경  
• 큰 Size의 안경을 원하십니까? • 얇고 가벼운 안경을 원하십니까?  
• 고급 Sun Glass

**(206) 941-7074**  
**1-800-439-3711**

30806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눈에 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검안이 없이도 쉽게 알수 있는 안구출성 갑상성종(Graves' Disease)은 갑상선(Tyroid Gland) 기능 항진증에 의한 것으로 눈이 튀어 나와(안구 돌출) 보이게도 이상을 느낄수 있으며 심한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을 호

소하는데, 이런 환자는 치료를 위해 내분비과(Endocrinology)로 안내하며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은 마음의 창뿐 아니라, 육체의 창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의 이상을 그냥 넘기지 않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후에 왜 척추 신경의를 보는것이 현명한가?

Dr. 오 창 익 D. C.

\* 척추 신경학(Chiropractic)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시 척추는 쉽게 전위되어(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말함) 신경에 충격을 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신경의 운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신경운동의 방해 작용은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꼭 치료되어야 한다.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척추 신경의 교정으로써 전위된 당신의 척추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

\* 척추 신경과 효과

우리의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연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교통사고시 디스크는 현 타이어처럼 튀어나오거나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디스크의 손상으로 허리나 목에 붓대를 감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척추와 그 주위의 조직들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는 CAT SCAN 이나 MRI를 통하여 디스크가 신경작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은 척추 신경의 척추 교정을 통해서 어떠한 약의 도움없이 건강을 다시 찾을수 있다.

\* 척추 신경과 교통사고

교통사고후에 얼마나 빠른 효과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결정된다. 빠른 치료의 효과는 정해진 Appointments(약속)을 지킴으로 얻을수 있으며 치료를 거르는 것은 교

통사고 후의 부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고시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작은 사고라 할지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사실상 접질렸다는 것은 근육 파열이나 인대 파열을 의미하며 회복후에도 많은 섬유 조직을 형성하여 경미한 통증을 수반한 사고가 몇년후에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50%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5년후에도 사고로인한 후유증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 척추 신경학과 건강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시간까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체는 휴식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항상 활동하고 있다. 우리몸의 세포들은 끊임 없이 죽어가면서 건강한 새로운 세포들로 교환된다. 실제로 매 일분 간격으로 250만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들로 대체된다. 그러므로, 건강은 몸의 세포들과 조직들의 정상적이고 철저한 대체능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작은 우주를 사람 인체내에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한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교육받은 결과로 생긴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며 이 능력은 생명, 또는 생명의 힘으로 표현되며 항상 우리의 신체



의 일부분을 재조성 하거나 또는 새로운 세포 내지는 조직들을 창조한다.

이러한 능력이 최대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힘이 몸 전체에 있는 각 세포 또는 조직까지 장애없이 흘러야하며 이 생명의 힘의 매개체는 바로 두뇌와 척추의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 신경계이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방해 받지 않고 몸 각 부분에 생명력을 전달 하여야 하며 방해가 일어날 경우 몸은 위에서 말한 대체 작용을 서서히 잃기 시작하며 결국은 병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방해현상은 과연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러한 방해현상은 주로 척추전이(Vertebral Subluxation)라는 것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람의 척추는 모두 25개의 움직일 수 있는 관절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척추 사이로 2쌍씩 척추신경이 나와 인체의 각 부분으로 가지를 뻗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척추전이라 함은 척추골 중의 하나 또는 여러개가 위, 또는 아래 척추골과 상관하여 제자리에서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한다.

척추전의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로, 육체적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등 사고에 의한 것에서부터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육긴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까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한 예로서 아기 출생시 40 - 60 파운드의 압박이 척추에 가해진다.

두번째로 화학적 스트레스로, 작게는 설탕이나 지방분을 과다하게 섭취함으로 인하여 크게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공해까지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인체의 화학적인 균형을 깨뜨리며 근육과 인대의 평형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척추전을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질 경우 신체내의 근육과 인대들을 긴장시키면서 평형을 깨뜨린다.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가 많아질때 목뒤를 주무르고 기지개를 편 경험이 있을줄로 믿는다.

그러면, 위와 같은 것들을 척추 신경의들은 어

떻게 진료하는가? 척추신경학의 그리스 원어를 살펴보면 손이라는 뜻의 Chiro 와 행하여짐이라는 말의 Practicus 와 합하여져 생긴말로 글자 그대로 손으로 약과 수술에 의하지 않고 진료를 행함을 의미한다.

척추신경의들은 증상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증상이 오는 원인 즉, 척추전이에 초점을 맞추어 척추를 인체공학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교정에 힘쓰며 몸에 있는 신경계방해 즉, 척추전을 제거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우리 몸에 증상이 올때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다고 말할 때가 많으나 실제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질병 자체는 증상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생명력의 전달과정과 방해로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은 조직파괴가 될때까지 증상 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증상은 우리몸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약등을 복용하여 증상만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관리에 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나 신체의 치유는 사실상 약이나 수술에 의하여 치료한다 할지라도 치유나 회복자체는 인체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우리가 손가락을 베면 약을 바르지 않고도 상처는 아문다. 척추신경의들은 이러한 치유현상이 인체내의 하나님께서 부여한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원인치료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믿고 시술하며 많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발명왕 '에디슨'의 말을 인용하며 많은 질병으로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척추진단을 받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모든 질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척추를 살펴야 한다." - 히포크라테스 -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지 않고 인간의 골격구조를 치유하고 영양섭취법과 질병의 근본원인을 예방하는데 주의하게 할것이다."

- 토마스 에디슨 -



# 仁泰中國漢醫院

## 포트랜드 오레곤에서

### 신비의 한의사

## 동건성 (董建成) 박사님

### 증세 (전문치료)

- (1)몸이 무겁고 피곤이 많고 기력이 없는분
- (2)식은땀이 나며 체력 약해지는분
- (3)살이 빠지고 허약해 지는분
- (4)산후에 몸이 허약해 지고 신경통이 생긴분
- (5)수술·타박상·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분
- (6)정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많이 오는분
- (7)변에 피가 섞여나오며 설사가 있는분
- (8)얼굴에 기미가 끼면서 혈색이 나빠지는분
- (9)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긴분
- (10)만성위장병·위염·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분
- (11)식욕이 없고 배에 개스가 차는분
- (12)입냄새나 몸의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은분
- (13)간염·황달·간장병·간경화증이 있는분
- (14)수족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 나는분
- (15)등·어깨·옆구리에 담이 많이 걸리는분
- (16)치료가 안되고 오래 계속되는분
- (17)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많이 차는분
- (18)시력이 나빠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분
- (19)불안·초조·심장병으로 고통받는분
- (20)기억력과 정신력이 상실되시는분
- (21)기관지·폐염·기침·천식이 있는분
- (22)중풍·안면마비·사지마비가 치료가 안되는분
- (23)유산이 잘되든가 임신이 안되는분
- (24)생리통·생리불순·생리가 없는분
- (25)소변이 자주나오고 오줌소태가 생긴분
- (26)자주 살이 끼고 비만이 생기는분
- (27)만성두통·만성빈혈로 고생하시는분
- (28)만성피부병·습진으로 완치가 안되는분
- (29)여드름·딸기코때문에 고민이신분
- (30)잇몸에서 피가 계속나오는분
- (31)늑막염으로 근치가 안되는분
- (32)밥도 잘안먹고 허약해져가는 어린이
- (33)얼굴·수족·몸이 붓는분
- (34)당뇨병·신경통·관절염이 있는분
- (35)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자는분

**기타 난치병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무좀特效약과 각종피부염, 습진에 잘드는 특효연고도 있습니다.**

예약은 꼭 포트랜드로 예약하십시오. (503)228-3235



## 90년대의 산부인과진료

산부인과 전문의 노명재

내가 이곳 Seattle 근교인 Federal Way 에 자리를 잡은지가 벌써 16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한인 교포 환자분을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산부인과라는 의학계의 많은 발전 변화상을 보면서 나의 조그만 관찰을 적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인회에 감사를 드린다.

내가 서울 중학 1학년때 내 친할머니께서 자궁암으로 무척 고생을 하시다가 한약, 침, 뜸등은 가족의 정성도 소용없이 몹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다. 나중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자궁경부암이었다는 것과 결국 오래전 작고하신 할아버지께서 여러해에 걸친 여색 행각으로 인하여 할머니께 몹쓸 Virus 균을 옮겨다주어 자궁경부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가슴 아파 했었다. 그때만 해도 자궁암 조기 검사 (소위 Pap Smear)가 보편화 되지 않아서 많은 여자들이 자궁경부암의 희생물이 되었었다. 요즘은 한국 의학도 선진국에 못지 않아서 최소 1년에 한번은 Pap Smear를 받아야 된다는 상식이 보편화되었고 한국에선 워낙 B형 간염이 흔해서 여기에 대한 면역주사도 많은 분들이 벌써 받았음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다.

백인 여성들은 유방암이 흔해서 여자 9 - 10명 중 한명이 유방암을 일으켜 조기 진단을 위해 Breast Self Exam. 을 강조하고 또 유방 X-Ray (Mammogram)도 나이 35세가 넘으면 규칙적으로 찍기 시작해서 40대에서는 1 - 2년마다 한번 50대 이후에서는 1년에 한번씩 사진을 찍어 만일에 유방암이 생기면 미리 미리 찾아내서 완치를 할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양계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율이 훨씬 적으나 미국에 이민 온지가 여러해가 지나 음식물이 많이 서양화 된 경우 백인 여성들처럼 유방암 발생율이 꽤 증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갱년기가 넘어 여성 Hormone(-Estrogen)을 섭취하는 경우 혹은 유방암 발생율이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Estrogen을 섭취하시

는 분들은 꼭 유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할줄로 생각 된다.

요즘은 여러 질병이 쉽게 Control 되고 혹은 Diet 등으로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갱년기 이후에도 수십여년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Quality of life 를 증진시켜 인생을 건강속에서 즐겨 살수 있는지를 알아 두어야 한다. 갱년기(Menopause)는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연령 45 - 50세에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노쇠현상으로 난소에서 더이상 여성 Hormone 의 분비를 충분히 못 해주어 여러가지 불쾌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갑자기 온몸이 불같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밤이면 불면증, 두통 등으로 고생하고 가슴이 놀란 토끼 모양으로 두방망이 치며, 우울증, 성욕감퇴등 여러가지 변화가 오게 된다.

이런 불쾌한 증세들은 시간이 가면 서서히 없어지지만 뼈의 속이 비어가면서 키가 작아지고 허리가 꾸불어 들며 겨울에 낙상하면 다리뼈, 골반뼈등이 쉽게 부러져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또 더 나이가 들면 50 - 60대의 남자들 처럼 심장의 동맥경화증으로 심장마비가 쉽게 오는것이 갱년기 이후의 노쇠현상이다. 이 모든 증상들이 몸에서 여성 Hormone 이 말라 버리기 때문에 오는 이유로, Estrogen 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만 하면 앞에 열거한 모든 노쇠현상을 거의 다 막아주거나 지연시킬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Estrogen 이 이렇게 만병 통치약 격으로 좋은 점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의사의 지시 감독없이 계속 복용하는 경우 자궁내 점막에서 암이 생기거나, 유방암이 생길 확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꼭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서 섭취해 그 많은 좋은 점을 이용해서 마치 불노초와 같은 약효를 즐길수 있어야 겠다.

또 90 년대의 의학계의 발전이라면, 개복수술을 가능한 한 피하고 종래의 모든 문제를 복강경 수술로 해결해서 환자측에서는 빨리 회복하고, 병원 입원비를 줄이자는 경향이다. 종래의 자궁내 임신, 불임증 수술, 맹장염, 자궁 절제 수술, 난소 제거수술, 당낭 절제수술 등이 이

제는 거의 모두 배를 크게 가르지 않고도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해 환자측에서 보면 큰 이득이 아닐수 없다.

이것이 의료 기구의 발전과 의사의 수술 기술의 향상에 따른 것인데, 특히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기술을 항상 제때에 배우고 익히지 못하는 의사는 이런 현대식 수술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현재로는 암 수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80% 이상에서 개복을 피하고 복강경으로 해결이 되는 상태인 만큼 환자분들은 새 자동차를 살때 몇 군데 딜러를 Check 해보고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차를 구입하듯이 큰 수술을 앞에 놓고서 자기 의사가 가장 현대적이고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수술을 계획하는지를 따져 보고 자기 몸을 맡겨야 될줄로 생각된다.

## 구입하시기 전에 비교하여 보십시오.

제가 귀하에게 보험료를 절약하여 드릴수도 있습니다.

- 생명
- 주택
- 자동차/보우트/여행용자동차
- 사업체
- 단체건강

Leave it to The Good Hands People.



류 창 명

12708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Allstate**

Allstate Insurance Company  
Allstate Life Insurance Company  
Northbrook, Illinois

Business (206) 362-2692  
Res 672-7884



山 本

Cocktail Lounge  
Japanese Cuisine

## CBS-T.V.도 감탄!!

CBS KIRO T.V.가 83년9월7일과 84년 7월9일 두번에 걸쳐 뉴스시간에 장장 5분간씩 소개한 일식요리사 양계연씨가 직접운영.

### 한식·일식

산본정식  
차돌구이  
불낙  
회덮밥  
복매운탕  
신정전골  
모듬내장탕  
장어구이

아라다끼  
오마까셀  
가이세끼  
하찌모리  
스시  
사시미  
꼬치  
히레사께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최고의 시선과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 Open 7 Days A Week, 11am - 2am \*

1721 W. Meeker St.

850-8154





(206) 839-7900  
강물리지압원

- 교통사고 후유증,
- 직장상해, 운동상해로 인한
- 각종근육통.



**강** MUSCULAR THERAPY ASSOC.

Professional Licensed Massage Practitioners. Recommended By Many Local Doctors

- \* SPECIFIC INJURY TREATMENT
- \* DEEP TISSUE
- \* SHIATSU
- \* SPORTS MASSAGE
- \* SWEDISH: STRESS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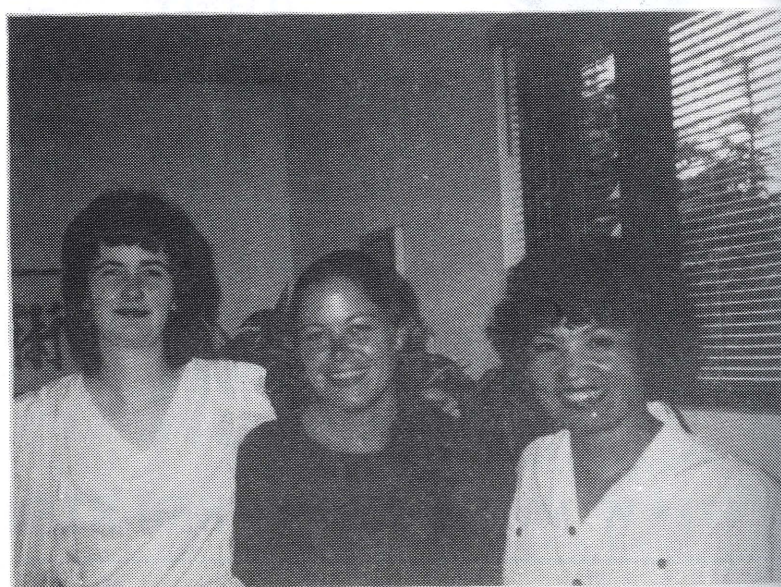


SPECIALIZING IN SOFT TISSUE INJURIES

각종 자동차 보험 커버  
직장 보험 커버  
PIP, PI Claims, Labor & Industry Claims

\* 예약: MONDAY - FRIDAY 9 AM-7 PM  
SATURDAY 9 AM-1 PM

(Lakeview Professional Bldg.)  
30819 14th Ave. So. Suite G,  
Federal Way, WA 98003



여름철 피부질환

조원제 (피부과 의사)

여름철을 맞아 남성들에게 흔히 생기는 피부질환과 여성들이 고민하는 피부 증세를 한가지 소개하겠다.

1) 곰팡이에 의한 피부 증세 (소위 습진이 라고 잘못 알려진 남자들의 피부 증세)

피부에 발생하는 곰팡이에 의한 증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에나 나타날 수 있다. 남성들에 있어서 더운 여름철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곰팡이 증세는 사타구니와 엉덩이 주위에 생기는 것들이다. 대개 이 증세를 습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습진이란 것은 세균이나 곰팡이균과 같은 어떤 병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과민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증세를 가리키는데 무조건 습진에 바르면 된다는 한국계 연고를 구하여 바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된

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경우 처음엔 습진에 사용되는 연고를 바르면 증세가 좋아지고 가려움증이 호전 되다가 얼마 후에는 더 넓게 자리를 잡으면서 가려움증과 함께 부위가 확산되어 가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렇게 곰팡이에 의한 피부 증세를 습진에 쓰는 연고제로 잘못 치료를 하게 되므로써 오히려 증세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짐작으로 연고를 사용한다는 것은 금해야겠다. 이와같은 남자들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에 생기는 이유는 더운 날씨에 땀에 젖은 내의를 오랫동안 입고 있거나, 땀이 난 후 빨리 비누로 씻어내지 못할 때 적은 숫자의 곰팡이는 좋은 조건 즉, 습도, 온도가 적당하므로 번식하여 피부병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땀날 정도의 일이나 운동을 했을 경우 빨리 비누로 샤워하며 젖은 옷을 빨리 갈아 입는 것이 좋겠고, 처음 증세가 가볍게 시작한 경우에는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TINACTIN 혹은 CREAM SPRAY, LOTRIMIN 연고 등으로 치료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먹는 처방약을 함께 복용해야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앞을보는 투자안내, 정확한 Agent

**RE/MAX 심상준 부동산**

- 종합성 투자물건
- 모텔 · 상가 · 아파트
- 그로서리
- 식당 · 패스트푸드
- 드라이클리닝
- 1 Hour Photo Shop (대형상가내)



RE / MAX INTERNATIONAL  
긴급용전화 : 669-2533

745-3010(B) 743-3543(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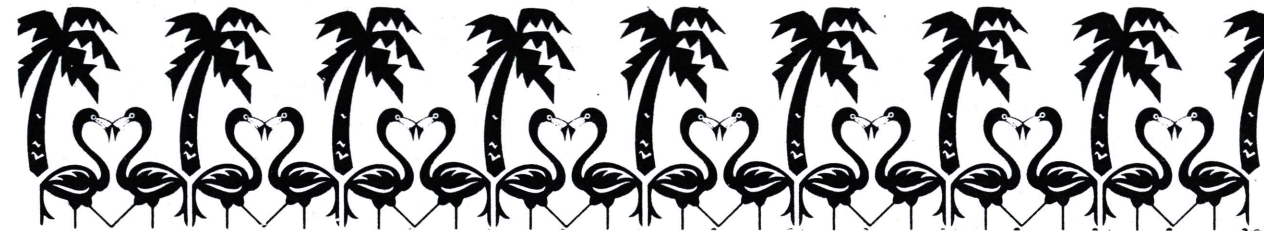
626 S.W. 128th St. Everett, WA 98204



2) 다리의 보기 흉한 실핏줄

수영장이나 일광욕을 할때는 짧은 옷을 입을 수 밖에 없으나 다리에 다소 흉한 모세 혈관이 두드러지므로 해서 짧은 옷을 입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특히 40세를 전후로 한 여자들에게 이러한 실핏줄의 확장 증세를 많이 본다. 다리에 생기는 큰 정맥이 굵어지고 비뚤어지는 정맥류는 대개 외과에서 절개하여 수술로 제거하지만, 가느다란 실핏줄의 치료하는 과정이 방송된 적이 최근 몇번 있었는데 대개 이의 치료는 주사 요법으로 한다. 머리카락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약물을 혈관 속에 주입하므로써 주사 후에 혈관 벽이 서로 붙어 굳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대

개 한쪽 다리의 혈관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된다. 아주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은 참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가느다란 혈관속에 바늘을 정확하게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달된 의사라야 할 수 있다. 주사 후 하루 정도는 다리가 얼얼하지만 곧 불편감은 사라지며 1주 내지 2주 정도면 주사 놓은 자리의 작은 멍들까지 사라지게 된다. 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다리를 노출시키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이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흉터가 남을 정도의 큰 수술을 해야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있다.



# 패스포트 여행사

## 노스시애틀본점

PASSPORT TRAVEL

(206) 483-8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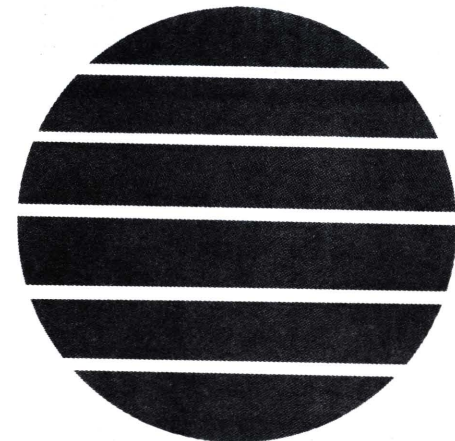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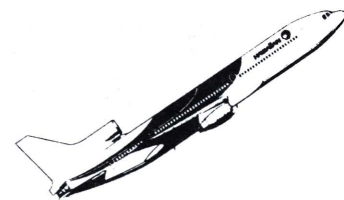
6270 N.E. Bothell Way  
Seattle, WA (태화각옆)

## 다운타운 지점

P.T.S TOURS

(206) 443-5406

2505 2nd Ave. #707  
Seattle, WA 98121



## 한인의사협회 회원 명단

### 가정의

- 김덕신 Tel: 941-7100  
31260 Pacific Hwy S. #3  
Federal Way, WA 98003
- 오형석 Group Health  
1112 S. Cushman  
Tacoma, WA 98405
- 유하성 Tel: 775-7966  
5017 196th St. SW #104  
Lynnwood, WA 98036

### 내과

- 김봉섭 Tel: 362-3361  
1471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 김순희 Tel: 542-7606  
1306 N. 175th St. #113  
Seattle, WA 98133
- 박창식 Tel: 624-5867  
(심장내과) 801 Broadway #912  
Seattle, WA 98122
- 홍재창 Tel: 952-2512, 874-5404  
34509 9th Ave. S. #201  
Federal Way, WA 98003

### 마취학

- 김영희 Hospital
- 이동립 Hospital

### 산부인과

- 김희주 Tel: 447-9271  
801 Broadway #912  
Seattle, WA 98122
- 노명재 Tel: 838-5800  
34509 9th Ave. S. #301  
Federal Way, WA 98003
- 송화섭 Tel: 581-4676  
11311 Bridgeport Way #302  
Tacoma, WA 98499
- 엄도승 Tel: 859-8371  
24837 104th Ave. SE #102  
Kent, WA 98031
- 오덕주 Tel: 627-0909  
1624 S. 'I' St. #309  
Tacoma, WA 98405

### 안과의학

- 김만기 Group Health  
200 15th. Ave. PFC-5  
Seattle, WA 98112
- 신한영 Tel: 526-1413  
4575 Sand Point Way N.E. #103  
Seattle, WA 98105

### 외과

- 오기현 Tel: 946-8093  
30819 14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응급의학

- 이형배 Madigan Army Medical Center  
Tacoma, WA

### 일반의

- 이무근 Tel: 581-4564  
11002 Pacific Hwy SW #C  
Tacoma, WA 98499
- 박종기 Tel: 588-0370  
8735 S. Tacoma Way  
Tacoma, WA 98499
- 백기완 Tel: 365-4533  
1570 N. 115th St. #16  
Seattle, WA 98133

### 정신신경과

- 김재원 Hospital
- 홍인표 Tel: 587-5747  
901 Boren Ave. #707  
Seattle, WA 98104
- 황수택 Tel: 627-6270  
2411 S. 19th St.  
Tacoma, WA 98104





# 약학상식

박혜성 (서울약국)

약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병을 방지하거나 진단, 완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정된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문지상이나 마스크를 통해 많은 종류의 병들을 퇴치할 수 있는 약을 연구해 내는 것을 볼때 약이라는 것은 과학이 낳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잘못 사용하면 복용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약을 복용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약을 살 때 (처방약이나, 일반 비처방약)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적절한 비타민의 복용법 등을 적어보고자 한다.

\* 첫째 약 복용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지만 항상 기억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그 약의 효과를 최대한 볼수 있다.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의 병명(예를들어 당뇨병, 고혈압, 신경성 질환, 위장염...)을 정확히 알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의 약명이나 용량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의사를 바꿀때 전에 사용하던 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사에게 알려주면 훨씬 진찰이 쉬워지고 환자 본인에게 무리가 오지않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처방 받으실 수 있다. 또한 과거 자신의 병의 내력이나, 약의 내력도 중요하지만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에 대하여서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약에 대한 알러지는 그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알수 없고 혹시라도 처음 약 복용시 이상한 증상(발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그 약이 무엇인지 알아두어 다음에는 복용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약의 효과를 보려면 그 약을 복용하라는 횟수대로 (하루 한번, 두번 또는 매 4시간, 6시간 마다...) 잊지말고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약을 잊지않고 복용하려면 항상 활동하는 장소에(침대머리, 식탁) 약을 두든지 아니면 약을 일일용 약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약마다 유의 사항이 있는 약이 있다. 가령 식후나 식전에 복용하여야 한다든지, 약 복용후 물을 들여야 한다든지, 햇볕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밖의 외출시에는 Sun Screen을 바른든지 등의 주의 사항이

있으면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약 복용시 피해야 하는 음식물이나 다른 비 처방약들은 꼭 확인하여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은 얼마동안이나 그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그 기간전이나 훨씬 후까지 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항생제 계통의 약들의 효과는 2-3일 후나 그 전에도 볼수 있으나 7-10일 동안을 꼭 복용하여야 다시 그 균에 의한 병의 재발을 막을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계속 약을 오래 복용하면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한다.

\* 둘째로 약을 살때 다음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그 병에 합당한 약을 손쉽게 싸게 살수 있다. 우선 처방약을 살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본인이 쓴값에 똑같은 성분의 약을 구할 수 있는지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약은 Generic과 Brand로 나누어지는데 같은 화학성분과 같은 치료의 효과 (Therapeutic Index)를 가지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다른 회사에서 각각 만들어 내어 많은 값 차이가 나므로 항상 약 구입시 그 처방의 약이 Generic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 사면 돈을 적게 들고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Generic이 안맞고 Brand만 맞을 수 있고 또 의사가 환자에게 Brand를 처방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Generic만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험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도 돈 내는 것이 약에 따라 틀리므로 항상 같은 Co-pay 일 수는 없을 것이다. 병이 낫을 때 약을 알맞게 쓰면 아픔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상세히 약사에게 설명하여 우선 비처방약으로 복용할 수 있다. 약이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같은 감기라도 콧물, 기침, 가래, 열 등이 같이 나는 몸살 감기인지, 가래만 끊는지, 목감기 인지, 알러지와 섞인 감기 인지를 자세히 알면 거기에 맞는 약을 우선 처방없이 사서 복용하여 보고 몇일이 지나도 효과가 없으면 병원에 가야 될 것이다. 여러 증상에 쓸수 있는 비처방약들도 많으므로 우선 병원에 가기 힘들면 약국에 전화하여 문의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각 약마다 생길수 있는 부작용(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등을 알아두어 그런 증상이 생길 즉시 약을 중단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마지막으로 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약을 몸에 해로운 존재로 취급하듯 비타민도 약과 같이 취급하여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쁘고 피곤한 생활속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생활이 안 맞거나 시간이 없어서 고루 영양 섭취를 할수 없는 우리로서는 몸 부분과 부분에서 각기 자기의 역할로 몸에 힘을 주는 비타민을 섭취하여 덜 피곤하고 덜 힘든, 덜 스트레스 쌓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피부가 너무 나쁘거나 - Ace., 당이 있거나 - Chromium, 빈혈이 심하거나 - B12, 철분...) 같이 곁들여 복용할수 있다. 그리고 항상 복용하라는 지시대로 섭취하고 될수 있으면 식사후에 복용하는 것이 위에 부담이 적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가 단시일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1-2달이 지나거나 빠르면

몇주후에도 자기몸의 상태가 바뀐것을 느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맞는 비타민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후 이상증세 (구토, 발진...) 등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약사나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이상의 사항들을 간단히 알아 두면 약 구입시나, 복용시 편리한 내용들을 적어 보았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의 근본은 건강한 정신생활에 있다.

## 서울약국 SEOUL PHARMACY

- 귀국선물·비타민영양제·각종처방약  
각종화장품
- 중국·일본·한국약 일절  
(처방이 필요없는약)
- 우편·전화 약주문시 우편발송  
전화: (206)946-3968  
(206)927-7222 (H)
- 영업시간: 월~금 오전 09:00 ~ 오후 8:00  
토 오전 10:00 ~ 오후 5:00
- 31220 Pacific Hwy S, Suite #6 Federal Way, WA 98003
- 여행자 환영
- 브레인 프레스  
(뇌기억력 재생 뇌영양제)
- 알부민
- 알로에베라 약품 및 화장품
- \* 휠체어, 지팡이등 의료장비
- 약사: 박해성



## WE ♥♥ SONGS & 핑크

# 웨 미 리 핑크 레스토랑

전화 : (206) 528-0328

- 상추쌈백반
- 모밀국수
- 해물전골
- 열무김치냉면
- 설렁탕
- 선지국
- 육계장
- 갈비
- 돈가스
- 함박스테크
- 오무라이스
- 각종 카레

\* 150명 수용 단체 연회석 완비

- 한식·경양식
- 카레 전문집
- 일-목  
오전 11:30-새벽 2:00  
금-토  
오후 12:00-새벽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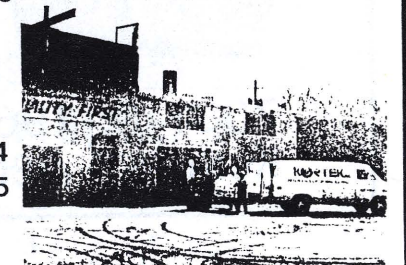
## SUPPLY HANGER KORTEX (CHEMICAL)

# HYUNDAI-KORTEK 현대 K

- 취급품목
- \* HANGER(한국에서 직접 생산)
- \* CHEMICAL(직접 생산)
- \* POLY BAG(다양한 사이즈)
- \* ALTERATION SUPPLY
- \* ALL SUPPLY(다양한 품목, 다양한 사이즈)
- \* ANY SIZE, ANY COLOR PRINTING
- 특징: 1) CHEMICAL - 전 품목 직접생산  
2) HANGER - 한국에서 직접생산
- \*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져 합니다.

HEAD OFFICE  
Tel : (312) 287-0500  
Fax : (312) 287-0215  
5101 W. Lake St.  
Chicago, IL 60644

CLARK OFFICE  
Tel : (312) 334-0404  
Fax : (312) 334-1685  
4547 N. Clark  
Chicago, IL 60640







# 오창익 척추 신경원

OH FAMILY CHIROPRACTIC CENTER

- \* 워싱턴주 면허소지
- \* 캘리포니아주 면허소지
- \* Member Washington State Chiropractic Association
- \* Member International Chiropractic Association



## 진료과목

- 각종 사고로 인한 척추신경장애
- 각종 근육통과 관절통(목, 어깨, 허리, 손, 발 등)
- 각종 신경성 내장장애 및 만성염
- 지체 및 보행장애, 관절염 등 치료
- 디스크, 각종 척추장애

## ※ 각종 의료보험 취급

- 개인, 가족 및 단체보험, 메디케어
- 자동차 의료보험
- 직장 상해보험



진료시간: 월-금 (9시 - 6시30분)  
토요일 (10시 - 12시)  
(예약에 한함)

2020 S. 320th St. #L, Federal Way, WA 98003  
**(206) 946-4618**

## 위암에 대하여

오기현 의사 Ki Hyun Oh MD, FACS.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암으로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볼수 있다. 암이란 아직까지 불치의 병으로써,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수없이 빼앗아 가고 있다. 지난날 한 젊은이가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한없이 무력한 나 자신을 발견할수 밖에 없었다. 또 한분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소화기 안되고 배가불러 온다고 찾아 왔다. 그러나 이미 암은 몸 전체로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였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위암의 위험성이 많은 민족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더욱 더 불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민 1세의 숨가쁜 나날을 살아가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할애 할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건강할때 조금만 더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더 큰 불행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하여 여기에 암의 발견과 치료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위암이 그리 흔하지 않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과 흑인한테 많으며, 암으로 죽는 원인중 7번째로 흔한 질병이다. 일본에서는 위암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암중에 속하며 환자중 25%는 50세 미만에 생긴다.

아직까지 위암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된 원인으로는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을 들수 있다. 유전적 원인으로는 가계에 위암의 병력이 있는 사람과 혈액형 A형을 들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역적 요인 (Chile, Japan Island에 많음), 음식(Smoked Fish) 등을 들수 있다. 또한 위암은 위염으로 인해 위점막 세포가 변형된 사람한테 많으며, 위궤양은 위암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많은 위궤양에도 발견되지 않은 위암이 위궤양 밑에 존재하고있다. 초기의 암은 대개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환자나 의사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많다. 또한 증상도



OLYMPIC  
CLEANING EQUIPMENT CO.

## 오직 하나뿐인 FORENTA 공식 딜러!

Single Back	Press	V/C Machine	Boiler

7031 S. 196th Bay #6  
Kent WA 98032

전화: (206) 872-6553

##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에게...

# CENTURY 부동산



대표 Broker  
윤상인(Sam Yun)  
941-1866

- 주택전문부
- 모텔 아파트 샤피센터
- 사업체전문부
- 기타용자 일체 취급합니다
- ESCROW(에스크로) 전문부
- 투자성 토지

가장 오랜 경험과 신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재산증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206) 763-4989(Sea)  
(206) 952-1115(Tac)  
FAX (206) 767-3676

1200 So. ANGELO ST. #C (한인회관 内)  
Seattle, WA 98108



암이 어떤 부위에서 일어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암의 초기발견이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증상이 발견된 암은 대부분 많이 진전된 암으로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평소보다 뱃배가 많이 부른 것을 느끼거나, 혹은 경미한 통증을 느끼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 의사를 찾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복통, 식욕감퇴, 쉽게 지침, 까만 대변, 그리고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으며, 말기 증상으로서, 체중감소, 배에서 암이 만져짐이 있다. 또한 암전이에 의한 증상으로는 간비대증, 황달, 복수증, 피부종양, 그리고 골절등이 있다.

암환자 중 많은 사람이 전혀 증상이 없다가 암의 전이에 의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위암을 silent tumor (조용한 암)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위암의 빈도가 줄고 있는데, 그 큰 이유는 위내시경에 의한 초기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매 6개월마다 위내시경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 한국사람은 일본사람과 똑같은 위암발생 빈도를 갖고 있다고 보며, 매 6개월은 힘들더라도 매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특히 40세 이상 되는 분들께 권장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는데, 아주 편하게 그리고 통증없이 할 수 있으므로 별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바쁘고 짜증스러운 이민생활에 병마져 생긴다면 환자 자신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아 있는 가족에게도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가족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시민권의 의의

시민권강좌 김 영희 교수  
우리가 새롭고 좀 더 나은 삶을 가지기 위하여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며, 더욱 피부 색깔도 다른 낯선 이 미국에서 자리잡고 살려면 터전을 만들어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다지고 젊은이들과 2세대에게도 미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전통문화가 있고 노력과 끈기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왔으니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고 토대를 만들어서 일등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하는데에 빠른길은 시민권 획득에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에 대한 공부부터 해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쓰고, 읽고, 간단한 의사소통과 미국역사와 헌법, 정치제도에 대한 질의 입니다.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로 피부로 느끼는 인권침해를 물리칠 수 있고, 둘째로 미국에서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며, 셋째로 2세대에게 잘 자라도록 뿌리를 튼튼히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 이 나라에서 영주를 하시려면 시민권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모든 권리 행사가 이루어 집니다.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도 보다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준비를 위한 교육을 할 때 가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은 부모 형제 초청에 큰 도움이 되고 모국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그 말도 좋은 뜻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권의 의의는 투표권에 있으며 내 투표권 행사는 제 2세대의 장래에 희망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공평한 대우를 받고자 터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권리의 향유이며 몇몇한 국민된 도리로써 의사 표시가 됩니다. 미국은 참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이 단순히 목마른 곳에 샘물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 동기간을 이 나라에 초청하는 등의 일로서만이 아닌 이 나라의 국민으로 거듭 태어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조국에 큰힘이 되어질 수 있는데 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페드럴웨이 명문

# 양 반 집

새벽 2 시까지 Open

가라오께시설 완비

- 한정식 일절 전문
- 토속적 한국음식
- 처가집 매운 양념통닭
- 보쌈
- 맛깔있고 정결한 밑반찬

**946-8795**

1706 S. 320th St.  
Federal way



## Pacific Funding Group, Inc.

Commercial and Residential  
Real Estate Mortgage

- Best Rates
- Purchases/Refinances
  - Adjustable/Fixed Mortgages
  - 1st and 2nd Mortgages
  - Conforming/Non-Conforming
  - Conventional/Non-Conventional

For more information:

(206) 633-6144  
(206) 994-2078 (Voice)  
(206) 527-4989 (FAX)





## 지금이 과연 투자 적정기 인가?

CENTURY 부동산 윤상인

부푼 꿈을 안고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한국인들에게 두가지의 커다란 꿈이 있다고 하면 성공적인 자녀교육과 경제적 안정을 빼 놓을수 없을 것이다. 물설고 낮은 이땅에서 영어와 생활사회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 이제 한국 이민사도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다.

조선의 공산주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더더욱 기승을 부리며 인간 사회속에 만행될 터인데 온갖 고난과 가난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 왔던 한국 교포들에게 이곳 미국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제는 조속한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조속한 부의 축적, 그 지름길은 다름아닌 '시기에 맞는 부동산 투자' 라고 결론을 지어 본다.

중동전쟁과 냉전이 종식을 고향으로서 이제 온 세계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부를 자랑하던 미국도 이제는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BUSH 행정부는 재선을 위한 온갖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실업자의 수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 30년 이래 최저의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지금 아직 확실한 경기회복 전망이 어둡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기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불경기가 풀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도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각종 금융기관의 BAD LOAN 때문에 금융계가 어수선하지만 CASH FLOW가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부동산을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BUYER'S MARKET) 구입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을 싸게 구입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LOAN을 얻지 않고 SELLER CONTRACT 로도 가능한 것이 많아서 위치가 좋고 신실한 건물들 (상가나 아파트, 창고용건물) 찾아서 LOAN PAYMENT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명한 투자를 권유하고 싶다.

신규주택의 건축부진으로 아파트 RENT 가 많이 상승 되었고 이곳 워싱턴주의 비교적 안정된 경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타지역으로 부터 유입되어 오는 관계로 주택과 아파트 수요가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RENT를 올릴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함이 현명한 투자가 되겠다. 이 곳의 평균 주택 가격이 동부나 L.A. 지역보다 아직도 월등히 낮은 관계로 주택도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함이 현명한 때이다. 보험회사의 감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비교적 많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군의 주둔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경기전망은 아직도 밝다 할수가 있다.

부동산에 투자 하려면 어느 정도 투기성을 감안 해야 함으로싼 값으로 또 좋은 조건으로 잘 구입해 관리하다가 다시 BOOM이 일어날 때에 매각 처분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길수가 있는 것이다. SMALL BUSINESS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어 권리금이 계속 치솟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이 뻔한 사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체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수요가 많은 까닭에 어쩔수 없이 빛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희망 하시는 분은 능력 있는 부동산 AGENT 를 만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현명한 결단을 내려서 이민 역사의 꿈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를 바램하는 것 입니다.

### 명동칼국수

MYUNG DONG KALKUKSU  
ORIENTAL RESTAURANT

"Specializing in Teriyaki To Go"

**OPENING HOUR**  
11:00 AM-10:00 PM

Closed Monday

31407 Pacific Hwy. S. (#E)  
Federal Way, WA 98003
(206) 839-2331

# TTI

LONG DISTANCE

장거리 전화 회사  
16301 N.E. 8th St. Suite 208 Bellevue, WA 98003  
Seattle Tel. (206)441-4993. FAX (206)747-1556  
Bellevue Tel. (206)747-1718  
1-800-288-4993

## TTI 통신공사는 교포 여러분의 전화 회사 입니다.

TTI 통신공사는  
획기적인 좋은점이 있습니다.

TTI 통신공사는

1. 순수 우리말로 서비스 해 드립니다.
2. 전화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3. 새로 이사 오시는 분에게 보증금 없이 가입 신청 해 드립니다.
4.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5. 가까운 장거리(1-206)도 TTI가 싼요금으로 서비스 해 드립니다.
6. TTI는 거리에 관계없이 1분에 20센트 요금을 적용하지만 다른회사는 Mileage로 사용료를 적용하므로 큰 차이가 납니다.
7. TTI에 가입하셨다가 만족하지 않으시면 즉시 옮겨 드립니다.

### ※ 전화 사용방법

1-206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습니다.

○ 한 국 : 011-82X-전화번호

○ 다른주 : 1-지역번호-전화번호

워싱턴주내 장거리 1-206은  
1-700으로 바꾸어 사용하십시오.



TTI 통신공사는  
지출을 줄여 줍니다.

요금대비표

(1-206 지역)

TIME	TTI	GTE, US WEST	절약
1분사용시	\$0.18	\$0.29	38%

(Seattle-LA)

TIME	TTI	AT & T, MCI	절약
10분사용	\$2.00	\$2.39	17%

(한국)

TIME	TTI	MCI	AT & T	절약
2pm-8pm	\$3.29/\$1.19	\$3.64/\$1.35	\$3.68/\$1.37	13.5%
8pm-3am	\$2.65/\$0.95	\$2.77/\$1.02	\$2.80/\$1.04	8.5%
3am-2pm	\$2.25/\$0.85	\$2.37/\$0.88	\$2.38/\$0.89	5%

### ※ Oriental Express

기본료 월 \$3.00에 \$0.77/분 적용  
(월~금 10pm-2pm과 토~일 24시간)  
한국, 홍콩, 일본등 아시아 지역에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은  
Oriental Express에 가입하여  
통화료를 절약하십시오.



# 저달을 베어 내 마음 만들고자

김성중

.....는 없고 눈치는 보이고 한심한 지경에 도  
달한 심지로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니  
눈물이 절로 나와 많이도 울었었지. 그 보름  
달빛은 몹시 차가웠었다. 이백은 월하독작으로  
시를 읊으며 고독을 이겼지만 나는 시와도  
멀으니 냉수나 마셔볼까

月下獨酌(월하독작)

花間一壺酒(화간일호주) 꽃사이에 잔 채워 들고  
獨酌無相親(독작무상친) 함께 마실 이 없어  
舉杯敬明月(거배격명월) 잔 들어 달 청하니  
對影成三人(대영성삼인) 그림자까지 셋이로다  
月既不解飲(월기불해음) 달은 술을 즐길 줄 모르고  
影徒守我身(영도수아신) 그림자도 내 뒤만 따를  
뿐이다 (취했을 때 만이 동반이 있고 깬 후에는  
각기 다 흩어져 버림은 곧 세상에 하나의 지기도  
없음을 얘기 한 것이리라)

暫伴日將影(잠반일장영) 잠시 너희와 더불어  
行樂須及春(행락수급춘)봄날 밤을 즐겨 볼수 밖에  
我歌月徘徊(아가월배회) 내가 노래하니

달도 서성이고

我舞影零亂(아무영영란) 내가 춤추니 그림자도  
어우러져

醒時同交歡(성시동교환) 이렇게 함께 놀다가  
醉後各分散(취후각분산) 취하면 각기 흩어지네  
永結無情遊(영결무정유) 너희와 영원한 우정맺어  
相期邈雲漢(상기막운한) 이젠 아득한 운하에서  
만나 봄세

(서로 아득한 운하에서 만나기를 약정함은 곧  
이백(701-762)이 신선되어 천상에 노닐는 것을 구  
함이다)

전편적으로 취한듯 하면서도 맑게 깨어있다. 우주  
의 대자연속에서 자기의 실상과 영상이 벗되어 고  
독을 이겨내고 즐거움을 창조하고 지속시켜 갔으  
니 어찌 쓸쓸했다고 하리오.

사계 김장생(1548-1631)께서는 송익필의 예학을  
전수받아 이이의 성리학을 배웠고 예론을 깊이 연  
구하여 조선예학의 태두로서 예학파의 주류를 이

루어 송시열 송준길등 유학자들을 문하에서 배출  
시키고 슬하에 아홉 아드님을 두시고 번족한 가정  
을 이루셨으나 자식들이 다 자라서 자기 갈곳으로  
흩어지니 혼자일수 밖에. 문계구름이 부끄러 오르  
는 여름 오후에 혼자 정자안에서 그 숨덩이 구름  
을 바라보며 홀로 고독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자작시를 읊으며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  
다.

대 심어 울울하고 솔 심어 정자 로다  
백운 덮인곳에 날 있는 줄 그 뉘 알리  
정반에 학 배회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월하독작의 배경과 분위기가 비슷하니 잠시 이백  
이 되어 고독을 달래는 삼언시로 옮겨 읊으셨을  
것이다.

월하독작에서 雲漢(운한)이 나오고 있고, 사계의  
시에서 竹松鶴(죽송학)을 벗한 배경 또한 白雲(백  
운), 즉 백운덮인 곳에 나는 대낮에 떠 있는 반달  
일 것이니 시는 달과 연관되는 모양이다. 옥중에  
서 쓴 만해의 月明夜(월명야)에 一首詩(일수시)

저 달을 베어 내 마음 만들고자에서 나오는 달  
역시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수상록(낙원은 가시  
덤불에서)을 읽고 나니 이조 폐망기에서 광복  
전 까지의 인간의 범주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현실감이 역력한 생활상을 이어받은 나의 생활  
은 너무나 자유스러웠으니 화평성대에서 노린  
것이로다. 만해가 해인사에 갔을때 .... 주지  
화상이 오더니 나를 향하여 웃으면서 "선생이  
오셔 비가 옵니다. 용이 출동을 하니 비가 아  
니 오겠습니까? 누가 썼는지 사무실 칠판에  
이상한 글이 써여 있습니다. 人龍乘雲入鷲山  
(인룡승운입취산) 이라는 글이 써여있는데, 그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선생이 조금 일찍 왔  
으면 비가 벌써 왔지요" 하였다. 이것은 만해  
의 이름이 용운이므로 하는 말이다. 나도 웃  
었다. 이것이 심상한 만화에 지나지 않는 것  
이다. 만해의 「저 달을 베어 내 마음 만들고  
자」 일수시의 품위는 정일품에 해당하여 만해  
로다. 「이 마음 깊이 닦아 월계수에 매달고파」  
를 이어 붙여 응수해 주면 어떠랄까?


나의 거실에 오당의 서화가 한폭 걸려있다.  
그 화폭속엔 자옹의 비들기의 평화스러움과 춘  
의화락이란 일수시가 적혀있다. 춘의화락에 이  
어내려 하지평천, 추형성원, 동설대지를 첨가  
하여

春意和樂(춘의화락)  
夏志平天(하지평천)  
秋螢盛園(추형성원)  
冬雪帶地(동설대지)

화평성대를 써내고 낙원천지를 구상하며  
Washington주 Seattle로 옮길 마음을 안착한  
다.

1992년 3월 1일

송원서실에서



**BONNEY  
WATSON**  
FUNERAL DIRECTORS · SINCE 1868

**보니왓슨장의사·장지**

한인상담인: 李道永  
DAVID LEE

집 (206)874-4182(S)  
(206)952-3067(EI)

- 장례보험: 신제검사원이 누구든지 가입할수 있는 손수장례보험(2년-10년 불입가능)
- Korean Garden: 한국교민들을 위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서택동항 바로 옆에 한국인 동산용 마련하였습니다.
- 단체공원묘지: 개인·가족(친지)·기관(노인회등)·종교단체별로 장지를 할당하여 구입해 드립니다
- 무이자분할납입: 장지에 드는 비용을 무이자로5년-10년으로 분할하여 불입계함으로 전액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Free 리무진 서비스: 첫번째 리무진에 대해서 무료대여
- 이미 장지 와 장례식 장소를 선정하신분도 장례보험을 들수있습니다.

★ Pre-Need Arrangement: "언제나 모든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원묘지: Washington Memorial	■ 16445 Pacific Highway S.	242-1787
■ 북쪽: Capitol Hill Funeral Home	■ 1732 Broadway, Seattle	322-0013
■ 서쪽: Burien Funeral Home	■ 900 S.W. 146St. Seattle	244-2320
■ 남쪽: Federal Way Funeral Home	■ 1535 S.W. Dash Point Road, Federal Way	839-7317

## 이석주·박현철 합동공인회계법인

# LEE & PARK, P.S. CPA's

● **취급업무** ●

- 개인 및 법인 세무상담 및 보고
- 투자 및 재정상담
- 중소기업 장부정리
- 세무감사 대행
- 재무제표 작성
- 각종 CPA 업무

<p><b>Seattle 사무실</b> 1100 Virginia #201 Seattle, WA 98101 <b>(206)624-2727, 2763</b> <b>Fax : (206)624-5720</b></p>	<p><b>Federal Way 사무실</b> 3081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b>(206)946-2727, 627-1213</b> <b>Fax : (206)947-2729</b></p>	<p><b>Tacoma 사무실</b> 8815 S. Tacoma Way #211 Tacoma, WA 98499 <b>(206)581-0975</b> <b>Fax : (206)588-0955</b></p>
--	--	---



## “콜레스테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려면”

김덕신(가정의학 전문의-사운드 종합의료원)

미국인들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담배가 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심장병이나 뇌졸중(중풍) 등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보통 콜레스테롤을 1% 정도 낮추면 심장병의 위험도가 2%가 낮아진다는 말이 연구결과에서 거듭 나오고 있다.

우리 식생활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일본 본토인과 일본계 미주이민자들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가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일본 본토인들은 주로 간염, 간암, 위암 등의 질병이 세계적으로 높은 반면 대장암이나 심장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하와이에 이주한 일본인들과 가주에 이민한 일본인들을 상대로 연구해 본 결과 미국본토에 가까이 살수록 위암, 간암은 적어지고 그대신 심장병, 대장암이 미국인들의 수치같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또 미국에 오래 산 일본인 일수록 더욱더 질병 형태가 미국인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식생활도 점차 미국화 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점점 미국식의 식사를 할 기회가 많아지며 한인들의 질병은 미국인들의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미국에 오래 살면서 점차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하얗고 반지르르한 지방 같은 물질로서 혈액 속에서 만이 아닌 모든 몸의 세포속에 존재하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외막을 조성하는데 쓰여지며, 신경조직을 덮는 지방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어떤 효소의 기본물질이 되기도 한다. 우리 혈관안에 있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주로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이용하여 간에서 생성된다. 보통 1000mg이 하루에 생산되며 미국인들은 평균 400-500mg을 식품에서 섭취하여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고기와 달걀, 그리고 낙농 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음식에서만 발견된다.

간에서 나오는 지방 단백질 중에 가장 큰 것은 VLDL(Very Low Density Lipoprotein)로서 Triglyceride라는 지방으로 된 물체를 가지고 나와서 근육과 지방질에 떨어뜨리면 LDL(Low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지방단백질이 된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신체 각 부분에 조달하는데 쓰고 남은 것은 간에서 해부되어 배설된다. 어떤 것은 혈관속을 돌아 다니다 동맥 벽속에 붙어서 덩어리를 만들면서 혈액 순환을 막게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증이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이라고도 한다.) 이런 현상으로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뇌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중풍)을 유발한다.

한편 간에서는 HDL(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지방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지방단백질은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로 구성되나 LDL보다는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으며 좋은 콜레스테롤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맥사이에서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어 분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LDL은 콜레스테롤을 동맥 벽에 끼이게하고 HDL은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

콜레스테롤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치에 큰 차이가 난다. 손가락을 찔러서 콜레스테롤을 재면 피의 순환이 부드럽지 않아서 정규적으로 팔의 정맥에서 뽑은 피검사에 비해 경제적이기는 하나 일관성이 아주 적다. 더군다나 HDL이나 LDL을 모르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사하기 한시간 전에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HDL, LDL을 정확히 검사하려면 12시간 정도는 금식하는 것이 좋다. 그 뒤에 한 5분간은 앉아 있는 뒤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위해 피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질병에 걸렸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최근에 심장마비가 걸렸으면 수치에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정상 수치가 나오면 한달 간격으로 적어도 한번은 다시검사해야 정확한 통계를 낼수있다.

그러면 얼마의 수치가 정상인지 아래의 표를 보도록 하자. 콜레스테롤의 정상수치는 나이에 따라 많아지기 때문에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은 표 A에서 처럼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아래가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이면 정상이다. 전체 콜레스테롤이 200-240사이 이고 LDL이 130-160사이 이면 중간 정도의 높은 수치이다. 이 때에는 운동이나, 식생활 개선, 금연등 적극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이고 LDL이 160이상이면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높은 수치가 된다.

	전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정상	200 이하	130 이하
조금높음	201-239	131-159
매우높음	240 이상	160 이상

(표 A)

심장병의 위험	HDL Chol.		전체 콜레스테롤(Chol.)/HDL 비율	
	남	여	남	여
매우낮음(정상의 50%)	65 이상	75 이상	3.5 이하	3.3 이하
낮다	55 이상	65 이상	4.0 이하	3.8 이하
정상	45 이상	55 이상	5.0 이하	4.5 이하
높다(2배)	25 이상	40 이상	9.5 이하	7.0 이하
매우높다	25 이하	40 이하	23 이상	11 이상

(표 B)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특히 다음 세가지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1) 식생활의 개선
- 2) 정규적인 운동
- 3) 금연

먼저 식생활과 콜레스테롤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핀란드는 세계에서 포화지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서 국민당 평균 콜레스테롤도 제일 높고 심장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미국은 핀란드에 비해 지방섭취가 약간 적으며 심장병은 세계 제 2위이다. 반면에 일본은 포화지방산을 가장 적게 먹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장병이 문명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콜레스테롤은 단지 지방식품에서만 발견되며 식물성 식품(채소, 과일, 면과, 곡류 그리고 식물성기름)에는 전혀 없다. 다음의 음식을 피하거나 과격하게 줄이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데 중요하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껍질, 낙농제품(달걀유는 제외), 버터, 달걀노른자, 새우 등. 식물성 기름 중에는 열대성 기름 즉 코코넛 기름, Palm Oil 등이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히게 된다. 포화지방산(코코넛 기름, Palm Oil)은 피하고 단일불포화지방산(Safflower, 옥수수 기름)과 단일불포화지방산(올리브유, Canola Oil)을 대신 쓰면 전체 콜레스테롤은 내려가고 대신 HDL은 올려준다.

지방질 섭취는 전체 열량의 30%미만으로 하여 버터대신 올리브유나 옥수수기름을 쓰고 내발 짐승고기나 닭고기 대신 생선을 권하고자 한다. 특히 오메가3가 있는 생선이 각광을 받는데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HDL을 높히기 때문이다. 외식을 하게 되면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을 주문하고 샐러드 위에 보다 옆에 놓아달라고 하며, Pizza 주문을 하면 치즈를 반정도만 넣으라고 하라. 음식은 튀기지 말고 찐것, 삶은 것, 구운 것, Microwave에 익힌 것 등을 주문하고 빵이나 감자에도 크림이나 버터를 넣지 않도록 주문하면 콜레스테롤 흡수가 적어진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 특히 Oat Bran은 콜레스테롤을 19%까지 내려준다. 까만눈이 있는콩(Blackeye Bean), 검정콩, 홍당무, 완두콩, 옥수수, 검은 자두, 고구마, 호박, 브로칼리, 바나나, 사과, 배, 오렌지 외 싱싱한 과일 채소들이 콜레스테롤을 내려준다.

그 외에도 필요하면 몸무게를 줄이라. 2 lb의 지방질을 줄이면 1 Mg/dl의 전체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 일주일에 서너번 30분씩의 정기적인 운동은 HDL을 높이고 LDL Chol. 을 내리게 된다. 주로 수영, 걷기, 속보, 조깅, 등산, 테니스 등 좋아 하는 운동을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 조절을 잘하고,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담배를 끊으면 역시 HDL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 심장병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고 볼수 있다.

이상 여러 방법을 써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치가 되지 않으면, 특히 260이상 그리고 LDL이 160 이상이면 주치의의 찾아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모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이민생활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자.

## 일 차 집

<일명: 한국식 포장마차>  
해장국, 짬뽕, 어구이, 개구리다리구이, 메추리구이, 꼬치오뎅, 도미매운탕  
301 2nd Ave S. Extention, Seattle  
623-7787

## 이동훈변호사



- \*비즈니스관계
- \*교통사고 \*부동산관계
- \*보험문제
- \*이민관계, 기타

☎ (206) 622-5085  
Simmons, Viall & Lee  
1221 2nd Ave Galland Bldg. #410  
Seattle Wa. 98101



## 드디어 탄생 워싱턴주 노인대학

호적, 재산정리, 가족찾기  
제씨클럽, 무료상담실 운영

월드제씨클럽은 교민에 편의를 위해 부설 교민상담실을 개설 무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내역은 한국·일본의 유학, 방문, 관광, 호적정리(등적, 제적), 재산처분과 관리, 가족찾기, 혼인 및 결혼문제등이다.

- \*특전: 1)저명인사 및 대학교수 수시특강
- 2)성적우수자 표창
- 3)교육기간중 국내외 견학 산업시찰
- 4)편의 교육시설 이용
- 5)해외우방 노인대학 자매결연 예정

TEL: (206)542-4266  
TEL: (206)361-8689  
FAX: (206)542-4730  
1144 175th St. N. Suite 104  
Seattle, WA 98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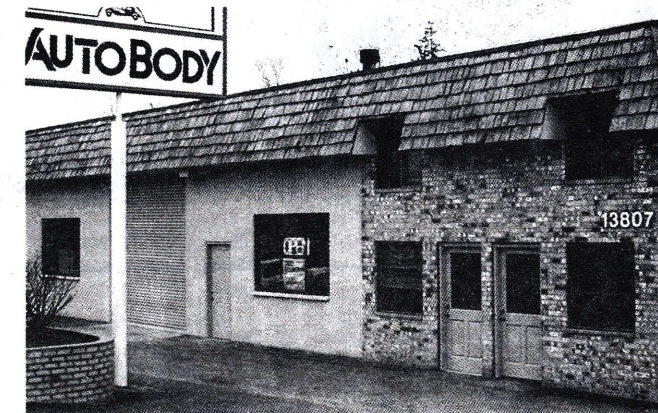
월드 제씨  
클럽 부설

워싱턴주 노인 대학장

상담역은 이지선 교육학박사등 10여명이며  
전용전화는 (206)542-4266.

## 노스 웨스턴 자동차 바디 & 메케닉

NORTH WESTERN  
COLLISION & MECHANICAL



- 서북미 한인최초의  
“페인트 부스 GARMAT” 시스템도입
- 20년 경력의 메케닉 기술진  
• 튜업 • 브레이크 • 엔진 • 기타

\*전화 한 통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는  
All-In-One 서비스 방식입니다.

전화 (206) 742-0634  
(206) 743-0913 (H)

(206) 799-7650 (24Hour)

●고객을 위하여 항상 24시간 대기



대표: 이 용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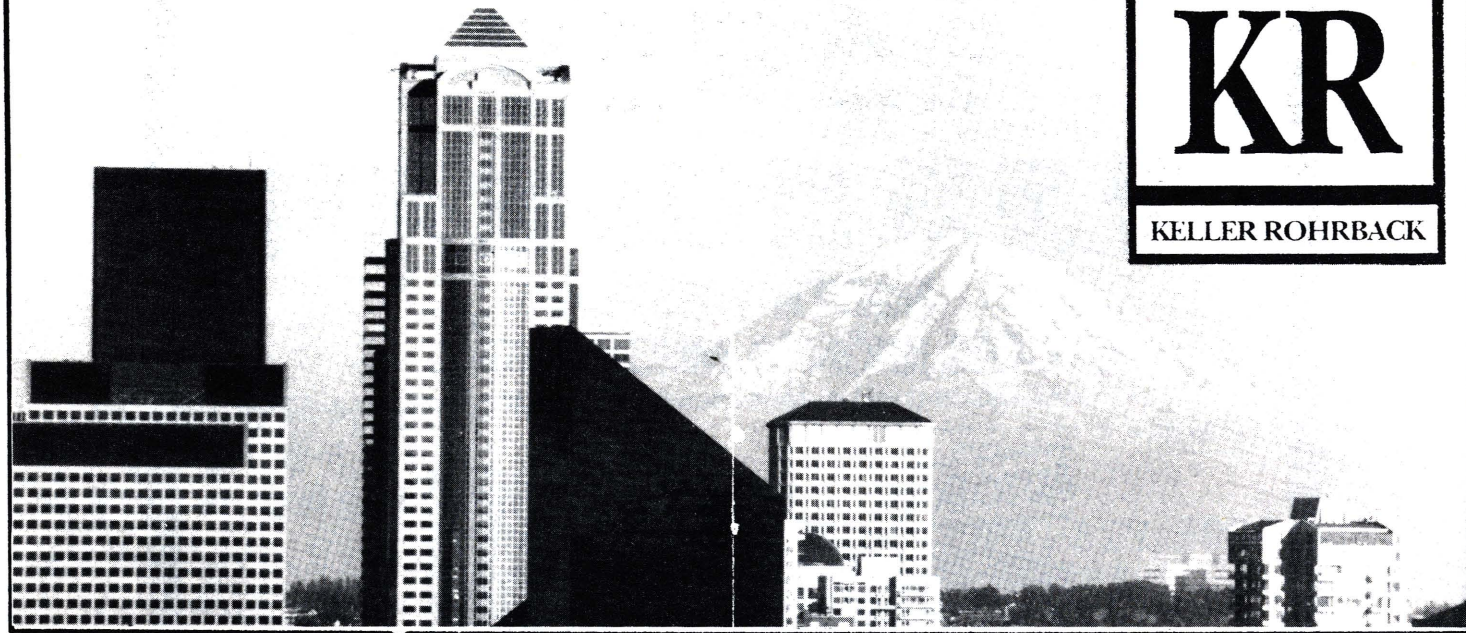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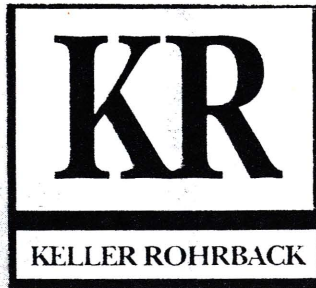
(국내외 모든 차를 완벽하게 고쳐드립니다) 13807 Hwy 99 Lynnwood WA 98037



# Keller Rohr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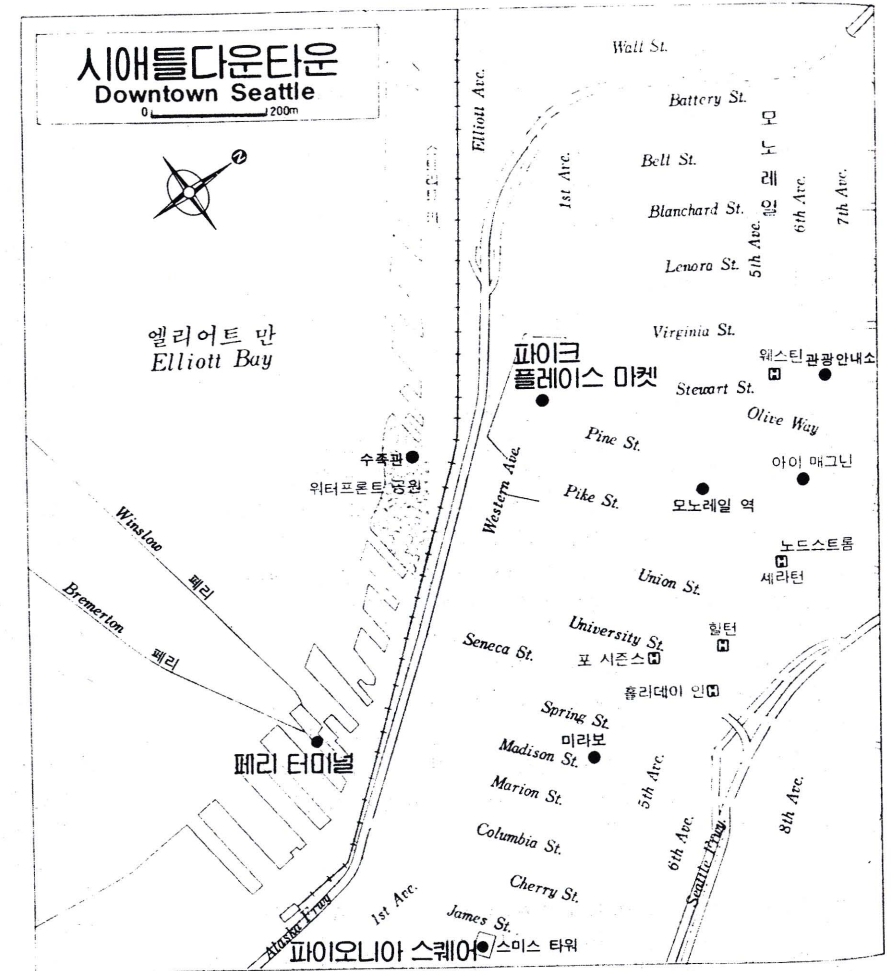
Attorneys at Law

1201 THIRD AVENUE, SUITE 3200  
SEATTLE, WA 98101-3052  
PHONE: 623-1900  
FAX: 623-3384



# SEATTLE

미국 서북부의 중심지 시애틀은 인구 50만(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서는 174만)인 워싱턴 주 최대의 도시로 면적은 147km<sup>2</sup>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31km<sup>2</sup>는 호수가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애틀을 가리켜 흔히 '물의 도시'라 부르고 있다. 즉 시내 동쪽에 길이 51km에 이르는 천연의 담수호인 워싱턴 호를 비롯하여, 시내를 가로지르는 그린 호와 유니언 호가 있다. 워싱턴 호와 퓨젯사운드 내해는 운하로 이어져 있어, 수문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선박의 항해를 가능케 한다. 한편 도심에서 차로 2시간만 달리면 울창한 대자연이 전개되고 시내도 온통 푸른 숲으로 덮여 있어 시애틀을 '숲의 도시'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에는 등산, 하이킹, 스키, 사냥, 낚시, 수상 스키, 요트 등의 야외 스포츠가 성하다. 교통도 매우 편리하여 미국 각지와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고, 캐나다의 밴쿠버와도 비행기로 불과 45분 거리에 있다.



## 불만한 곳

### 워터프런트 Waterfront

다운타운 서쪽 엘리엇 만 Elliott Bay 에 있는 해안 거리를 워터프런트라고 부른다. 이곳에는 해물요리를 파는 레스토랑과 수족관, 선물가게, 페리가 발착하는 부두 등이 있어 언제나 변화한다.

48번 부두에서는 주 1회에 걸쳐 알래스카로 배가 떠나고 있으며, 56번 부두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품을 파는 트라이던트 임포트 Trident Import가 있다. 이 부두는 5~10월에는 관광선의 발착장이 되기도 한다. 57번 부두에는 볼트 The Vault라 불리는 쇼펍 아케이드와 레스토랑, 선물가게, 화랑 등이 즐비하고, 59번 부두와 사이에는 워터프런트 공원이 있다. 이 공원에서는 특히 돔 모양의 해중수족관, 배의 박물관, 옴니돔 극장 Omnidome Theater 등이 눈길을 끈다.

● 시애틀 수족관 Seattle Aquarium : 워터프런트 59번 부두에 있는 이 수족관에는 퓨젯사운드 Puget Sound 에 서식하는 15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있고, 돌고래의 쇼도 행해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바닷속을 재현시킨 언더워터 돔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유리로 만든 돔 속에서 360°의 해중전망을 즐길 수 있다. 2층에는 바다와 배의 박물관이 있고, 여기서 진기한 선물도 팔고 있다.

● 이 올드 큐리오시티 숍 Ye Old Curiosity Shop : 워터프런트의 54번 부두, 알래스카 거리에 있는 상점으로, 박물관과 골동품 및 선물가게가 한데 어울린 특이하면서도 괴기스러운 곳이다. 식인상어의 턱뼈, 효수된 사람의 머리, 뱀 가죽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기묘한 물건을 팔기도 한다. 상점 구석에 있는 남녀의 미라도 불만하다. 1895년에 발굴된

신장 180cm, 체중 60kg의 남성 미라는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 시애틀 센터 Seattle Center

다운타운 북서쪽 약 2km 되는 곳에 있다. 1962년 시애틀 만국박람회가 열렸던 약 30만m<sup>2</sup>의 부지에 당시의 건물을 이용하여 만든 문화·체육·오락의 종합 센터이다. 이곳은 시애틀 시민의 자랑인 동시에 최대의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다운타운에서는 모노레일로 불과 1분 30초 거리에 있다.

● 스페이스 니들 Space Needle : 시애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워로, 원반형의 전망대(185m)에서 최고봉인 레이니어 산을 비롯하여 올림피 산맥, 캐스케이드 산맥이 바라보인다. 야경 또한 아름다우며 전망대 1층에는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다.

● 피시픽 사이언스 센터 Pacific Science Center : 분수를 중심으로 6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고딕풍의 흰 아치는 스페이스 니들과 함께 시애틀 센터의 상징이 되고 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과학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색이다. 거대한 화면의 아이맥스 극장 Imax Theater, 레이저 광선과 빛의 쇼를 볼 수 있는 스페이스아리움 Spacearium, 천문관 등이 있다.

● 시애틀 미술관 퍼빌리언 Seattle Art Museum Pavilion : 시애틀 미술관의 분관으로, 미국 내외의 현대회화 및 이 지역 출신자의 작품을 특별전시하고 있다.

● 센터 하우스 Center House :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세계 23개국의 레스토랑, 진기한 수입품과 민예품을 파는 가게 등이 있다. 2층에는 안내소가 있다.

# PJ 건설

신축 증축 아파트 모텔  
쇼핑센터 빌딩등

건설 전문회사인 PJ'S 건설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공정으로 교민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PJ'S King's Asphalt & Roofing

Paving  
Patching  
Crack Filing  
Seal Coating  
Stripping  
Parking Lots  
Drive Way

New Roof  
Torch Down  
Wood Roof  
Tile  
Hot Tar  
Repairs

542-9136 PHONE  
660-3406 PHONE  
993-0774 PAGER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Pike Place Market**

다운타운의 바닷가, 파이크 거리Pike St.와 버지니아 거리 Virginia St. 사이에 있는 80년 역사의 시장이다. 과일, 고기, 야채는 물론 연어, 새우 등의 생산도 풍부하다. 하루 중 일 둘러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이 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과 부티크, 골동품점, 민예품점 등이 즐비하다.

**파이어니어 광장 Pioneer Square**

시애틀의 발상지로 1번가1st Ave.와 예슬러 거리Yesler Way의 교차지점에 있다. 광장 모퉁이에 있는 파이어니어 플레이스Pioneer Place에는 알래스카 인디언의 토템 폴이 있고, 이 밖에 가스등과 철책 등 19세기를 상기시키는 것이 많다. 부근에 있는 레스토랑 독 메이너드Doc. Maynard's에서는 시애틀의 지하도를 탐험하는 스틸 만점의 언더그라운드 투어Underground Tour가 출발한다. 또 예슬러 거리와 2번가2nd Ave.의 교차로에는 파이어니어 광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미스 타워Smith Tower가 있다. 1914년에 세워진 42층 건물에서의 전망이 아름답다.

**볼런티어 공원 Volunteer Park**

뉴욕 센트럴 파크의 설계자인 올름스티드 브라더스가 디자인한 공원으로 다운타운 북동쪽 캐피털 힐Capital Hill에 있다. 공원 안에는 광대한 원형 저수지, 양란 등의 열대식물이 자라는 온실, 천문관 등의 건물이 있고 유명한 시애틀 미술관도 여기 자리잡고 있다.

● 시애틀 미술관 Seattle Art Museum : 1933년에 개관한 미국 북서부 최초의 미술관으로 동양미술의 컬렉션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힌다. 특히 풀러 기념관 Fuller Memorial Gallery의 중국산 비취 수집이 유명하다. 이 밖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인디언 등에 의한 전통미술, 미국과 유럽의 현대미술이 전시되어 있다.

**워싱턴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캘리포니아 대학과 함께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오래 된 주립종합대학이다. 시애틀 북동쪽, 퓨젯사운드와 워싱턴 호수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너면 바로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다운타운에서 차로 15분쯤 걸린다. 캠퍼스의 넓이는 약 2.57km<sup>2</sup>로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의 하나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딕식 건물인 도서관, 음악관, 예술관, 학생회관의 건물이 아름답다. 학부로는 입학·수산학·의학·동양학 등의 수준이 높고, 운동도 잘한다. 특히 보트는 미국에서 최강을 자랑한다.

1934년에 워싱턴 대학과 시애틀 시가 공동으로 만든 워싱턴 대학 식물원은 워싱턴 공원 안에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모은 약 5000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워싱턴 호의 부교 Floating Bridge**

시애틀 동쪽, 워싱턴 호수에 놓여 있는 2개의 다리는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 세계적으로 진기한 부교로서 다리 밑으로 배가 지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남쪽의 머서 아일랜드 브리지Mercer Island Bridge는 1940년에 완성된 길이 약 2km의 다리이다. 이 다리는 대륙횡단도로 하이웨이 90번으로 연결되고, 옆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그 위를 걸으면 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한편 에버그린 포인트 브리지Evergreen Point Bridge는 1964년에 완성된 것인데, 길이는 약 2.4km로 시애틀 중심부와 대안의 벨뷰Bellevue를 연결한다.

**가번먼트 록스 Government Locks**

워싱턴 호와 내해인 퓨젯사운드를 잇는 수문으로 정식 명칭은 Hiram M. Chittenden Locks이다. 이것은 일종의 수위 조절용 수문인데, 하루에도 수백 척의 배가 통과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원래 태평양을 항해해온 배를 담수에서 쉬게 하면 배에 붙은 각종 해초가 자연적으로 제거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현재는 워싱턴 호를 기지로 하는 요트와 모터보트의 태평양 출입에 이용되고 있다.

수문 남쪽에는 피시 래더 Fish Ladder 라 불리는 물고기의 길이 있다. 해마다 산란기가 되면 수많은 연어가 떼를 지어 바다에서 이 길을 지나 워싱턴 호로 돌아오는 모습은 문자 그대로 장관이다. 피시 래더는 댐이 있어도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올라올 수 있게 고안한 계단식 수로로 되어 있다.

**우들랜드 파크 동물원 Woodland Park Zoo**

그린 호 부근에 있는 세계 유수의 동물원으로 동물들이 자유롭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자연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연구와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동물과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만든 패밀리 팜Family Farm, 야행성 동물관인 너터널 하우스 Nocturnal House 등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스노퀄미 폭포 Snoqualmie Falls**

시애틀에서 하이웨이 90번선을 따라 약 40km쯤 가면 스노퀄미 강에서 떨어지는 약 82m의 낙차를 가진 폭포가 있다. 이 폭포는 워싱턴 주에서 레이니어 산과 함께 관광객이 많기로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1898년에는 이 폭포를 이용한 수력발전소가 세워졌는데, 암반을 지하까지 파내려가서 만든 세계 최초의 지하발전소이다.

**레이니어 국립공원 Mt. Rainier National Park**

시애틀 동남쪽 약 152km 지점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이곳의 레이니어 산은 워싱턴 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표고 약 4392m로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정에서는 40여 개의 빙하가 방사선으로 뻗어 있고, 그 면적은 91km<sup>2</sup>에 이른다. 이 산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산의 남쪽 사면에 있는 패러다이스 밸리Paradise Valley이다. 장대한 니스킬리 빙하 Nisqually Glacier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등산과 하이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패러다이스 밸리에는 박물관, 레스토랑, 선물가게 등이 있고 여름엔 패러다이스 로지에서 숙박할 수도 있다.

**올림픽 국립공원 Olympic National Park**

시애틀 서쪽 올림픽 반도에 있으며 이 공원에서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지형과 기후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원 남동쪽에 있는 허리케인 리지Hurricane Ridge에서는 올림픽 산맥의 파노라마를 바라볼 수 있어, 연간 200만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여기서 산을 내려가 하이웨이 101번선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연어낚시로 유명한 크레센트 호 Crescent Lake가 나온다. 또 공원 동쪽에는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침엽수의 다우림(多雨林)이 있다.

**보잉 공장 Boeing Everett Plant**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포트 가드너 만에 면한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에버렛에 도착한다. 여기에 보잉 B 747을 비롯하여 항공기 제조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보잉 회사의 공장이 있다. 보잉 회사의 부침은 시애틀 경기의 척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극히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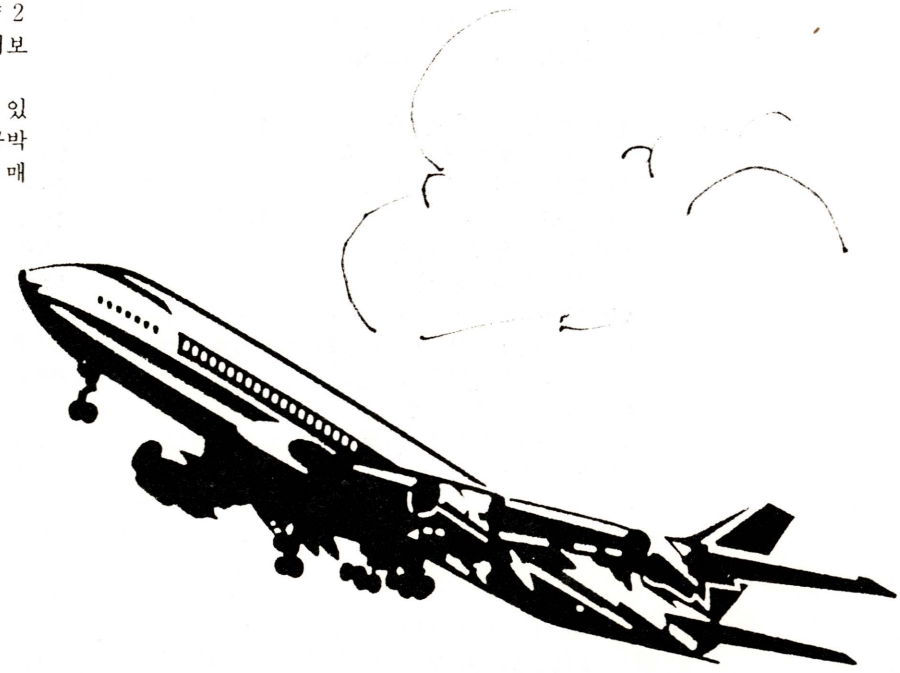
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월~금요일의 09:00와 12:00의 2회에 걸쳐 무료 공장견학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영화를 통해 지식을 얻고 난 다음 버스를 타고 약 2시간에 걸쳐 대형 여객기가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둘러보게 된다.

보잉 회사가 탄생한 것은 1916년으로, 워싱턴 호 남쪽에 있는 보잉 필드에서 생산이 시작되었다. 현재 이곳은 항공박물관Museum of Flight이 되어 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0:00~17:00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애틀 파이어니어 광장의 지하도**

예전에 시애틀의 다운타운은 도로가 지나치게 낮아 거리가 침수되거나 더러운 물이 역류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다가 1889년의 대화재를 계기로 모든 도로를 3m 높인 결과, 건물의 2층이 1층이 되고 1층은 지하실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양쪽 가장자리가 보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여기에 뚜껑을 만들어 덮음으로써, 보도는 지하가 된 채 오랫동안 잊혀져왔다. 그뒤 빌 스파이델이 이 지하도를 발견하고, 1965년에 파이어니어 광장에서 '언더그라운드 투어'를 시작하여 현재는 이곳이 시애틀의 관광명소가 되어 있다.



## 워싱턴주 한인 식품협회

■■■■■■ 회장 송태호외 임원일동 ■■■■■■

■ 협회가입 업소명단

그랜드식품	(대표 김용현)	장미상회	(대표 김홍재)
남대문식품	(대표 김 구)	중앙식품	(대표 송태호)
동산마켓	(대표 이의성)	제일식품	(대표 조성교)
리스야채식품	(대표 장재희)	한일식품	(대표 정운영)
새로나 식품	(대표 이재명)	한남식품	(대표 송명수)
오대양식품	(대표 임용근)	켄트상회	(대표 임종현)



# 제 26대 한인회 업무보고

행사건 : 회장단 + 이사장단 + 임원 + 이사  
 각 행사 참석 : 116회 참석

전화건 : 한인회장 직통전화 only (한인회 이사 임원 통화제외)

*교민 전화번호 주소문의	94건
*한인회 행사에 관한건	68건
*타국에서 와서 이지방 안내건	46건
*학생 교육에 관한건	26건
*법정 소송(통역)의건	18건
*통관의건, 이민국 문제건	34건
*미국기관에서 한인사회 Information	68건
*신박사 후원에 관한건	43건
*마타최 전화번호	18건
*한인사회 단체 문의건	48건
*기타 사항	67건
-----	-----
총계	530건

- 2월 20일 : 제 1 차 임원회 (한인회관)  
 21일 : KELLER ROHRBACK 변호사 협회 협조요망 MEETING  
 24일 : 회장단 이사장단 MEETING  
 27일 : 제 2 차 임원회 (한인회관)  
 28일 : 중앙일보 PRINTING OPEN HOUSE

- 3월 1일 : 1. 제 26 대 회장 취임식  
 2. 3.1절 행사 (기념식)  
 2일 : 선거 관리 위원회 인수인계  
 4일 : 1. 노인(55세 이상). SENIOR TRAINING PROGRAM MEETING  
 DOWN TOWN OFFICE (NATIONAL PACIFIC/ASIAN)  
 "LINDA NG"  
 상근 직원 보조 문제  
 6일 : 상견례 (한일각)  
 7일 : 체육회장 취임식 참가  
 9일 : 1. MISS KOREAN COMMUNITY-SEAFAIR 장학생 선발 준비 위원회 (신라)  
 2. 한인 사회 발전 연구소 MEETING 참가  
 12일 : 1. 제 3 차 임시 위원회 (사업계획서 추진위원회)  
 2. 노인 TRAINING PROGRAM MEETING (DOWN TOWN OFFICE)  
 13일 : KIM & PARK 회계사무소  
 박광영 회계사무소 : 무료세무보고에 관한 상의  
 17일 : 삼성 T.V. 총영사관으로부터 기증 받음. (27")  
 18일 : 한인회보 발간 준비 편집 위원회 MEETING  
 19일 : 1. KOAM T.V. MEETING FOR TAX 세미나에 관한건  
 2. 2개 회계사무소에서 무료 TAX 보고 시행  
 20일 : 쏘련 정치 관계자 TACOMA 방문 저녁만찬 참석  
 23일 : FEDERAL WAY 시장 MEETING (서울 뚝배기)  
 24일 : 한인사회 발전연구소 MEETING 참가 (청소년 수련회 토의)  
 25일 : 1. 회장단 이사장단 MEETING 1)사업계획서 심의  
 2)신호범 박사

- 26일 : 1. 제 4 차 임시 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의)  
 2. 2개 지역 회계사무소 무료 TAX 서비스 시행  
 28일 : 시민권 강좌 참석  
 31일 : 1. 노인 TRAINING PROGRAM 관한 MEETING-LINDA AG, FEDERAL WAY  
 지역 봉사자 선정 (동열모, 김선옥)  
 2. 한인회관 신호범 박사 후원회 모임 참석

- 4월 2일 : 1. 제 5 차 정기 임원회 (한인회관)  
 2. TAX 무료 서비스 (2개 회계 사무실에서)  
 3. 신호범 후원회 준비 위원회 참석(한일각)  
 4일 : 한인회관 시민권 강좌 참석  
 7일 : 사회 단체장 회의 (한인회관)  
 9일 : 1. 제 1 차 이사 임원 공동 회의  
 2. TAX 무료서비스  
 11일 : 세탁협회 주최 골프 토너먼트 참가  
 12일 : 신호범 박사 후원 준비위원 MAIL 준비  
 (신권수 재무부장 사무실)  
 13일 : 송실대학 - PACIFIC U. 자매결연 참석  
 14일 : 1. SNOHOMISH COUNTY 군수 방문  
 2. 청소년 하기 수련회 준비 모임 (산본)  
 15일 : 신호범 박사 주 하원의원 KICK OFF 참석.  
 19일 : 1. 기독교 연합회 연합예배 참석 (씨애틀 한인 연합 장로 교회)  
 2. 기독교 연합회 목사 간담회 참석 (비원)  
 20일 : 신호범 박사 후원의 밤 준비 위원회 참가  
 21일 : 대전 종합 대학 - SEATTLE U. 자매 결연 참석  
 (SEATTLE U. 에서)  
 22일 : 대학가요제 준비 위원회 (한인회관) 회의  
 23일 : 신호범 박사 후원의 밤 준비 점검회의 참가  
 24일 : 신호범 박사 교민 후원의 밤 (MARRIOTT HOTEL)  
 27일 : 1. 건축 위원회 개최(한인회관)  
 2. 한인회 상근직원 1명 추가 확보 (김성중 선생)  
 3. 장애인 이해영 돕기 이창규 목사 면담  
 30일 : 1. 한국 참전 기념비 모금 주지사 초청 저녁 만찬 참가  
 2. 4.29 L.A. 사태 대책회의, KOAM RADIO INTERVIEW

- 5월 1일 : 1. 총 영사관 L.A. 사태 비상 면담 요청 참가  
 2. 한인회 임원 이사 비상소집  
 L.A. 사태 지역 대책 방안 호소문 채택  
 2일 : 1. U.S. 태권도 챔피언 토너먼트 참석  
 2. 시민권 강좌 참석 (한인회관)  
 5일 : 1. 총 영사 한인회 임원 격려 오찬  
 2. 단체장 회의 (L.A. 사태 호소문, 구호금, 메세지 채택)  
 3. L.A. KTE T.V. 방송 격려문 제작 (KOAM)  
 6일 : 고 정연발 목사 장례식 참석 (조의)  
 9일 : 1. 경로회 파티 참석 격려 (한인회관)  
 2. 연합 장로교회 한국학교 운동회 참가 (축사)  
 3. 상공회의소 세미나 (NENDEL HOTEL)  
 14일 : 정관 개정 위원회 개최 (한인회관)  
 15일 : CHINA POST 10주년 기념식 참석  
 16일 : 1. 제 10 회 한인 회장배 축구회 개최  
 2. 시민권 강좌 2차 개강 참석  
 18일 : 하기 청소년 수련회 준비 회의 (TACOMA) 참석  
 22일 : 신호범 박사 후원회 참석 (BELLEVUE OVERLAKE)  
 23일 : 1. 셋별 무용단 공연 참석 (EVERETT 시민회관)  
 2. 대학가요제 참석 격려사, 시상식 (U.W. HUB)  
 24일 : 감리교회 이창규 목사 장애인 성금 전달식 참가-수령 전달  
 27일 : 정관 개정 위원회  
 28일 : 제 6 차 임원회 (회장자택) : MISS SEAFAIR 준비 (5/30)  
 경로 세미나 준비 (6/13)  
 연방상원의원 방문 준비 (5/29)  
 29일 : 연방상원의원 SLADE GORTON 방문 11:00 AM  
 회장단, 이사장단 - 4.29 사태 교민에게 메세지  
 위반 또는 L.A. 경찰 출동 늦장 사과문 작성요구  
 30일 : 01:00 PM - MISS KOREAN COMMUNITY - SEAFAIR 장학생선발



- 6월 1일 : 07:00 PM - 사회발전 연구소 연구위원회 참석 (양반집)
- 2일 : 07:30 PM - 편집위원회
- 5일 : 09:00 AM - TIM HILL 군수방문 (한인회 - KING COUNTY 유대강화)
- 02:30 PM - U.S. BANK 한인사회 CREDIT 문제 MEETING  
(FEDERAL WAY BRANCH MANAGER)
- 6일 : 김마리아 바이올린 독주회 참석
- 8일 : 02:00 PM - MIDWAY SWAP MEET 사장 JACK, BOB, FRANK - 한인 상인 안전  
협조 MEETING
- 9일 : 제 7 차 임원회 (한인회관) - 회보발간, 청소년 수련회, SEAFAIR,  
광복절, 노인 세미나
- 10일 : 03:00 PM L.A. RADIO KOREA 전화 인터뷰  
현 씨애틀 동향과 L.A. 폭동 보는 관점
- 12:00 - 이도영 장로, BORRY 한국인 동산 제막식 관한 한인사회  
협조사향 모임
- 11일 : NATIONAL MAINTENANCE CO. 사장 LYLE MEETING
- 13일 : 경로회 세미나 (한인회관)  
오기주 - 사회 복지 연방 공무원 강좌  
한인회 임원 불고기 파티
- 16일 : 12:30 - 편집위원회 긴급 모임 (박은남 편집부장 사무실)
- 17일 : TACOMA 지역 신호범 후원회 참석
- 18일 : 제 8 차 임원회 - 강희열 총무이사 자택 저녁 만찬  
- 이사장단, 임원 ; 회보 발간 준비 경과 보고  
SEAFAIR 경과 보고  
광복절 준비 경과 보고
- 19일 : 07:00 PM 셋별 무용단 유럽공연 모금 파티  
EVERETT NENDEL HOTEL
- 20일 : 10:00 AM - 한국인 동산 제막식 축하  
11:00 AM - 한글학교 운동회 축하  
06:00 PM - 세탁 협회 사무실 이전식 참석
- 21일 : 03:00 PM - 현 호주 대사 SEA-TAC 공항 환영
- 22일 : 06:00 PM - SHERATON HOTEL 현 호주 대사 강연  
WORLD ASIAN AFFAIR COMM. 주제
- 23일 : 12:00 PM - PRUDENTIAL INSURANCE CO. 한인사회 진출 MEETING  
03:00 PM - 총영사 긴급 회의 요청 ; 통일연수 원장 연수문제
- 24일 : 04:00 PM - 연방 노인 직업 알선 프로그램 ; 린다 MEETING  
한인회관 회관 상근직원 면담 실시
- 07:00 PM - 편집위원회 신권수부장 사무실
- 25일 : 07:00 PM - 정관 개정 위원회
- 26일 : 06:00 PM - 대한부인회 건축 모금위원회 밤 참석(TACOMA)
- 27일 : 06:00 PM - VANCOUVER - MISS WASHINGTON PAGENT 참가  
권소영 후원  
셋별무용단 특별 초청 공연 지원
- 29일 : 12:00 신라식당 ; 상공회의소 주관 U.S. BANK MEETING 에 참가
- 30일 : 07:00 - 사회발전 연구소 MEETING  
10:30 - 셋별무용단 환송식 (SEA-TAC 공항 ; \$1,000.00 전달)
- 7월 1일 : 05:00 PM - 김수영 부동산 BROKER OPENNING 참석  
11:00 PM - EVELYN P.I.지 만화 인증 차별 합의전화
- 2일 : 07:00 - 한인회관 ; 사회발전연구소 경과 보고서
- 3일 : 06:00 - 한인회관 ; 통일연수원 원장 연수회 (3시 30분)
- 10:00 PM - 한인회 편집위원회 (이사장단, 임원, 이사)
- 6일 : 07:00 - 정관 개정 위원회

- 8/20 : 전직 한인회 회장 회의 \* 상반기 사업보고회  
\* 정관 공청회 준비 보고서
- 8/21 : 테리 로버트 후보문제 Meeting
- 8/22 : 상륙회 10주년 기념식 (축사)
- 8/24 : 정관개정 위원회  
: 한글학교 보고회
- 8/25 : 정관개정 공청회 (한인회관)
- 8/26 : 중앙일보 주최 주지사.연방상원위원 정견발표 준비모임(각 사회 단체장)
- 8/27 : 김현욱 의원 환영만찬 (산본)
- 8/28 :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정견발표회 (한일각)
- 8/29 : 한글학교 모국방문단 KOAM 인터뷰
- 8/31 : 피트 본 연방하원위원 출마자 한인회 정견발표회
- 9/2 : 총영사 시낭독회 참가
- 9/3 : 노인회장 이사장 간담회 (한일각)  
: 테리 로버트 후원 준비회의 (Denny식당)
- 99/4 : Seattle Time 인터뷰, W/BARBARA SERANO, 신호범 박사 전망에 관한 한인사회  
반응.
- 9/5 : Federal Way Douglas Anderson 변호사 Open House 참여.
- 9/10 : 상공회의소 10주년 기념식 참석.
- 9/15 : 정관개정 에 관한 임시총회 (한인회관)  
신호범 박사 예비선거 결과 모임 참여 (신박사 자택)
- 9/16 : 노인대학 창립 (축사)
- 9/17 : 한인 TTI 전화국 모임 참여 (신라식당)
- 9/18 : 생활상담소 기념식.
- 9/20 : 노태우 대통령 환영 영접.
- 9/21 : 한인 경노당 준비 위원회 모임 (한인회관)
- 9/24 : 노태우 대통령 환영 영접 다과회 참석 환영사
- 9/25 : 고창수 총영사 송별회 (한일각)  
: National Pacific/Asian Resource Meeting 참여
- 9/26 : 음악인 동우회 가곡의밤 참여 (U W Meany Hall)
- 9/29 : 9 차 임원회 (경노잔치 25주년 기념회보 준비)
- 10/1 : 찰스 허만 변호사 방문  
: 쇼군 Open House 참여  
: 긴급 편집위원회
- 10/2 : 경노잔치 준비 위원모임(한일각)
- 10/3 : 한인 합동경노잔치 (Cleveland High School)
- 10/5 : 고창수 총영사 환송파티 (관저)
- 10/6 : 고창수 총영사 시낭독 시 자작곡 발표회 참석  
: 제 3 차.이사회 개최 (성원)
- 10/9 : 임동근 후보 후원의 밤 (격려사) 타코마 공전식당
- 10/12 : 경노당 준비위원회 모임
- 10/13 : 고창수 총영사 공항송별 (Sec-Tac 공항)  
: 워싱턴주 한인사회 발전연구소 실무회의 참석
- 10/14 : 주하원위원 Federal Way 지역 Jeam Morie 후원 모임참석  
: Seattle Times 인터뷰  
: 한인사회 계모임과 주류면허와관계 문제
- 10/15 :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 박부동산 Open House 참여
- 10/16 : Washinton State Small Business Improvement Council Meeting 한인회관 에  
유치 (환영인사)







축 한인회 25주년 기념회보 (무순)

사회 단체	주 씨애틀 총영사관	고창수 총영사	441-1011
	서북미 평화 통일지협회	회장 이종찬	838-9399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종헌	643-6576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	회장 유홍길	588-4105
	워싱턴주 체육회	회장 최경수	441-9089
	한인 생활 상담소	회장 이선혜	784-5191
	대한 부인회	회장 조석란	588-3854
언론사	한국일보	622-2229	
	중앙일보	365-4000	
	KOAM TV 라디오	838-0980	
	코리언 저널	661-1767	
	코리아 포스터	581-5253	

공인회계사	김용철, 박성수 합동 공인 회계사무소	363-5730		
	박광영 공인 회계사	839-1040		
	이규영 계리사	441-4181		
	김종구 회계 사무소	367-0655		
	이석주, 박현철 공인 회계 사무실	624-2727		
	허신 공인 회계사	367-6782		
	김광배 회계 사무소	946-5152		
	박우석 회계 사무소	637-0357		
	심상연 회계 사무소	582-1644		
	변호사 사무실	KELLER ROHBACH 합동법률 사무소 한국인통역	941-4676	
		찰스허만 합동법률 사무소 한국인통역 (일레인 권)	625-9104	
		서영민 & 스텐리 와그너 법률 사무소	728-1051	
이동훈 변호사		622-5085		
채상일 변호사		627-2370		
그레고리 윌슨 변호사		588-2828		
더글러스 앤더슨 변호사		941-9771		
포스티 변호사		838-3751		
윤영일 변호사		1-800-422-2571		
K. P. 번역원 (박진홍)		368-7777		
의사/한의원	홍인표 신경정신과	587-5747	인태 중국한의원 (503)228-3235	
	백기완 의료원	365-4533	북경 한의원	874-4200
	한미종합 의료원	581-4564	현대 한의원	584-5449
	박창익 내과	624-5867	경희 한의원	523-0776
	김내과	362-3361	제중 한의원	778-9299
	홍내과	874-5404	리 한의원	365-7176
	유종합 의료원	775-7966	유한복 한의원	323-9429
	이준호 척추의료원	581-9440	서울 한의원	581-4614
	오창익 척추신경과	946-4648	대인 한의원	588-7896
	김희주 산부인과	447-9271	누가 한의원	369-0457
	송화섭 산부인과	581-4696	린우드 한의원	774-8609
	로명재 산부인과	838-5800	진술 한의원	764-3282
	황정옥 물리 치료실	363-4912	혜성 한의원	589-0932
	윤 안과 (OD)	582-0760	대학 한방병원	941-5672

	신한영 안과	526-1413			
	민홍기 안과	941-7074			
	오기현 외과	946-8093	박약국	527-3010	
	오규진 외과	453-1140	서울약국	946-3968	
	박성준 안과	454-2056	하일랜드 약국	546-8533	
여행사	대한 여행사	941-8866	제일 여행사	581-0199	
	장 여행사	527-2245	샤프 여행사	581-1888	
	한국 여행사	441-3101	우리 여행사	547-5400	
	스타 여행사	661-0191	하나 여행사	839-0249	
	페스포트 여행사	483-8687	비존 여행사	941-5588	
	T/T 여행사	242-5565	서북미 관광	441-6364	
	씨애틀 한국관광	542-6683			
부동산	센츄리 부동산	763-4989	구범회 부동산	778-1267	
	박 부동산	448-1122	윤광남 부동산	523-1300	
	골든 부동산	363-2218	홍천해 부동산	763-2299	
	김수영 부동산	450-9510	박진 부동산	947-0717	
	심상준 부동산	745-3010	김인곤 부동산	323-2728	
	오인철 부동산	546-4222	신현민 투자	399-6020	
	MAX LEE 부동산	227-9340	토니김 부동산	998-0208	
	성일 부동산	954-9667	손석주 부동산	943-7839	
	전영 부동산	241-4762	김광식 부동산	472-8900	
	이중수 부동산	367-1583	김순아 부동산	799-2018	
	안협 & 노대현 부동산	455-2065	엄일섭 부동산	542-2183	
	김경주 부동산	838-3136	박일봉 부동산	455-9440	
	노찬이 부동산	939-2100	이계탁 부동산	775-8525	
	박현숙 부동산	927-9300	오윤복 부동산	546-5731	
	손옥주 부동산	582-7661	최형준 부동산	582-6111	
	동서 부동산	584-9228	김종구 부동산	362-8370	
	식당	한일각	587-0464	신라 식당	623-9996
		희래등	364-1891	명동칼국수	839-2331
		아카사카	948-3858	아타미	878-2829
산본		850-8154	아리가도	546-3328	
비윈		771-5547	양반집	946-8795	
오복집		582-6713	올림픽 회관	455-9305	
백천		625-0356	한국회관	852-9197	
핑크		528-7777	아리랑 식당	941-9883	
차이나 게이트		624-1730	해운대 왕갈비	542-9233	
그랜드 피킹		839-1787	오복집	582-6713	
쇼군		941-5058	서울회관	447-1556	



# 아리랑밤 개최

1992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아쉬운 한해를 보내면서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민여러분을 위한 송년잔치를 준비하여서 교민 여러분을 초대 하고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한인사회 25년 전통행사인 아리랑밤을 빛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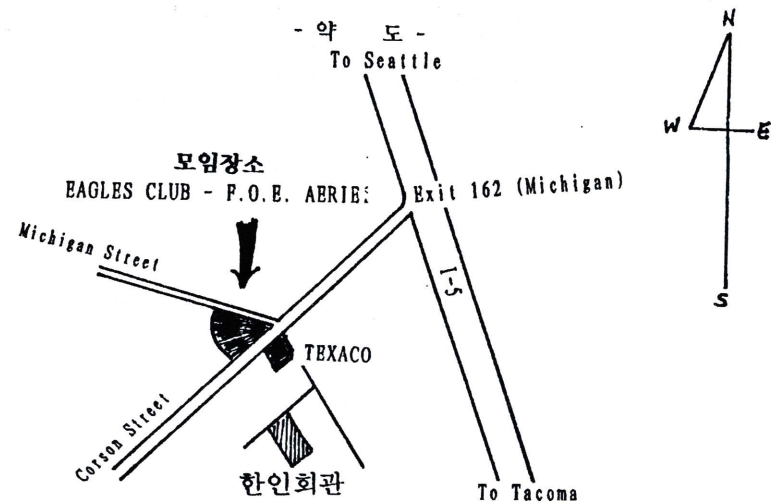
일시: 1992년 12월 19일 (토요일) 6:00 P.M.  
 장소: EAGLES CLUB - F.O.E. (아래 약도 참조)  
 6205 CORSON STREET SO., SEATTLE, WA 98108  
 전화 206-762-5125

순서: 1부 - 간단한 식  
 2부 - 저녁만찬 (한국음식)  
 3부 -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10명 내외)  
 유흥 순서

상품: \* 경품추첨 - 한국 왕복 비행기표 등 다양한 상품있음.  
 \* 노래자랑 - 대상, 1등, 2등, 3등, 등외  
 \* 특별상 - 92년 한인회 고액 찬조자 시상있음.

\* 저녁식사 준비관계로 참석 하실분 사전연락을 꼭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767-8071 또는 946-6193 (오후 3시 - 7시 사이)

##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아리랑 준비 위원장 김광석



## 편집 후기

본 회보의 편집이 시작된지도 벌써 꽤나 시간이 흐른것 같다. 자료수집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광고 모집, 도안등 많은 사람들의 협조에 힘입어 오늘 그 결실의 열매를 맺는 시기를 맞아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니 자못 감회가 깊어진다.

우선 본 회보가 발행되기까지 솔선하여 이끌어온 회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사,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불황 속에서도 회보 발행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주신 업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인회 4반세기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나온 한인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더욱 더 빛나는 한인회로 활성화 시키는 기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무엇인가 석연치 못한 미흡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상과 현실을 일치시키기가 쉽지 아니한 탓인가 한다. 좀더 노력 하였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1992년 어느 가을날  
 편집위원 일동

발행처: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편집: 이종식, 서이석, 박은남  
 신권수, 변사라  
 인쇄: 1992년 10월 30일  
 발행: 1992년 11월 5일  
 인쇄소: 웨더럴웨이 프린팅



알뜰 쇼핑을 리드하는  
SHIN SHIN ENTERPRISES CO.

# 신신백화점

전화: (206) 582-2975

(206) 582-2976

Toll Free ■ 1-800-888-2975

## 귀국 하실때 꼭! 들려주세요



### 각종유명 귀국선물

- 남녀양품
- 전기·전자제품·각종 유명화장품
- 비타민류·양털코트·선그라스·각종필기구
- 가정용품 일절



### 신신백화점

SHIN SHIN ENTERPRISES CO.

9205 S. Tacoma Way #101  
Tacoma, WA 98499



타 · 시 · 는 · 순 · 간 · 바 · 로 · 고 · 국 · 입 · 니 · 다



6#3-2/04

# 더욱 새로워진 고국 방문길

고국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집니다.

그리운 고향, 형제, 친지들...

마음껏 나누고 싶은 말들...

대한항공에 타시는 순간

바로 고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겨운 말들이,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더욱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고국 방문길을

더욱 편안하게, 더욱 가까이 모시고 싶은 마음

대한항공은 우리만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시애틀지점  
(206) 447-9932  
(206) 447-8099